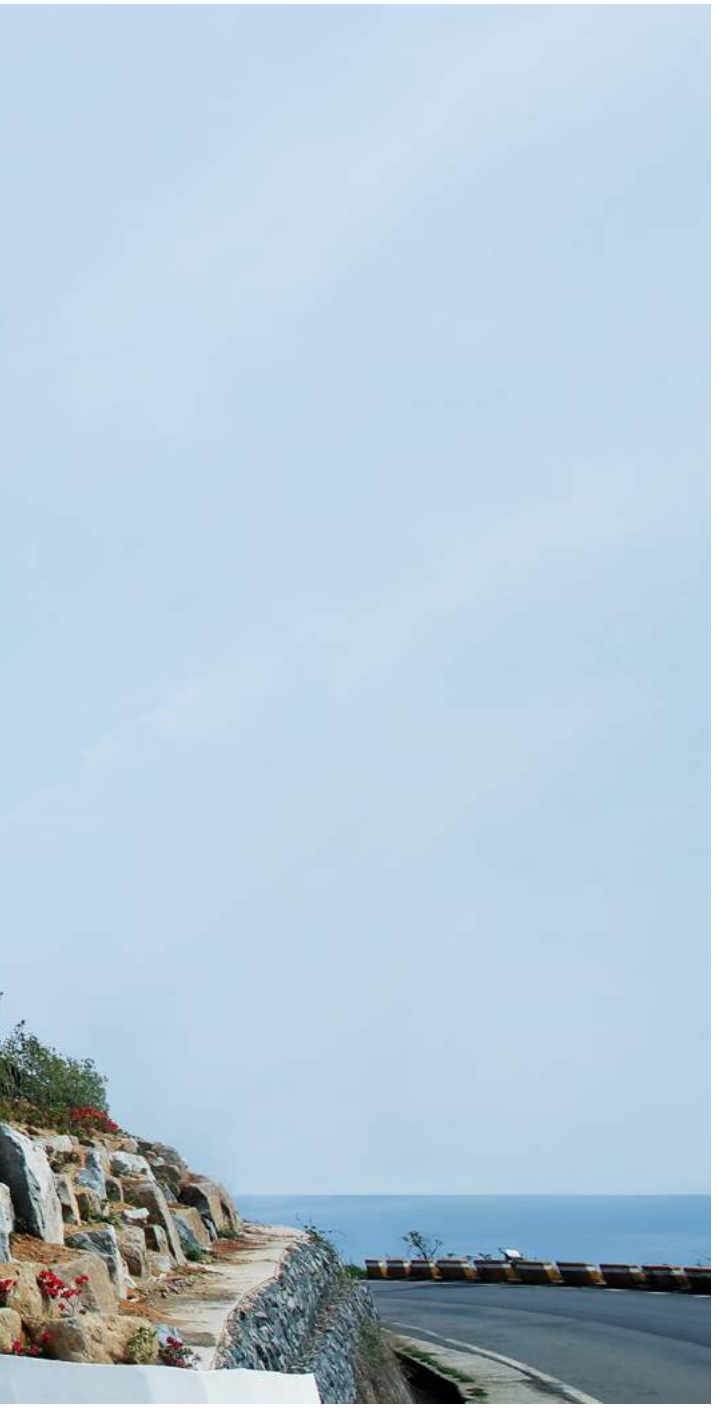


남해 프라임하우스

Namhae Prim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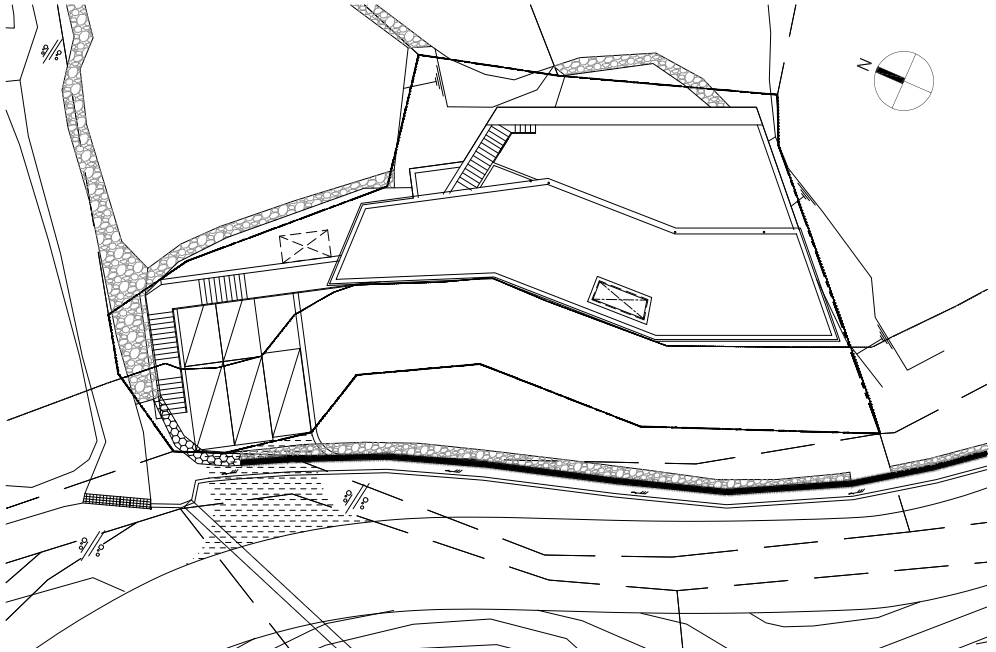
설계자 | **송인욱**_KIRA | 건축사사무소 사람인

- 설계팀 : 송인호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광림구조이엔지(주) 김재환
  - 기계설비분야 : 신나래엔지니어링(주)
  - 전기분야 : (주)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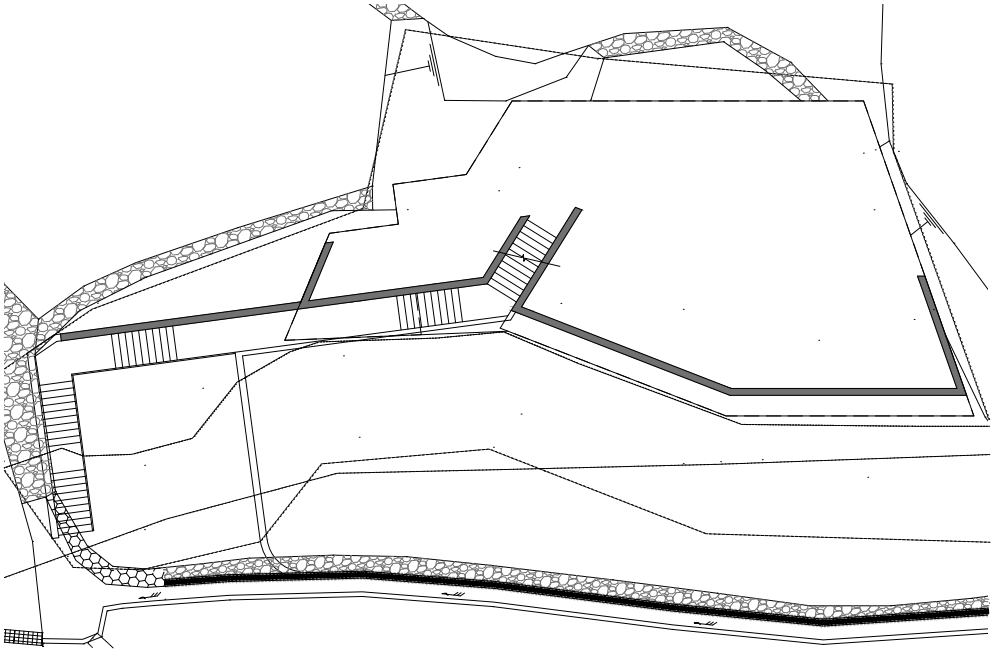
건축주 | 프라임하우스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사람인
시공사 | 랜드마크건설 이동훈

대지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71
주요용도 | 다가구주택(펜션)
대지면적 | 668㎡
건축면적 | 160.98㎡
연면적 | 225.37㎡
건폐율 | 24.10%
용적률 | 30.74%
규모 | 지하 2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외단열시스템(스터코)
- 내부 : 천연페인트,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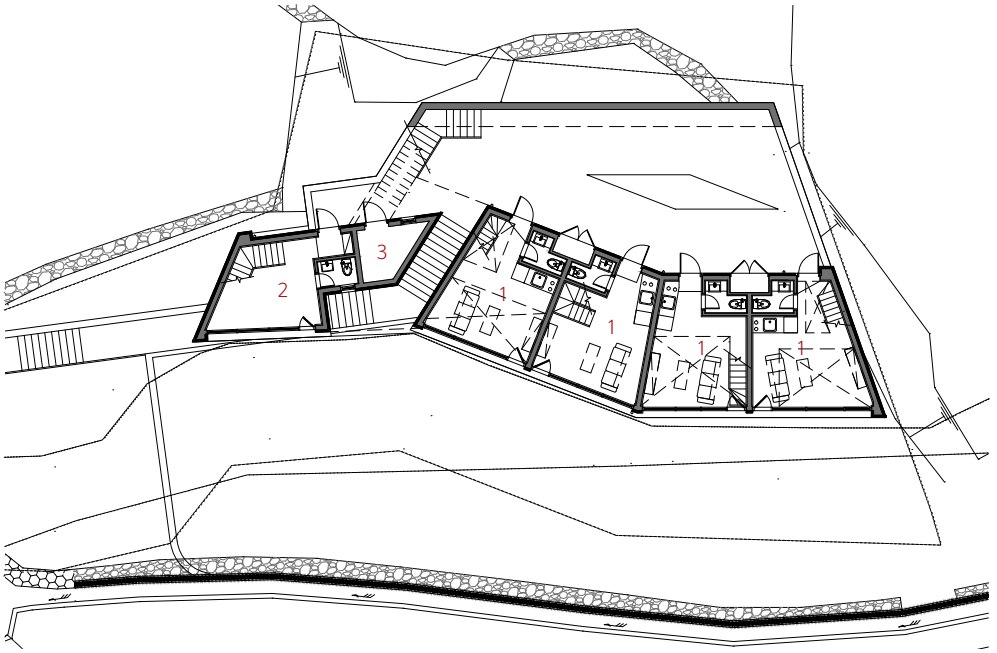
설계기간 | 2013. 02~2013. 07
공사기간 | 2013. 08~2014. 06
사진 | 류석란



배치도 0 1 3 6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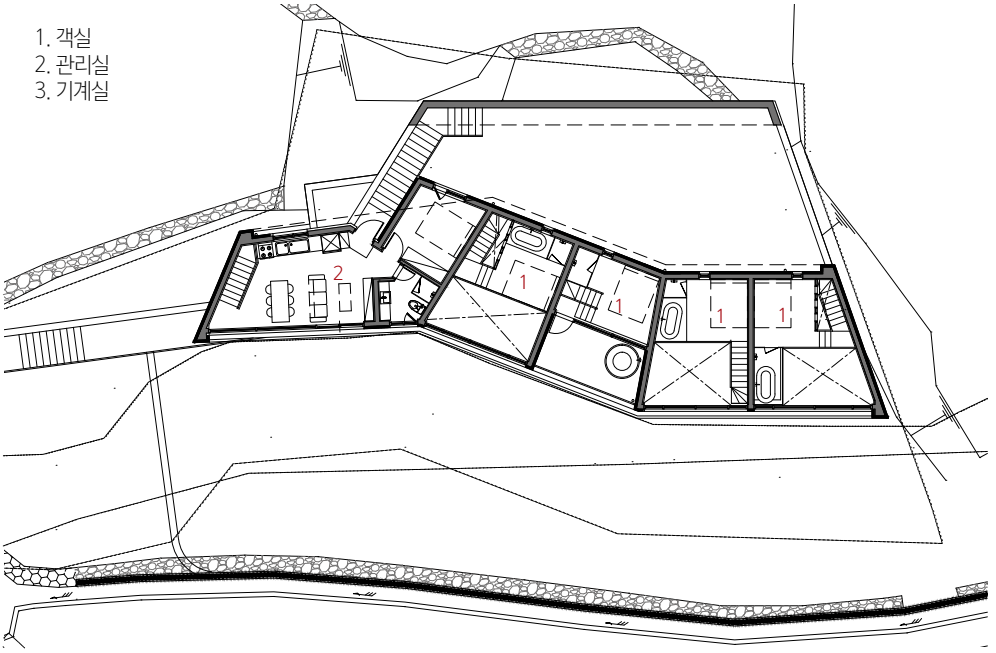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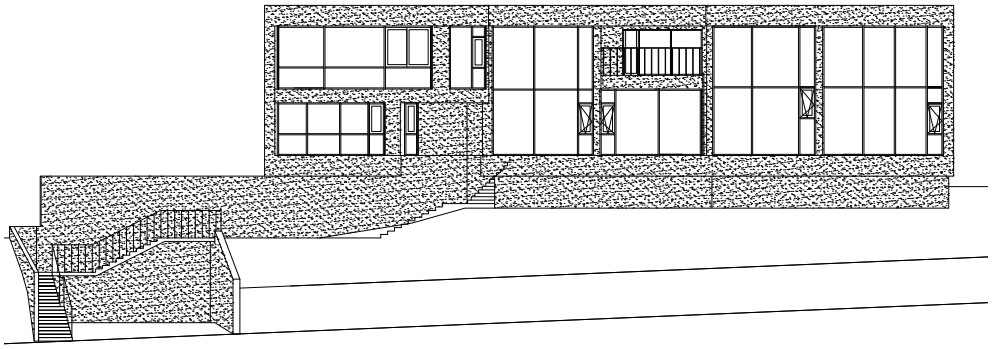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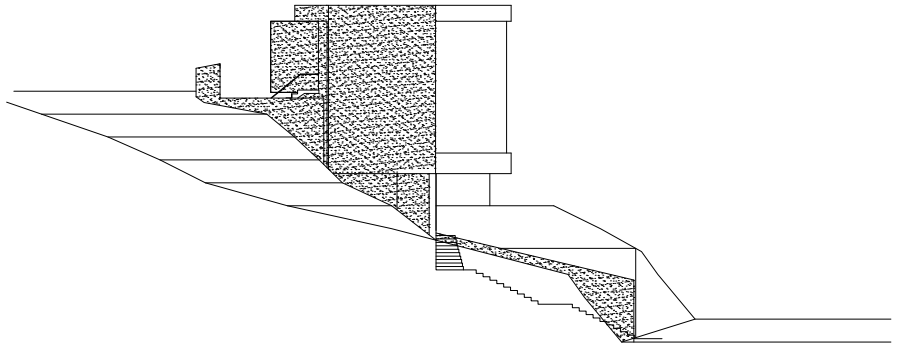
1. 객실
2. 관리실
3.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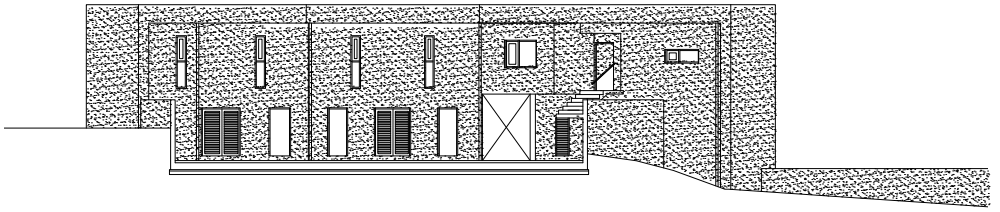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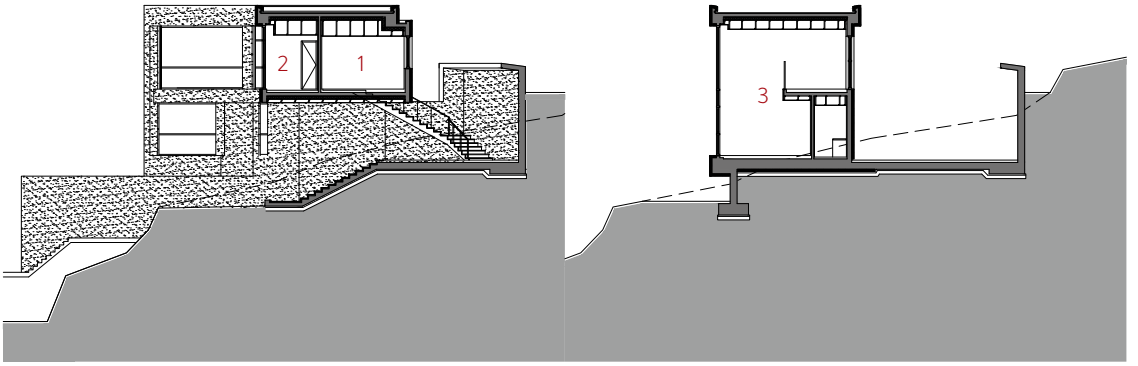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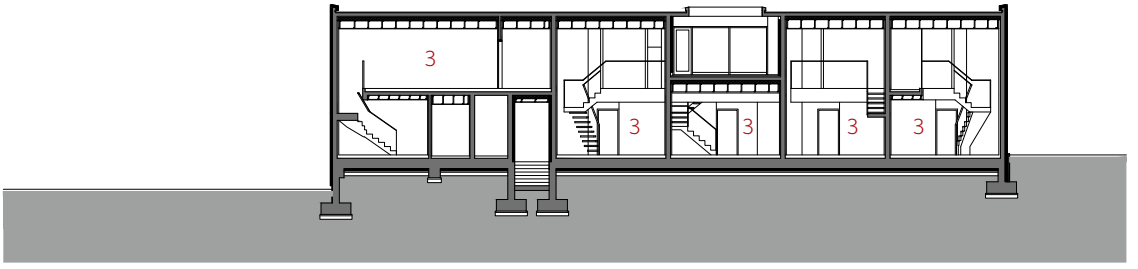
배면도

0 1 3 6m



종단면도

1. 방
2. 화장실
3. 객실



0 1 3 6m

횡단면도

site + program

대지는 남해바다에 면해 있고 지방도에 접해 들어 올려진 경사지 형태이다. 여기에 하루를 쉬어갈 수 있는 펜션의 기능을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처음에 접한 대지의 모습은 무엇 하나 바꾼다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듯 보였고 다랭이 마을에 인접한 대지는 최고의 풍광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우리의 역할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경사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풍광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site planing

도로를 따라 지정되어 있는 접도구역경계선이 대지의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으므로 매스는 그 경계선을 따라 넓게 펼쳐 바다를 향해 열린 면을 최대한 넓혀 배치하였고 매스의 전면과 배면에 외부공간을 형성하였다. 전면에 형성된 외부공간은 바비큐 장으로 활용하고 추후 건축주가 즐겨하는 음악관련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 뒤쪽의 마당은 접근통로가 되는 동시에 외부의 자연으로부터 보호받는 마당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도로에 접한 낮은 부분에 외부주차장을 두고 주차장으로부터 본 건물로 이동하는 동안 대지조성에 필요한 옹벽을 활용하여 건물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수직으로 8m의 레벨을 이동하는 동안 시선이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과정을 통해 **건축적 산책로**를 형성하였다.

plan + section

외부공간에서 형성된 건축적 산책로는 내부에서 더욱 극적으로 펼쳐지게끔 형태를 조정하였다. 바다를 향해 열리는 사선으로 처리된 벽체는 원근감을 왜곡되게 하여 바다가 더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높이 6m의 창을 수직적으로 펼쳐 실의 크기에 비해 과도한 개구부는 자연을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유도하였다.1층과 2층의 오픈된 공간은 층이 단절되지 않게 하고, 충분히 확보된 천정고는 1층과 2층에서 보는 바다를 다른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5개의 객실은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을 달리하여 내부에 조작된 건축적 장치로 인해 각각 다른 바다를 보는 느낌을 들도록 하였다. 따라서 방문객은 외부적으로는 동일한 바다이나 개별위치에 따라 **다른 바다를 경험**한다.

black & white

일관되게 요구한 건축주의 컨셉은 **건물전체의 재료에 적용**되었다. 여기에 바다의 색인 blue가 유리를 통해 들어왔을 뿐이다.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의 칼라는 매스를 대지에 살짝 올려놓고자 했던 우리의 의도를 더 극대화하였다.

BE
HAPPY
WITH
YOU

BE
HAPPY
WITH
YOU

BLANC BLEU

블랑블루

Blanc Bl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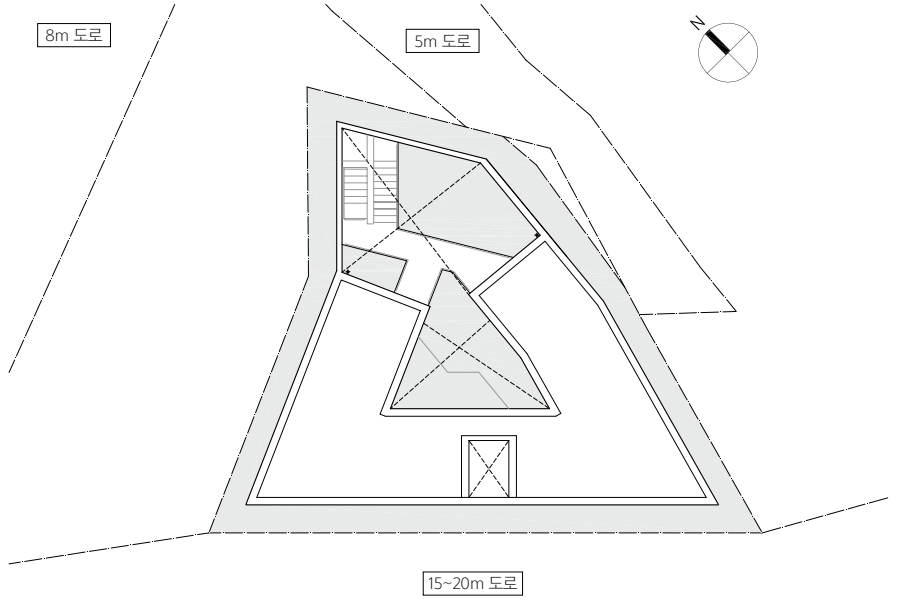
설계자 | **김성일**_KIRA | 건축사사무소 숲

- 설계팀 : 한민희, 오기앙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환구조기술사사무소
  - 기계설비분야 : (주)건양엠이씨
  - 전기분야 : (주)하이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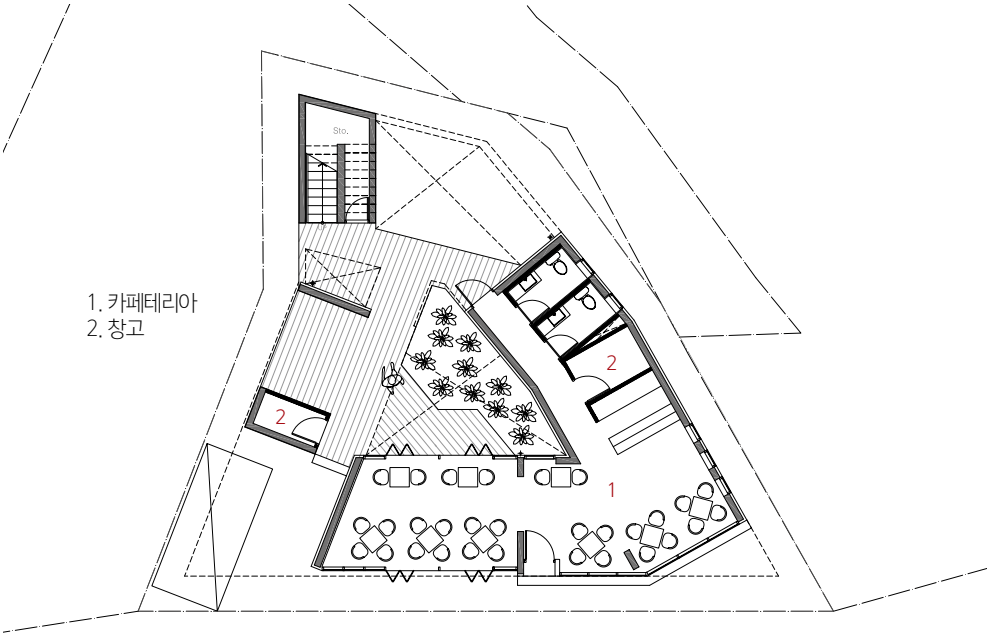
건축주 | 이승연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숲
시공사 | 이승연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91-7
주요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대지면적 | 256㎡
건축면적 | 127.52㎡
연면적 | 254.24㎡
건폐율 | 49.81%
용적률 | 99.31%
규모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외단열위 스터코
- 내부 : 석고보드위 천연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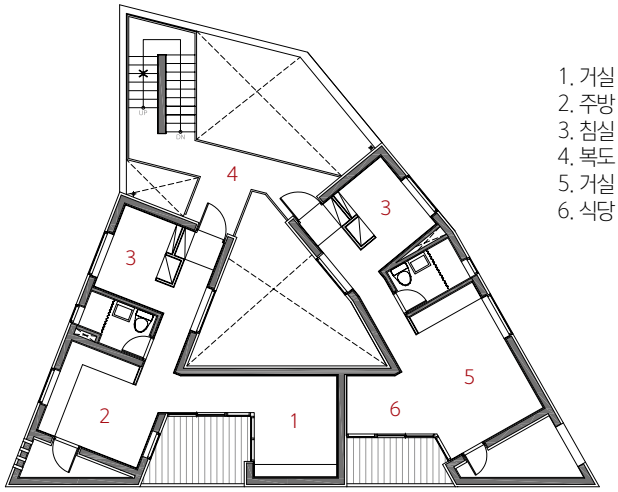
설계기간 | 2014. 04~2014. 06
공사기간 | 2014. 07~2015. 05



배치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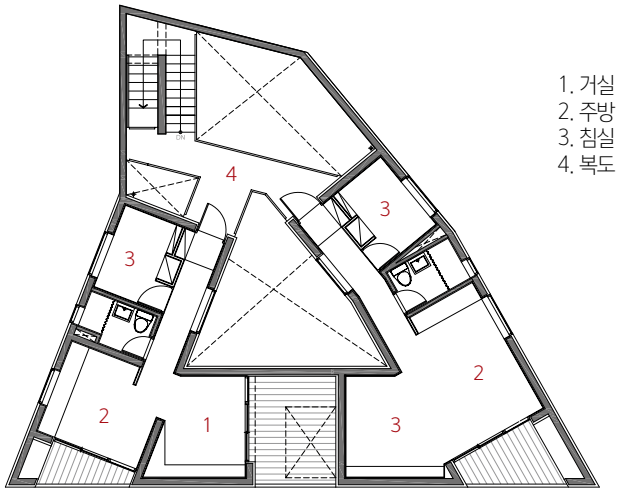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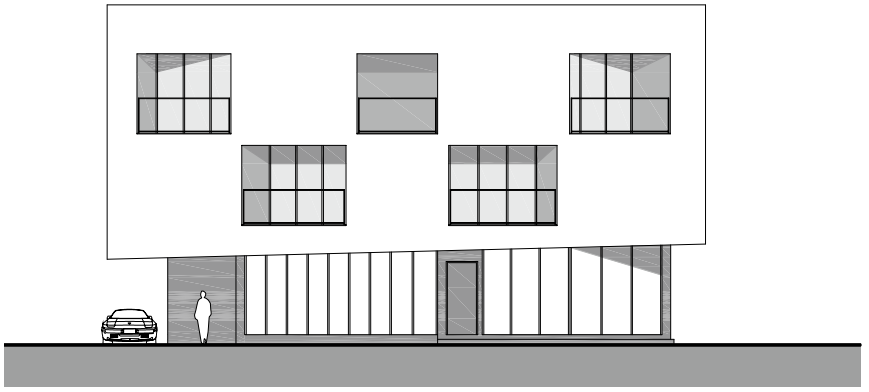
1. 거실
2. 주방
3. 침실
4. 복도
5. 거실 겸 주방
6. 식당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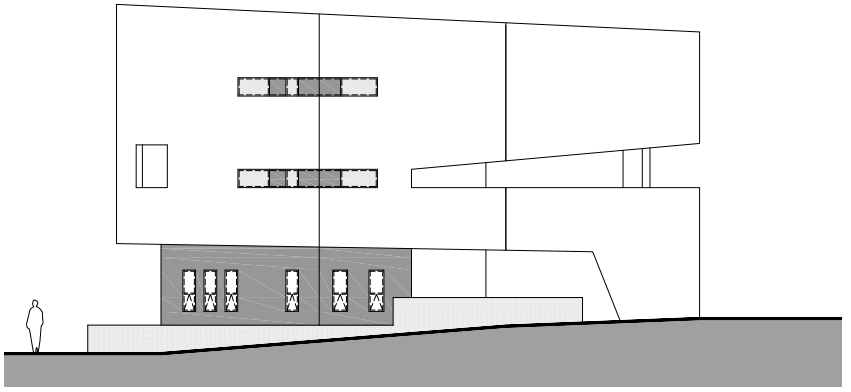


1. 거실
2. 주방
3. 침실
4.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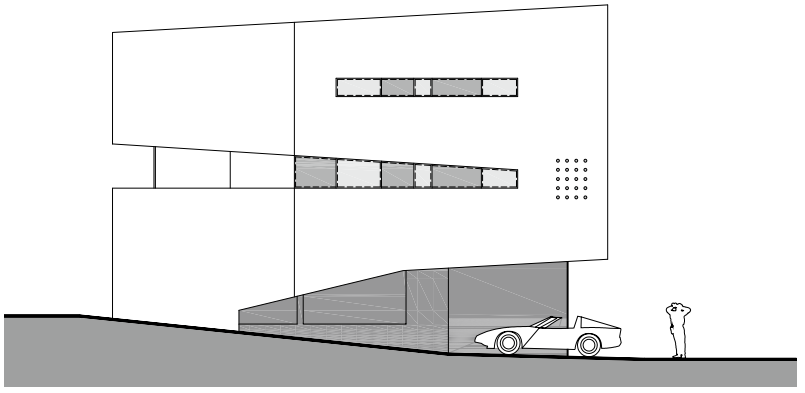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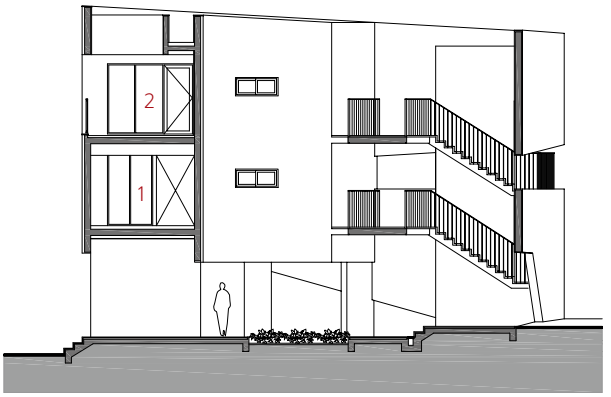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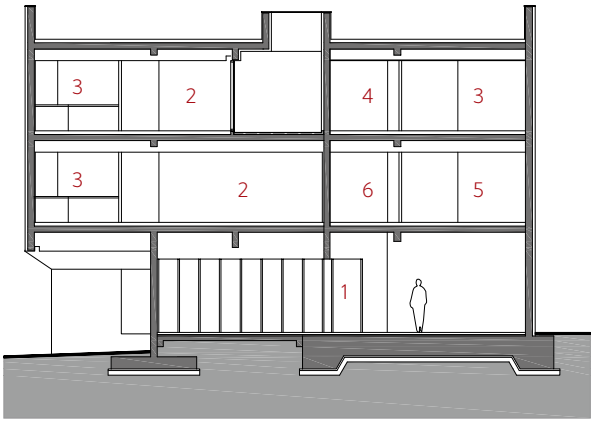
0 1 3 6m

1. 거실
2. 베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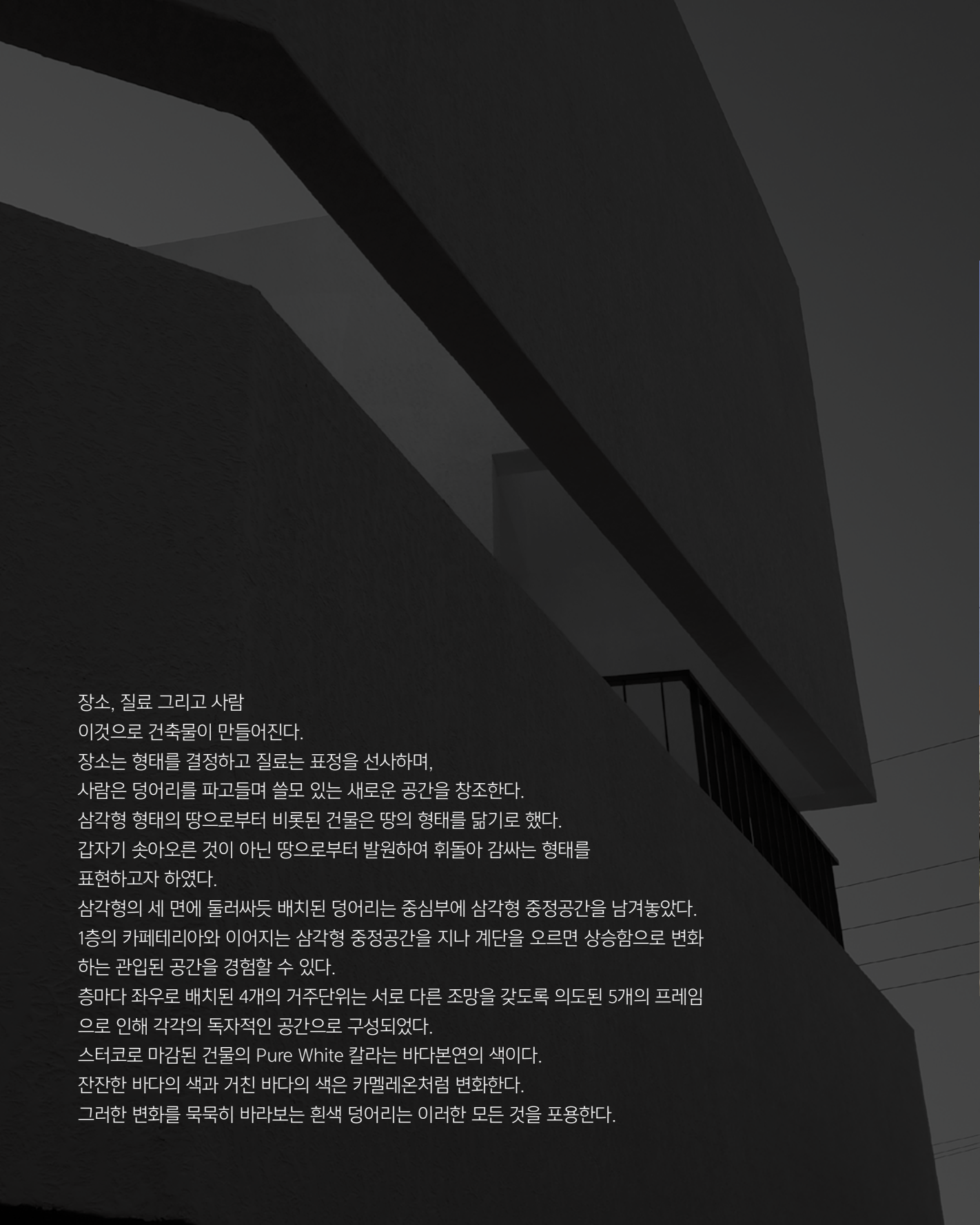
종단면도

1. 카페테리아
2. 거실
3. 주방
4. 침실
5. 거실 겸 주방
6.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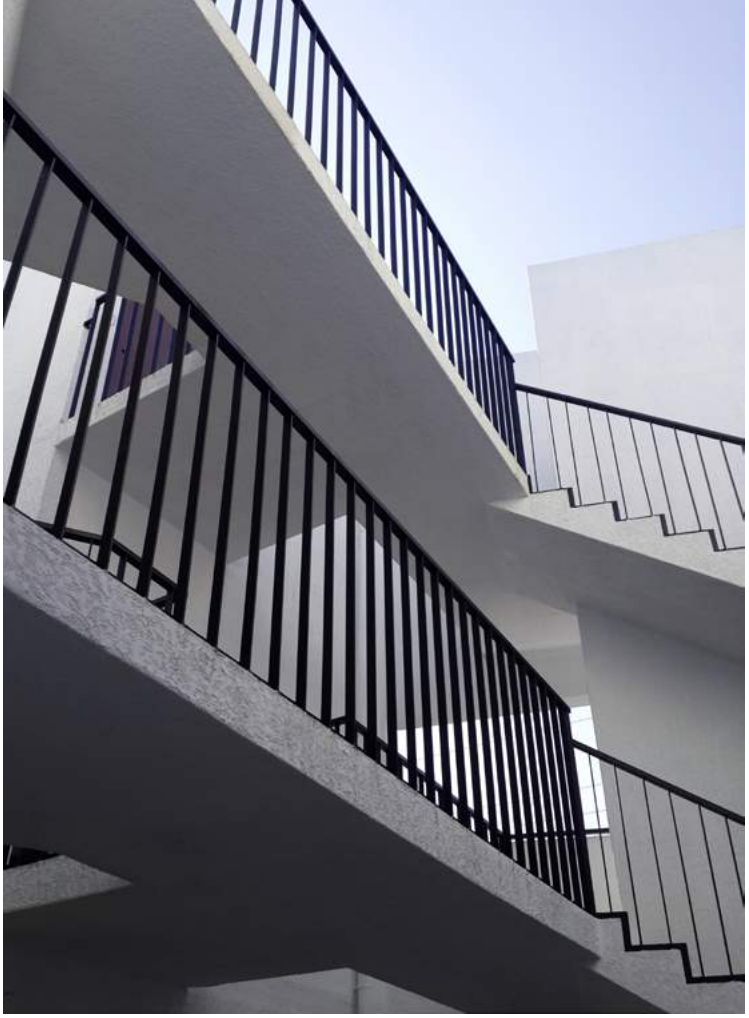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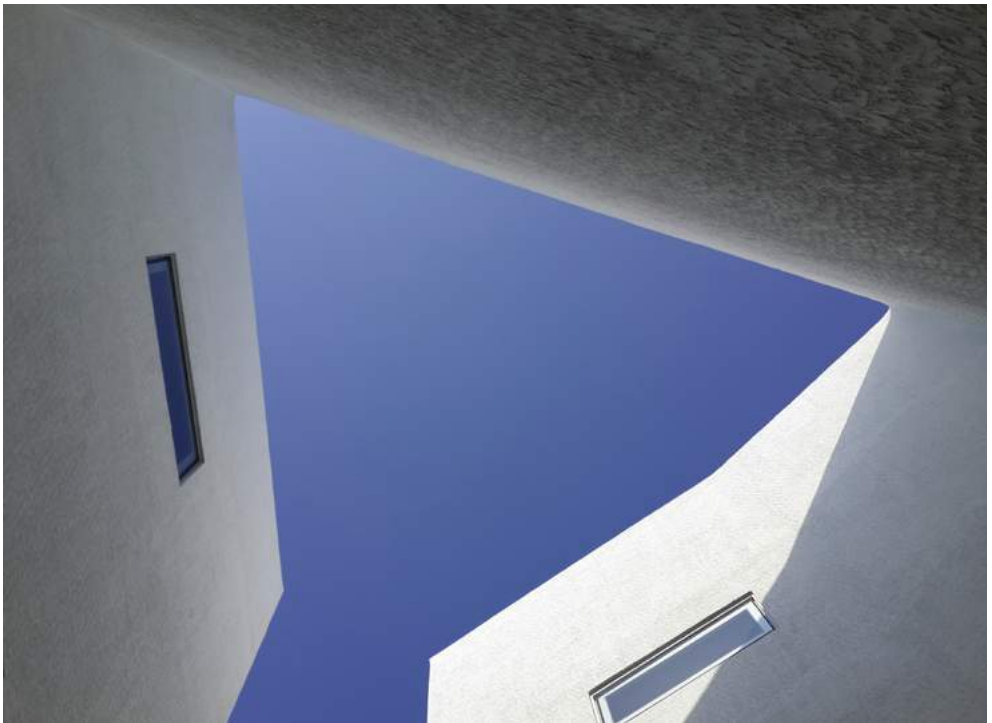
0 1 3 6m

횡단면도



장소, 질료 그리고 사람
이것으로 건축물이 만들어진다.
장소는 형태를 결정하고 질료는 표정을 선사하며,
사람은 덩어리를 파고들며 쓸모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삼각형 형태의 땅으로부터 비롯된 건물은 땅의 형태를 닮기로 했다.
갑자기 솟아오른 것이 아닌 땅으로부터 발원하여 휘돌아 감싸는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삼각형의 세 면에 둘러싸듯 배치된 덩어리는 중심부에 삼각형 중정공간을 남겨놓았다.
1층의 카페테리아와 이어지는 삼각형 중정공간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상승함으로 변화
하는 관입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층마다 좌우로 배치된 4개의 거주단위는 서로 다른 조망을 갖도록 의도된 5개의 프레임
으로 인해 각각의 독자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스터코로 마감된 건물의 Pure White 칼라는 바다본연의 색이다.
잔잔한 바다의 색과 거친 바다의 색은 카멜레온처럼 변화한다.
그러한 변화를 묵묵히 바라보는 흰색 덩어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포용한다.





BLANC BLEU
EDIYA COFFEE
제성2호

태평양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덕풍(德豊)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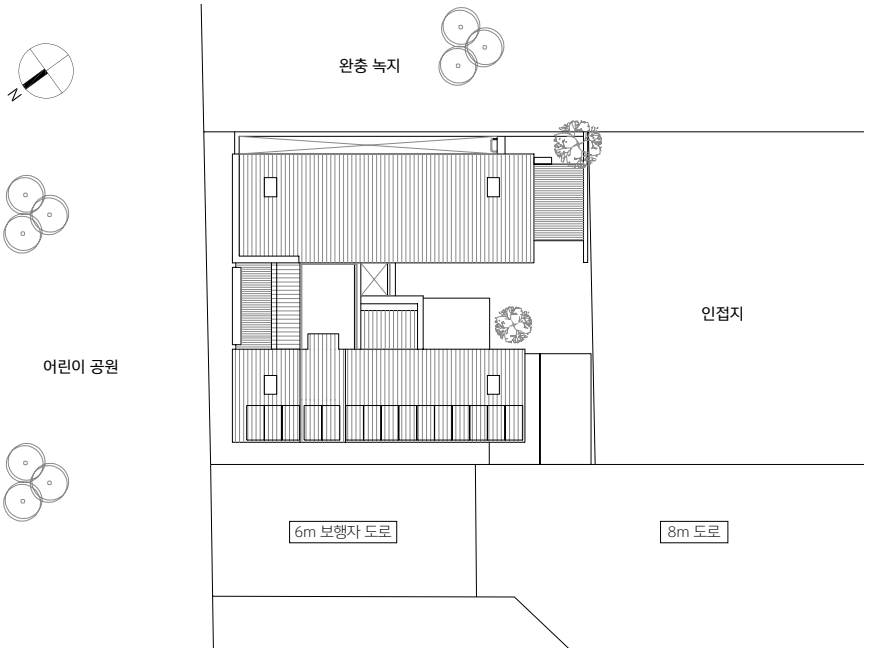
Deokpung House

설계자 | **정승이**_KIRA | U-HAUS 건축사사무소

· 전문기술협력
– 기계설비분야 : 세원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세원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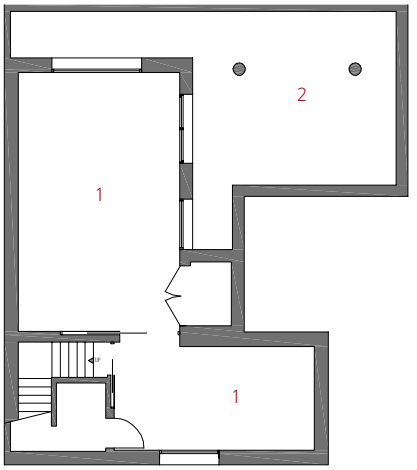
건축주 | **손병호**
시공사 | **U-HAUS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53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260.20㎡
건축면적 | 129.85㎡
연면적 | 308.37㎡
건폐율 | 49.90%
용적률 | 77.95%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알루미늄 메가판넬, 노출콘크리트, 인조석
– 내부 : 온돌마루, 실크벽지
설계기간 | 2013. 08~2014. 02
공사기간 | 2014. 03~2014. 10
사진 | 변종석



배치도

0 1 3 6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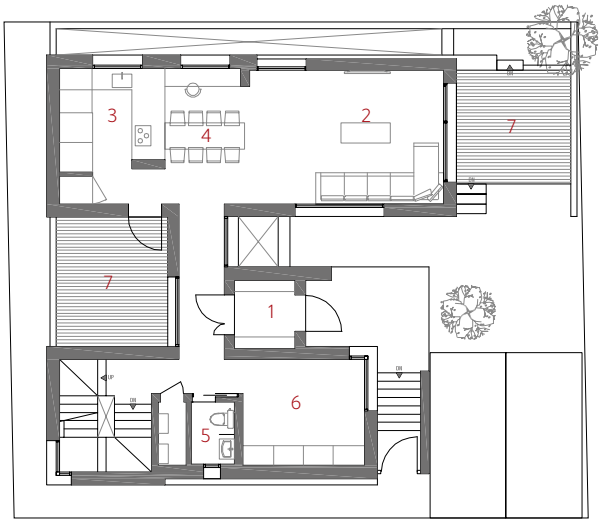


1. 취미실
2. 선큰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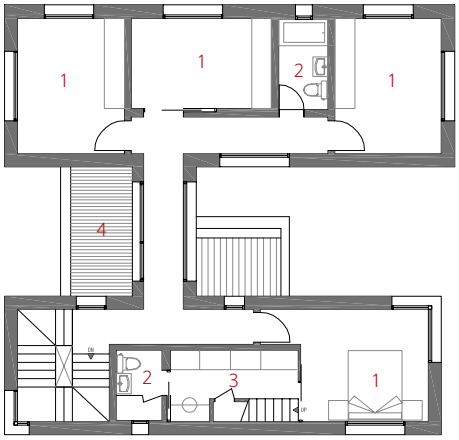
0 1 3 6m

1. 현관
2. 거실
3. 주방
4. 식당
5. 욕실
6. 게스트 룸
7.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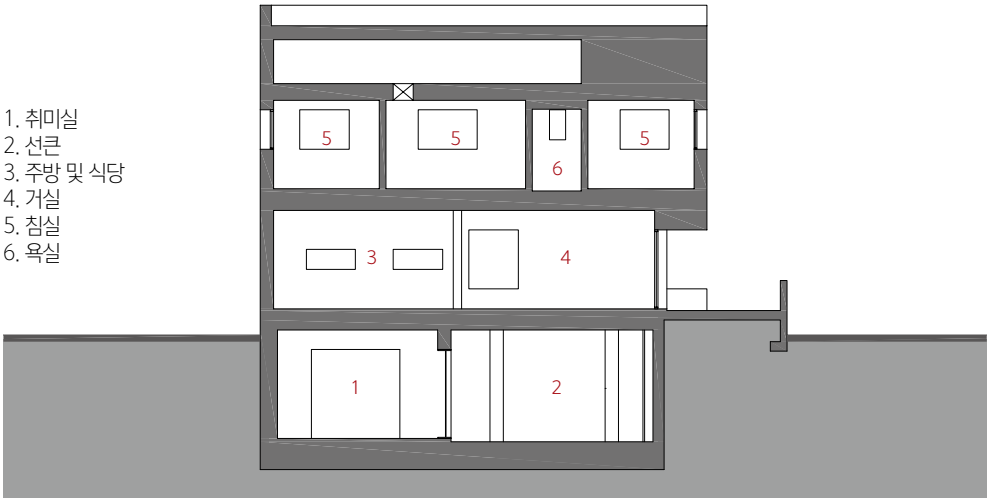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 침실
2. 욕실
3. 드레스 & 파우더 룸
4.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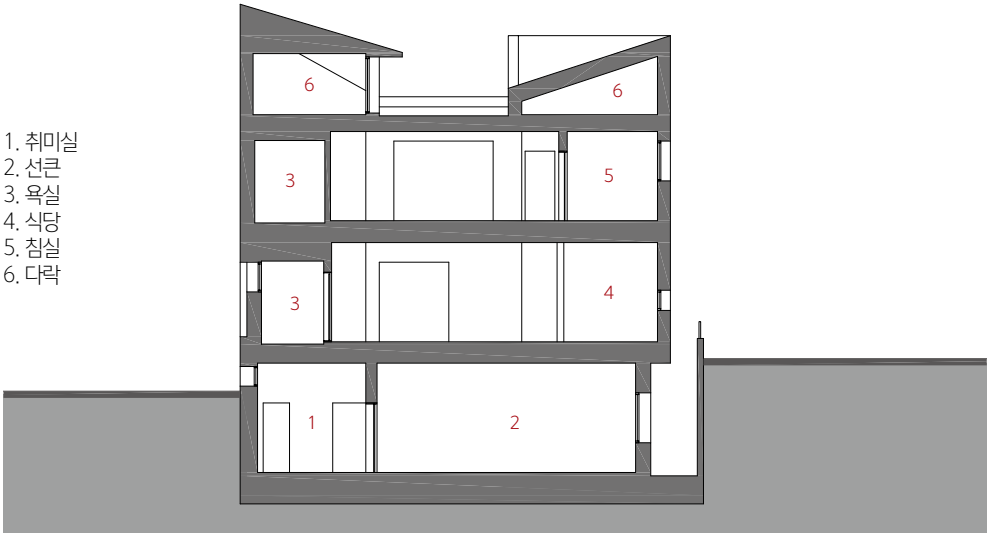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 취미실
2. 선큰
3. 주방 및 식당
4. 거실
5. 침실
6. 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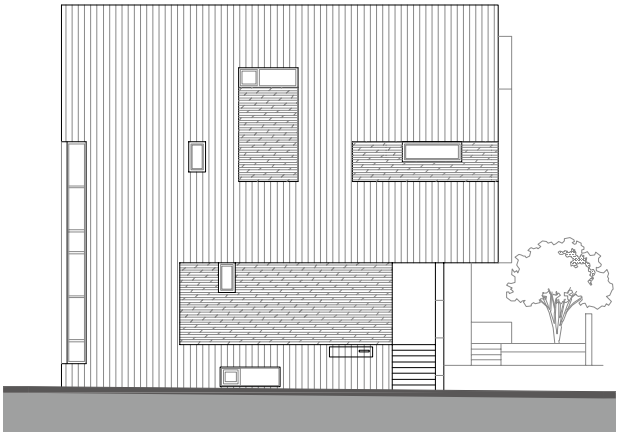
횡단면도

1. 취미실
2. 선큰
3. 욕실
4. 식당
5. 침실
6. 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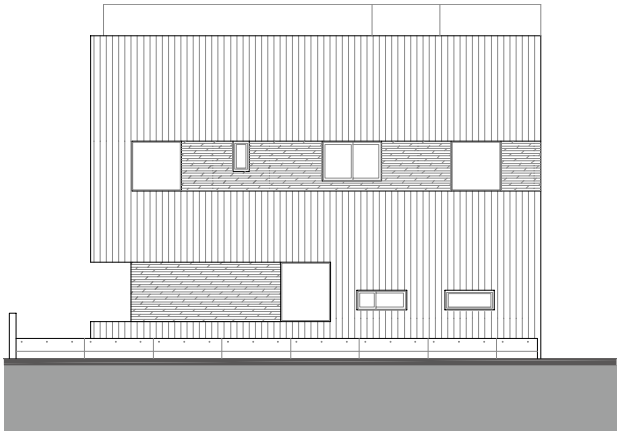


종단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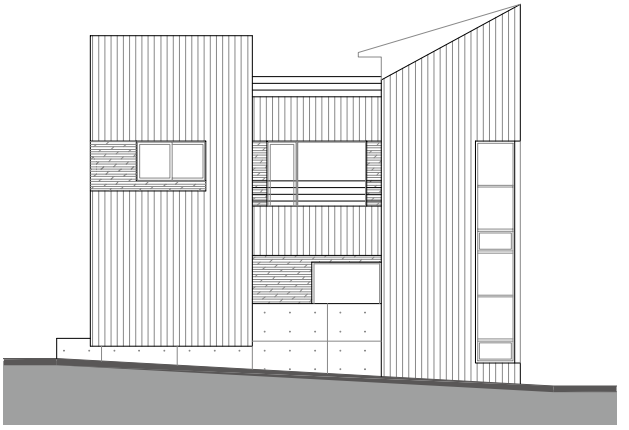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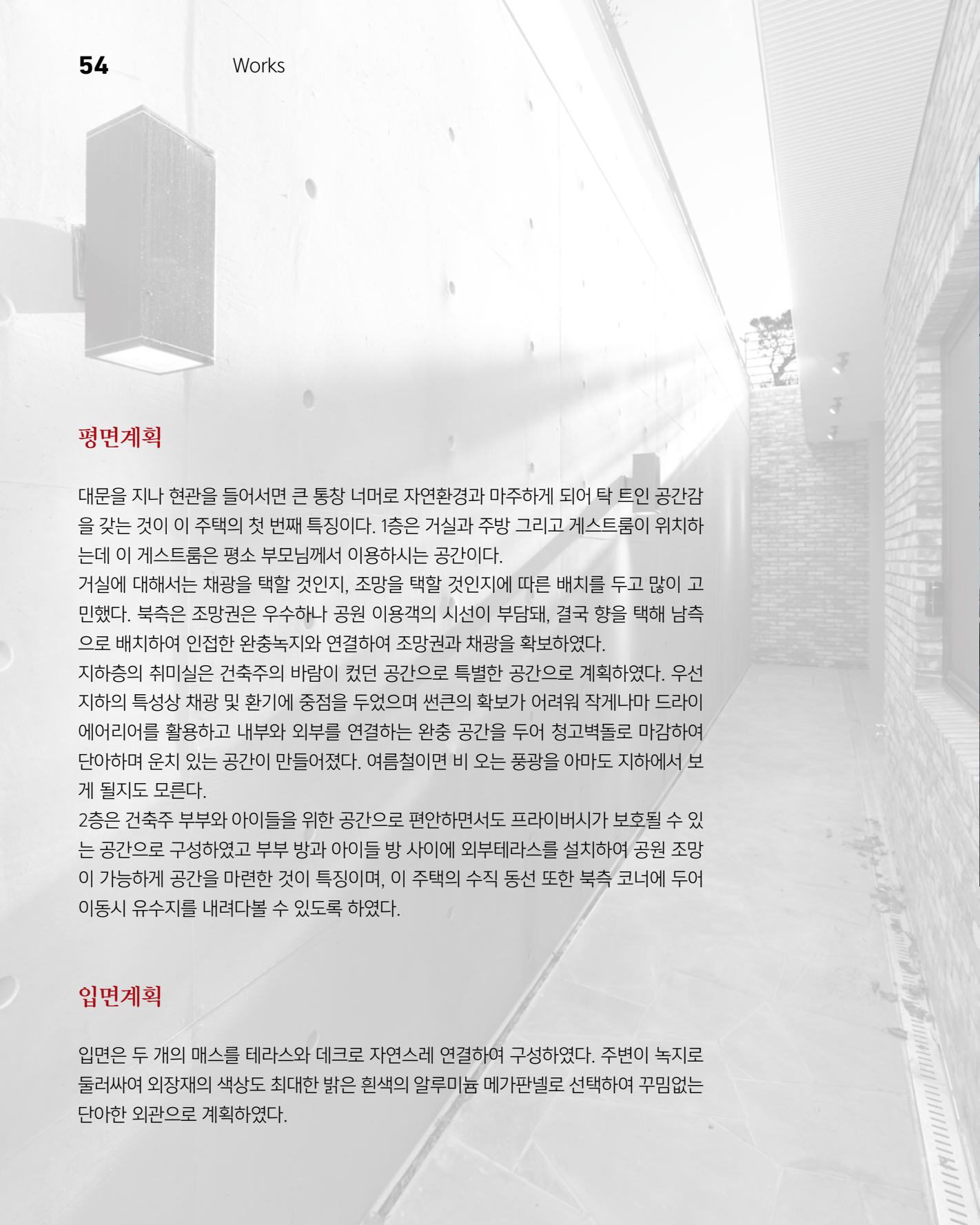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계획

대문을 지나 현관을 들어서면 큰 통창 너머로 자연환경과 마주하게 되어 탁 트인 공간감을 갖는 것이 이 주택의 첫 번째 특징이다. 1층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게스트룸이 위치하는데 이 게스트룸은 평소 부모님께서 이용하시는 공간이다.
거실에 대해서는 채광을 택할 것인지, 조망을 택할 것인지에 따른 배치를 두고 많이 고민했다. 북측은 조망권은 우수하나 공원 이용객의 시선이 부담돼, 결국 향을 택해 남측으로 배치하여 인접한 완충녹지와 연결하여 조망권과 채광을 확보하였다.
지하층의 취미실은 건축주의 바람이 컸던 공간으로 특별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우선 지하의 특성상 채광 및 환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썬큰의 확보가 어려워 작게나마 드라이에어리어를 활용하고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을 두어 청고벽돌로 마감하여 단아하며 운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여름철이면 비 오는 풍광을 아마도 지하에서 보게 될지도 모른다.
2층은 건축주 부부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편안하면서도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고 부부 방과 아이들 방 사이에 외부테라스를 설치하여 공원 조망이 가능하게 공간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며, 이 주택의 수직 동선 또한 북측 코너에 두어 이동시 유수지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입면계획

입면은 두 개의 매스를 테라스와 데크로 자연스레 연결하여 구성하였다. 주변이 녹지로 둘러싸여 외장재의 색상도 최대한 밝은 흰색의 알루미늄 메가판넬로 선택하여 꾸밈없는 단아한 외관으로 계획하였다.

SCENIC 94

SCENIC94 펜션

SCENIC94 P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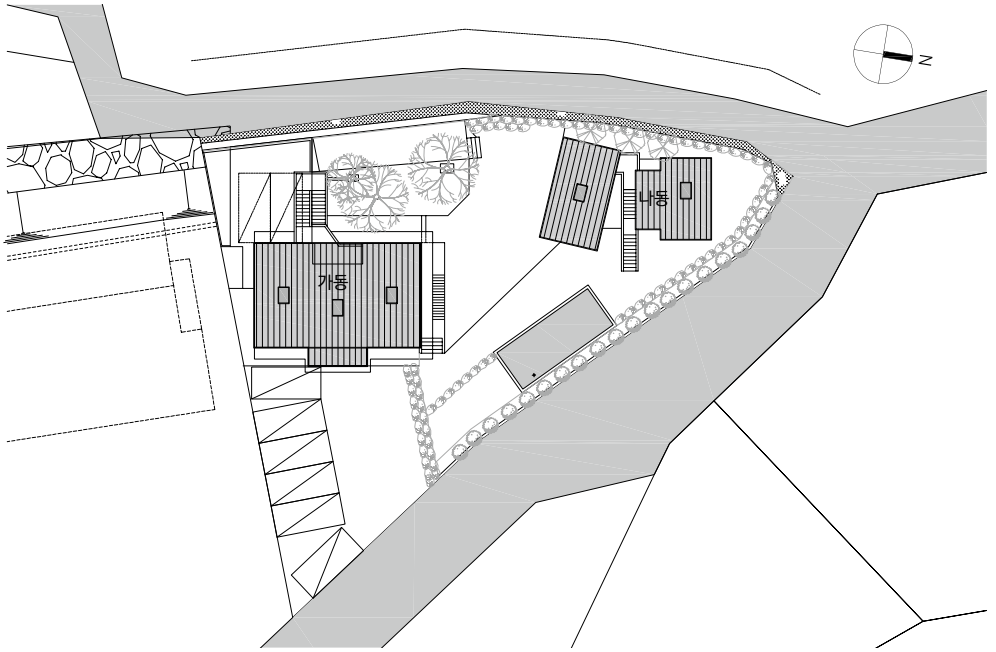
설계자 | **최이선**_KIRA | 건축사사무소 예인

- 설계팀 : 이명선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나라구조 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주)성지이엔씨
  - 전기분야 : (주)성지이엔씨
  - 소방분야 : (주)성지이엔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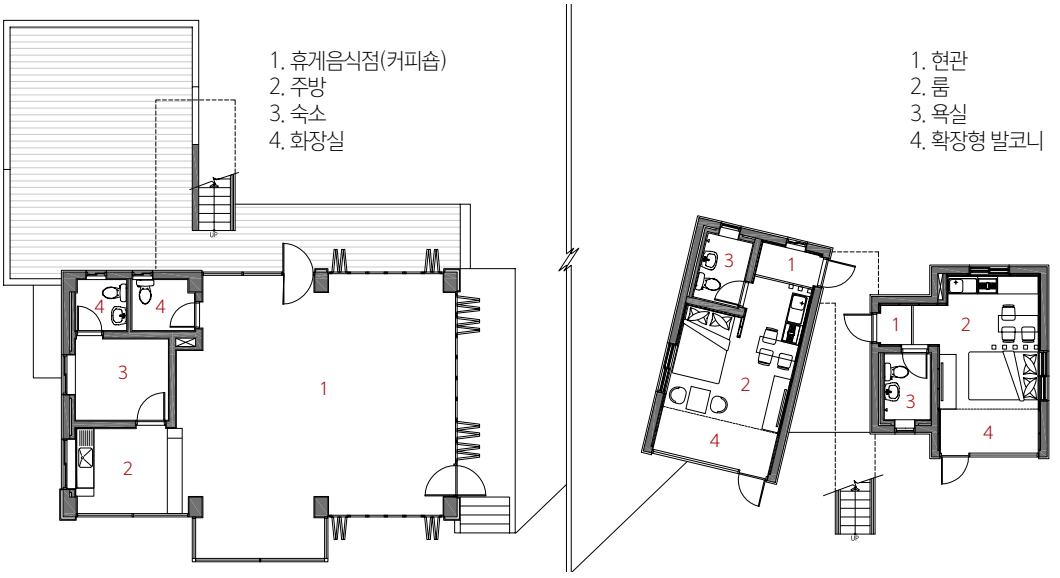
건축주 | 박미영, 민병철
감리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시공사 | 박미영, 민병철

대지위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190-9
주요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제1종근생(휴게음식점)
대지면적 | 838.00㎡
건축면적 | 166.88㎡
연면적 | 489.38㎡
건폐율 | 19.91%
용적률 | 51.69%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알루징크판넬, 외단열시스템+스터코
- 내부 : 친환경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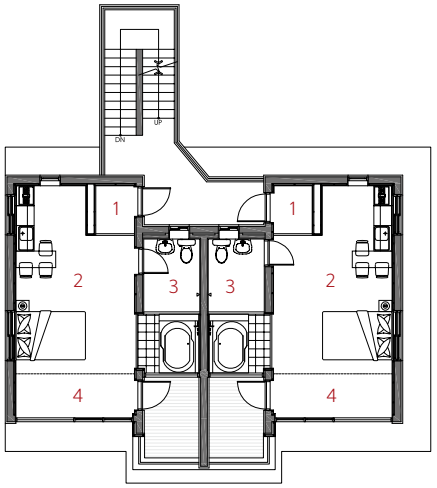
설계기간 | 2013. 10~2014. 02
공사기간 | 2014. 03~2014. 07
사진 | 변종석



배치도 0 1 3 6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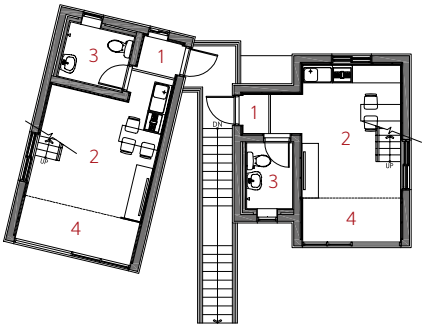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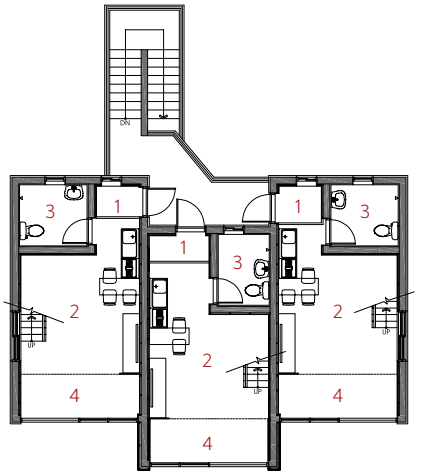
가동

1. 현관
2. 룸
3. 욕실
4. 확장형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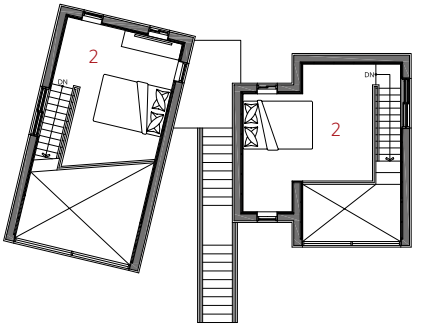
나동

2층 평면도



가동

1. 현관
2. 룸
3. 욕실
4. 확장형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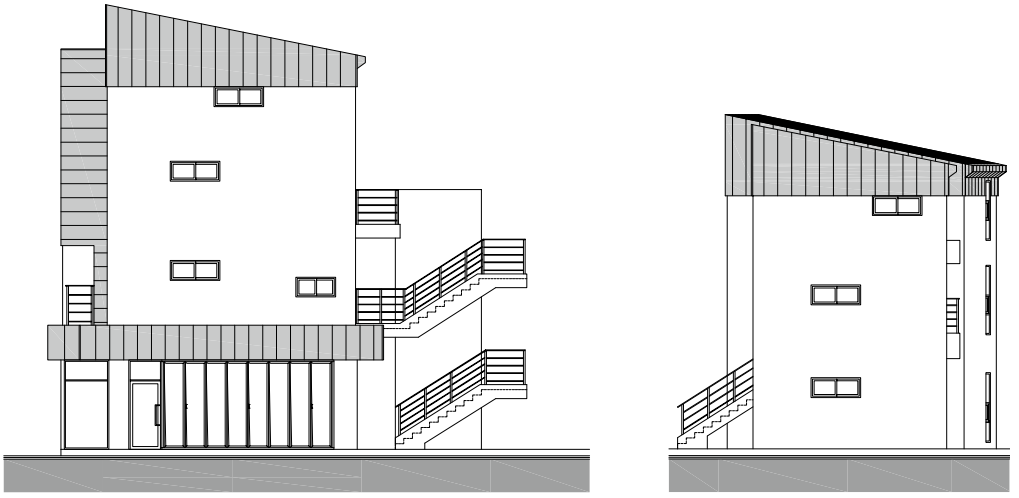


나동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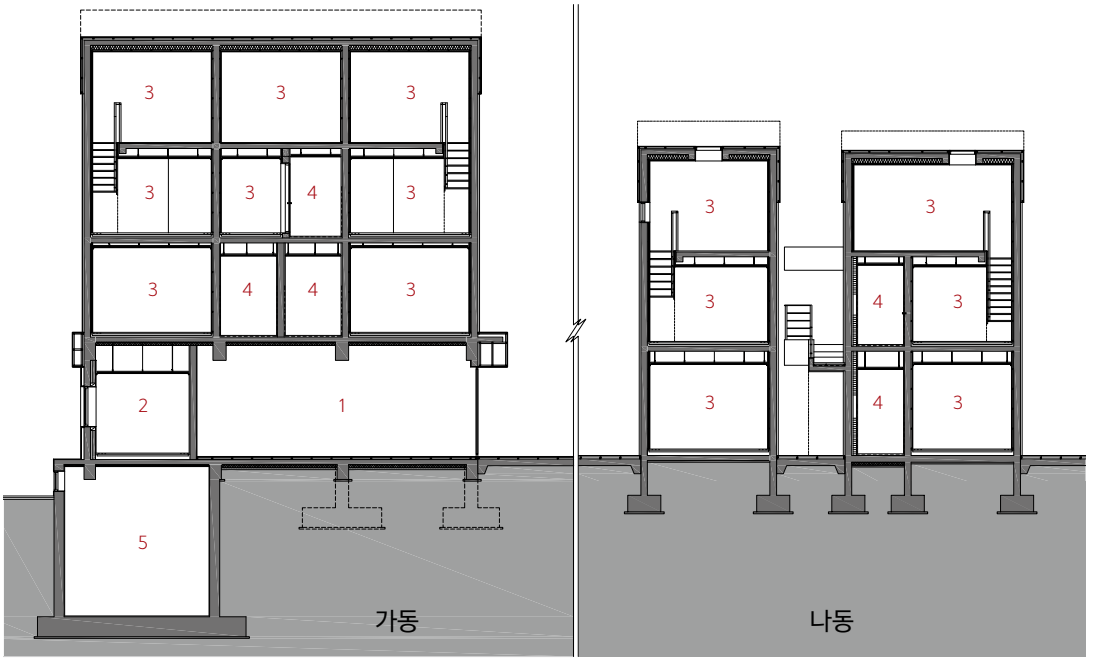
가동 나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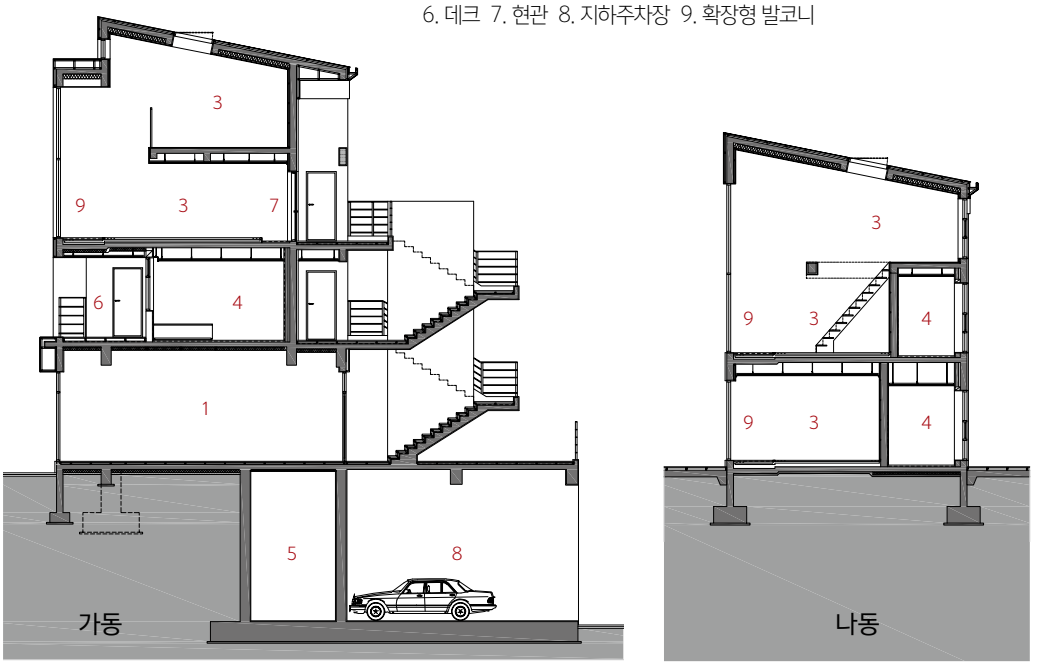
가동 나동

우측면도 0 1 3 6m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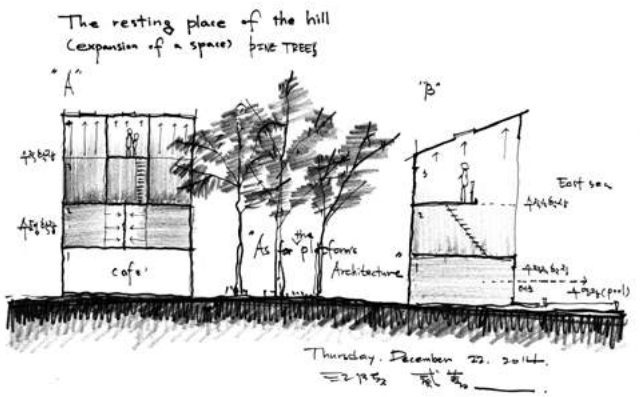
1. 휴게음식점 2. 숙소 3. 방 4. 욕실 5. 창고
6. 데크 7. 현관 8. 지하주차장 9. 확장형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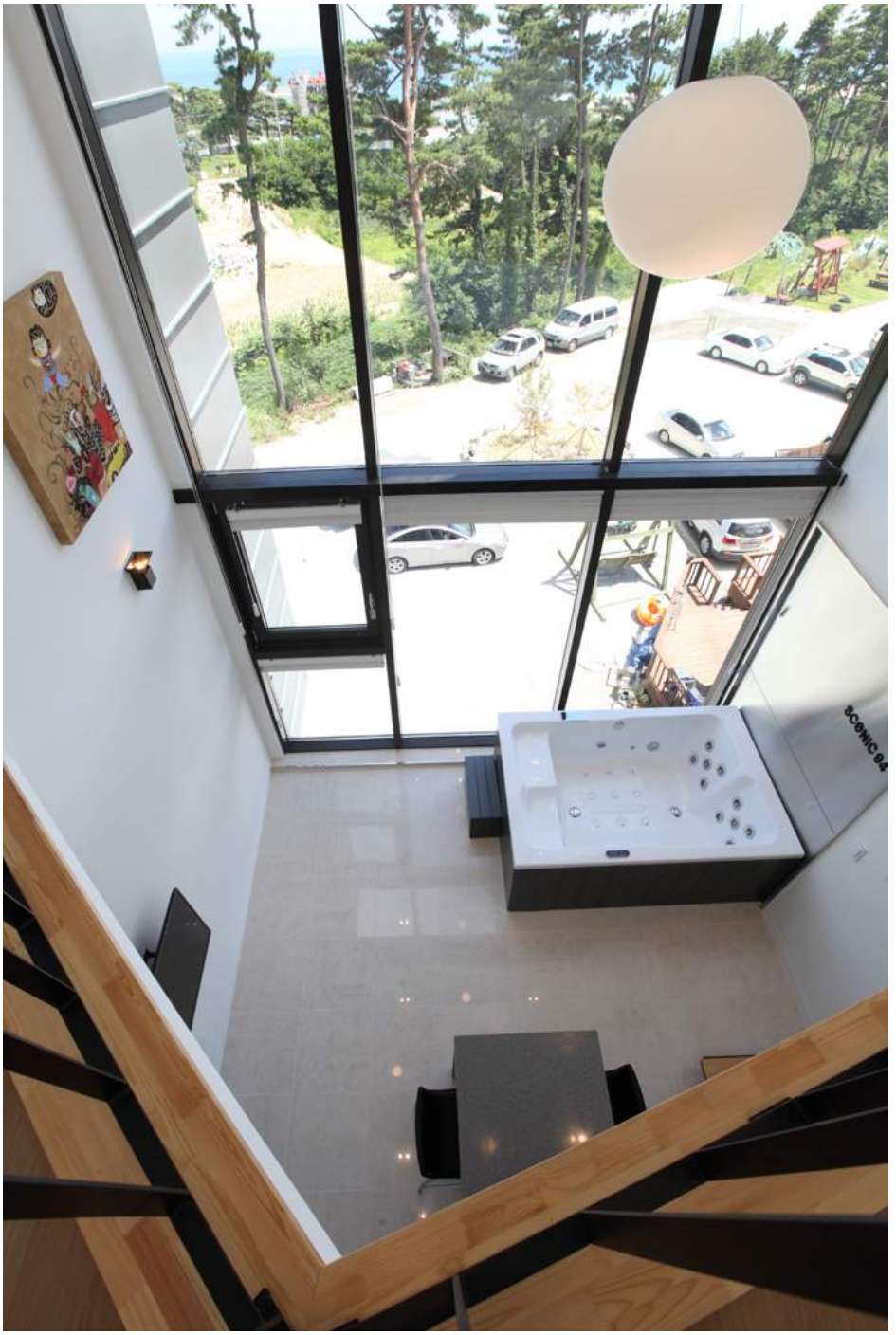


종단면도

Platform Of The Healing Hill

여름이 되면 대관령을 넘으면서 동해 바다로 피서 오는 사람들로 한달 정도는 동해안 바닷가는 피서객들로 몸살을 앓는다. 유명한 경포호수, 경포대 그리고 경포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따라 어느 해변이나 아름다운 모래와 코발트색의 바다의 풍경이 방풍림과 함께 펼쳐진다. 또한, 대관령이 서쪽으로 풍경화같이 감싸 안고 있는 강릉 경포의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보면 주문진 가기 전에 영진 바닷가를 만날 수 있다. 건축부지 옆에 커피로 유명한 보헤미안 커피숍이 있고 쉴 만한 언덕에 3, 4백년은 되었을 것 같은 작은 언덕을 발견할 수 있다. 건축주와 처음 이 쉴만한 언덕 부지에 펜션 설계를 의뢰를 받았을 때 소나무 세 그루, 대관령 그리고 바다를 건축물에 담기보다는 한국화의 수묵화에서처럼 건축물을 화폭에 담겨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계를 시작하였다. 세 그루 소나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건축물을 한 개의 동으로 만들지 않고 소나무의 높이를 넘지 않는 만큼의 건축물로 분절시켜 배경으로 보이는 대관령과 근경의 낮은 구릉의 소나무 숲을 시각적으로 통과시켜 경관적 건축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주변의 경관은 사람의 습관과 생활 행태를 만들고 독특한 강릉만의 지역성을 가지게 만든 요소이다. 건축물이 경관의 일부분이 되는 동양적 철학을 기반에 둔 배치를 하였다. 평면계획에서도 수평, 수직적 공간의 확장을 통해 도심에서의 규격화 된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공간의 다양성과 산수화 안에 들어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영진 언덕은 도시로부터 자연의 품으로 여행을 오는 여행객들에게는 쉴만한 언덕이 능선을 따라 펼쳐져 있고, 그 언덕은 “Platform Of The Healing Hill”이다. 자연경관적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수직적으로 분할하여 Platform에 숙박이라는 단순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벤트를 담는 작업을 이번 작업을 통해서 하였다. 자연의 불연속성을 건축 평면 및 배치에 적용하므로 바다를 향한 단조로운 조망이 아닌 위치에 따라 변해가는 풍경들을 즐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공간의 수직적, 수평적 확장을 통해 폐쇄적 공간을 주변 자연과 같이 호흡하는 Platform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SCENIC 04

SCENIC 94

SCENIC 94

아트힐
시너94
cafe
시노그라페

서쪽 하늘 게스트하우스

West Sky Guest House

설계자 | **김형섭**_KIRA | 위드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이순심(장동수)
감리자 | 위드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이순심(장동수)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845-3번지
주요용도 | 단독주택(A,B동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대지면적(Site Area) | 443.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4.79㎡
연면적(Gross Floor Area) | 153.9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5.91%
용적률(Floor Area Ratio) | 34.75%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외단열시스템
- 내부 : 도배지, 강화마루, 에폭시코팅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4. 03~2014. 06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07~2014. 12
사진(Photographer) | 위드건축, 장동수

- 설계팀 : 김형태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허브구조사무소
- 기계설비분야 : 명설비
- 전기분야 : 종합전기
- 소방분야 : 종합전기

시작1_건축주이야기

서쪽하늘이 지어진 고산리 한장동으로 들어서는 입구는 해가 지는 곳에 딱 어울리게 참으로도 평온하다. 넓은 평야는 볼 때마다 우리에게 조용하고 차분해 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준다. 한참 이 모습을 바라고 있으면, 이곳은 '아! 시골이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정말 시골이다. 그래서 더 좋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곳은 앞으로도 발전되지 않았으면 한다. 새로이 지어질 집이지만 이 시골마을에 어울리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손님들이 지내면서도 이 마을 안에서 이질감(난, 여행 온 사람)을 느끼지 않고 이 마을의 한 일원처럼 느끼며 시골이 주는 평온함과 여유를 온전히 느끼고 갈 수 있었으면 한다.

생각1_개념

무언가 특별함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농촌마을 같은……. 무언가를 찾아 그 개념을 토대로 설계해야 하는 하지만 자그마한 조용한 동네에 너무 튀지 않고, 조용한 건축물로 다가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시작되었다. 기존 건축물(구옥)이 있는 곳에 최소한 존치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분석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전체 철거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이곳에 있었던 구옥을 구성한 제주돌을 어떻게든 이용하고자 하는 방향이 기본 디자인의 시발점이다.

생각2_배치

건축물의 배치는 올레길이 꺾이는 곳에 위치하여 건축물이 올레길을 안을 수 있는 그리고 올레길을 바라볼 수 있는 ㄱ자형을 기반으로 배치가 구성되었고, 각 실들이 주변 경관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구성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진행되었다. 연주(가야금)를 할 수 있는-정말 잘하는-건축주의 이야기에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설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읽혀졌다. 이러한 공간 설정이 각각의 큰 공간-주택1, 주택2, 자그마한 까페-을 만드는 중심이 되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자연스러운 배치를 유도하였다.

생각3_공간

올레길에서 건축물이 전체 보이게 되는 올레길을 안은 ㄱ자 배치의 건물군으로 자연스러이 부지내로의 진입을 꽤하였고, 그 진입부 마당에서 보이는 필로티의 오픈된 커뮤니티 마당이 자연스러이 나타난다. 이 공간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주변의 풍경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된다. 그 중심에서 한껏 소통의 공간을 느끼고 각각의 공간의 구성으로 흩어진다.

생각4_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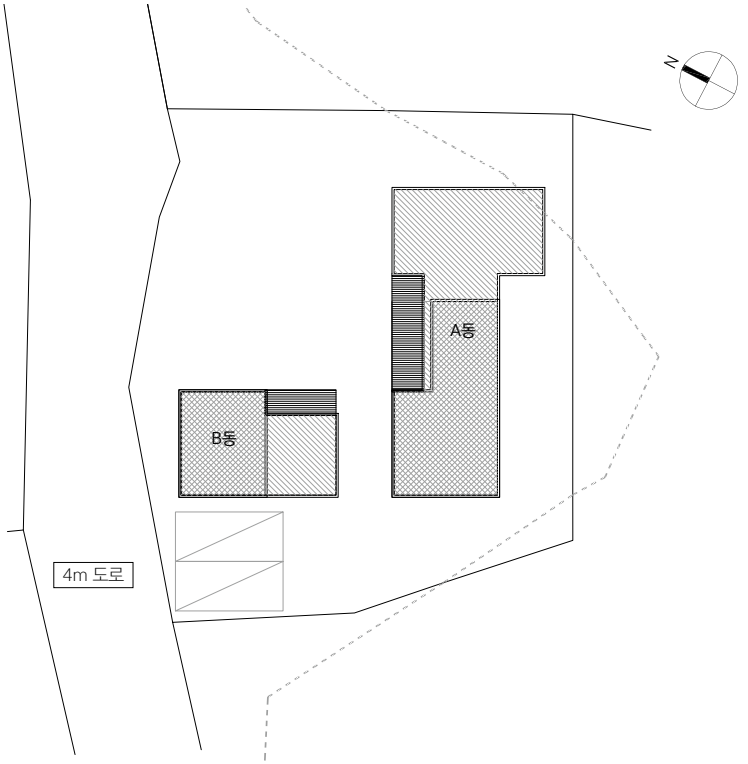
조용한 마을에 조용한 건축물이 되기를 바래본다. 단순한 매스덩어리를 기본으로 큰 선 없이 창에 대한 사이즈와 패턴으로 형태적인 정리를 마무리 하였다. 화이트라는 가장 단순한 색으로 녹색 및 제주돌들이 갖는 색들에 조용히 묻히기를 바란다.

생각5_기억

모든 공간은 주변을 바라 볼 수 있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공간에 있든 주변을 갖는 평안함은 항상 기억에 남기를 바란다. 도로 쪽으로 보이는 곳은 사람의 키를 넘은 가벽을 설치하여 침실공간의 사적 활동에 대한 배려를 하였고, 그 테라스에 있는 곳은 그들만의 하늘 공간이기를 원했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다보며 그들만의 꿈이 펼쳐지기를 바래본다.
각각의 테라스공간에서 느껴지는 오로지 그들만의 움직임으로 그들만의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이러한 개념이 모든 공간구성의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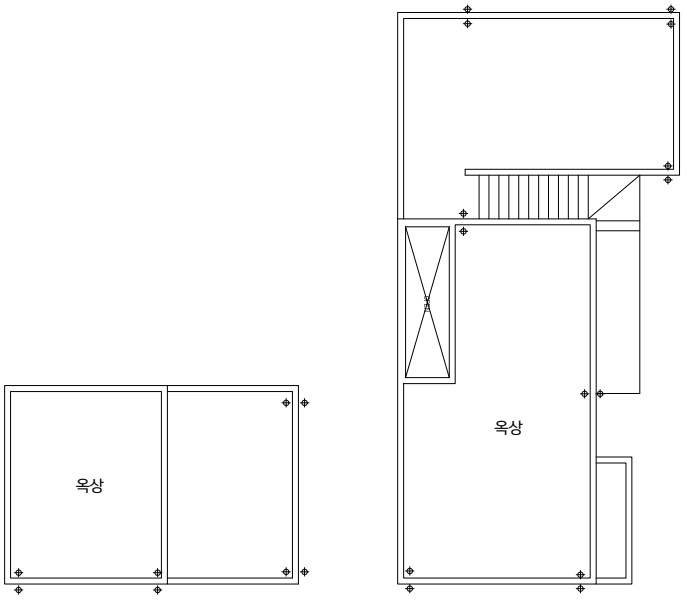
정리

모든 설계의 시작은 건축주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타지에서 내려와 제주라는 그리고 고산이라는 농촌마을에서 이들이 꾸려가야 할 그리고 꾸리고 싶은 이야기가 모든 설계의 시작이자 가장 큰 중점이다. 사진을 찍고, 가야금을 켜고……. 조용한 동네이지만 동네를 막지 않고, 항상 열려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그들만의 커뮤니티 방식 즉 그 커뮤니티 공간의 설정이 본 설계 방향이 가장 큰 시작이다. 그리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방식 모든 공간에서 그 풍경을 그 공간만의 방식으로 펼쳐 보고자 했던 의도가 가장 중심이 되는 설계의 시작이자 결론이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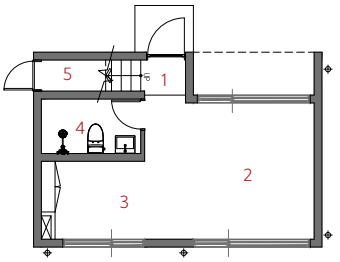
0 1 3 6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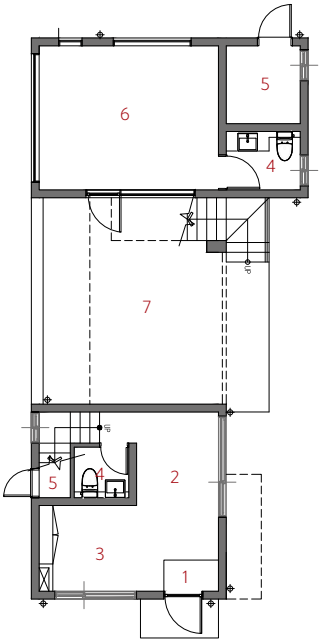


지붕 평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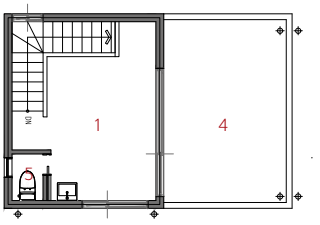
1. 현관
2. 거실
3. 주방
4. 화장실
5. 창고
6. 일반음식점
7. 필로티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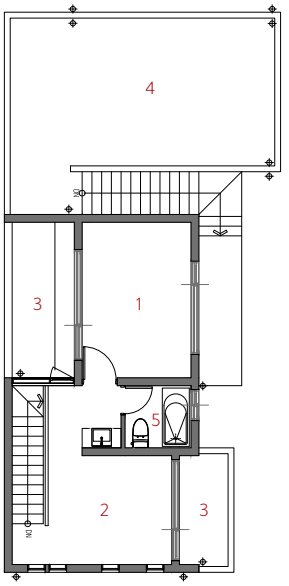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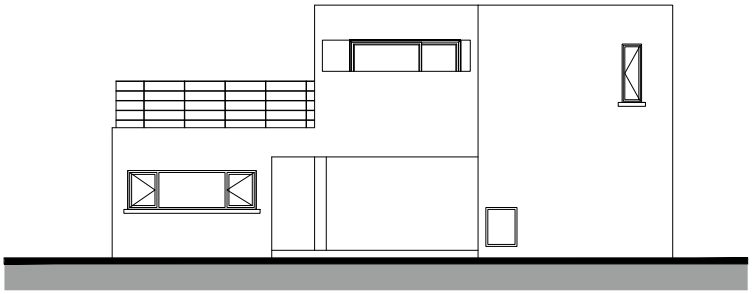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 방
2. 거실
3. 발코니
4. 옥상
5.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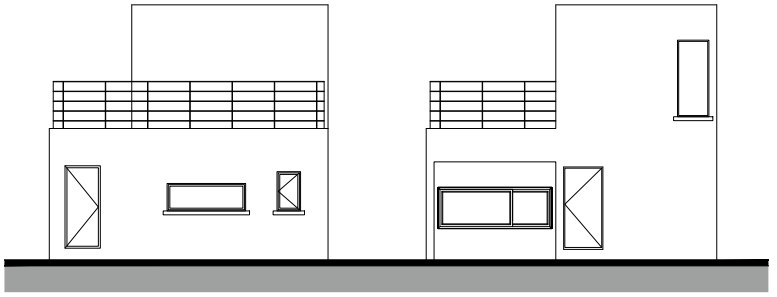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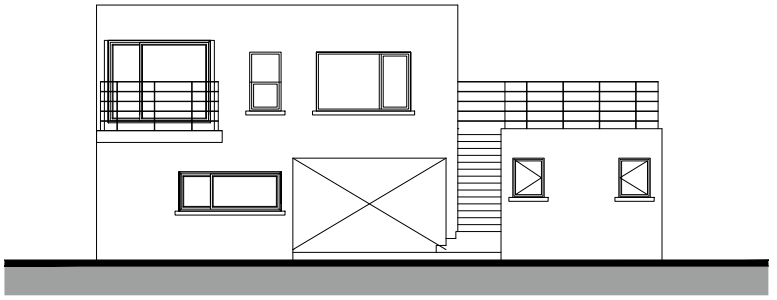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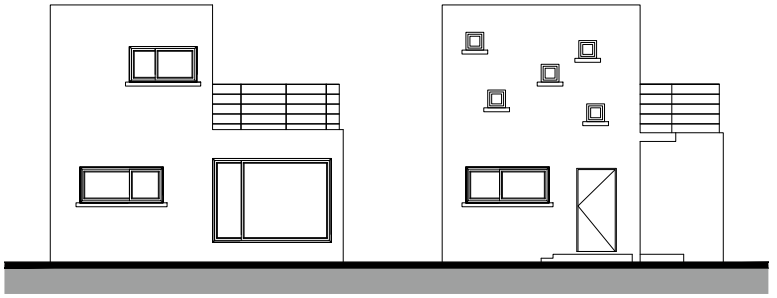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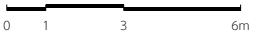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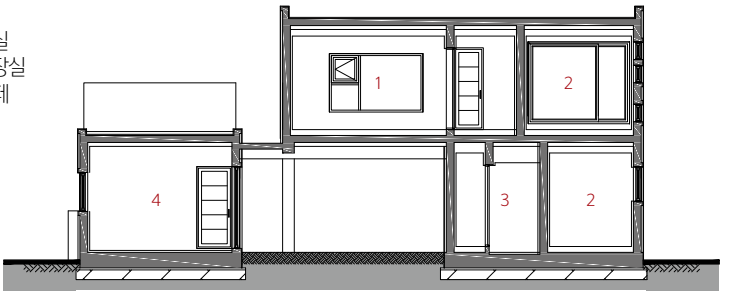
배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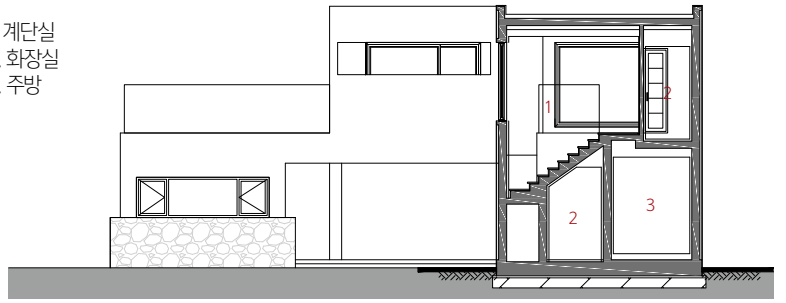


1. 방
2. 거실
3. 화장실
4.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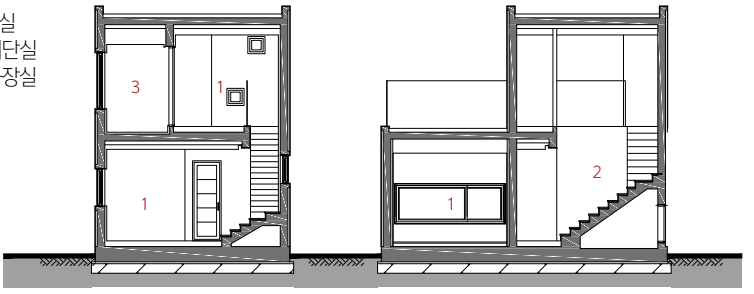
횡단면도1

1. 계단실
2. 화장실
3.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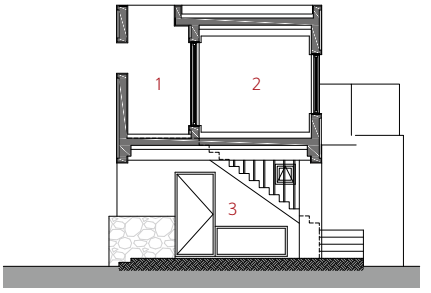
횡단면도2

1. 거실
2. 계단실
3. 화장실



종단면도1

1. 발코니
2. 방
3. 필로티



종단면도2

WEST
SKY

WEST SKY

율리 J씨 단독주택

Yul-ri J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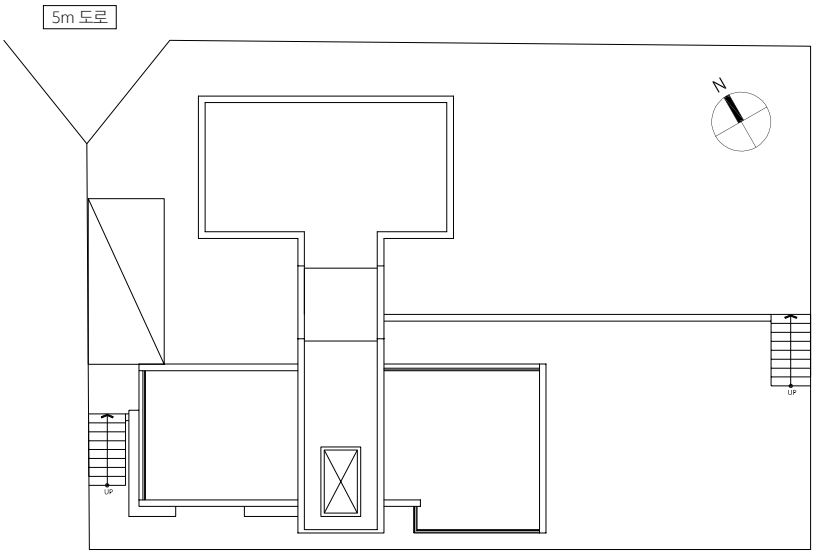
설계자 | **김정우**_KIRA | 티에스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이준영 팀장, 배광우 사원
- 전문기술협력
  - 기계설비분야 : (주)한진ENG
  - 전기분야 : (주)한진ENG
  - 소방분야 : (주)한진ENG
  - 유틸리티 : (주)한진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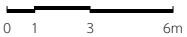
건축주 | **주혜정**
감리자 | **티에스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아주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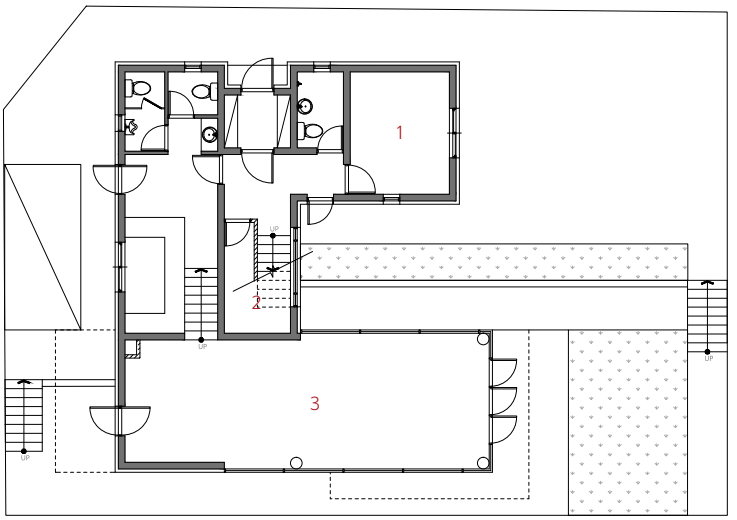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1468-13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330.30㎡
건축면적 | 113.23㎡
연면적 | 177.05㎡
건폐율 | 34.28%
용적률 | 53.60%
규모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스타코 (외단열)
- 내부 : 수성페인트, 고급벽지

설계기간 | 2015. 07~2015. 08
공사기간 | 2015. 08~2015. 12
사진 | 이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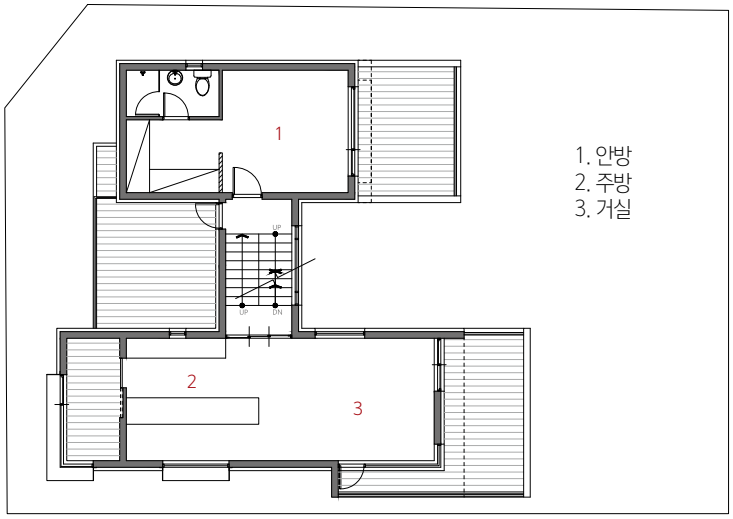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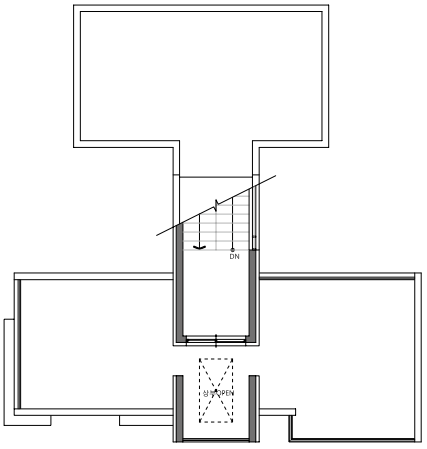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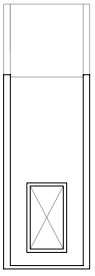
1. 침실
2. 창고
3. 작업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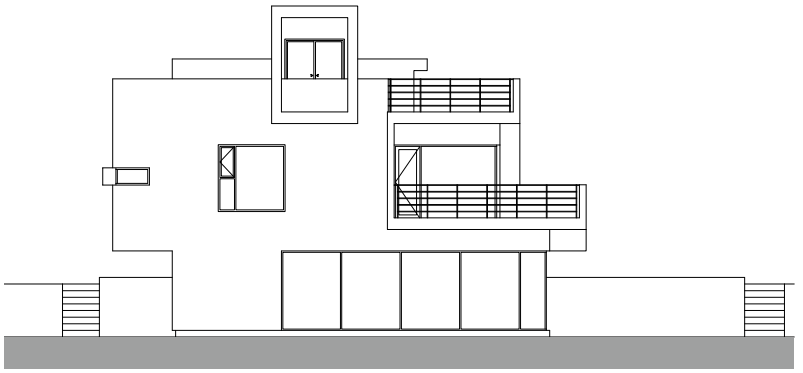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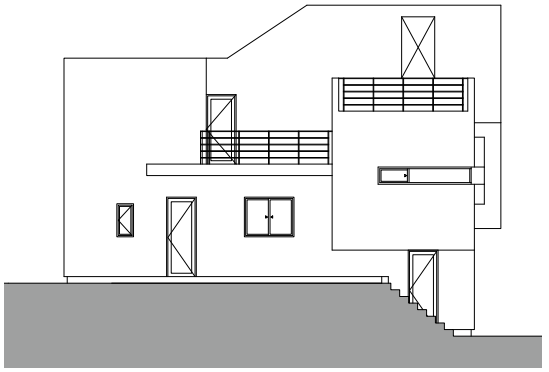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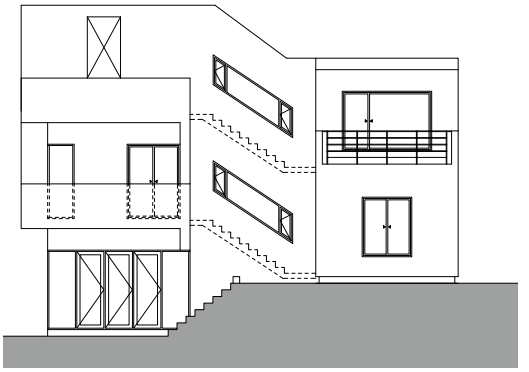
옥상·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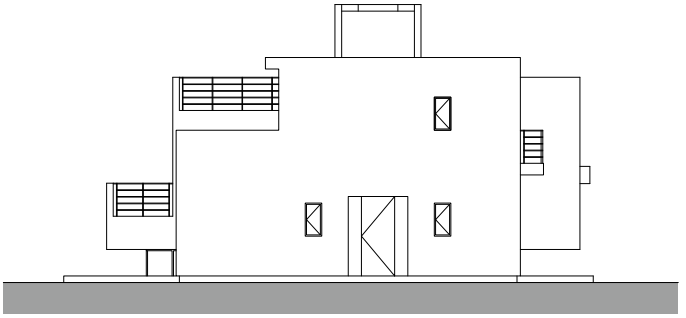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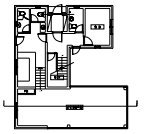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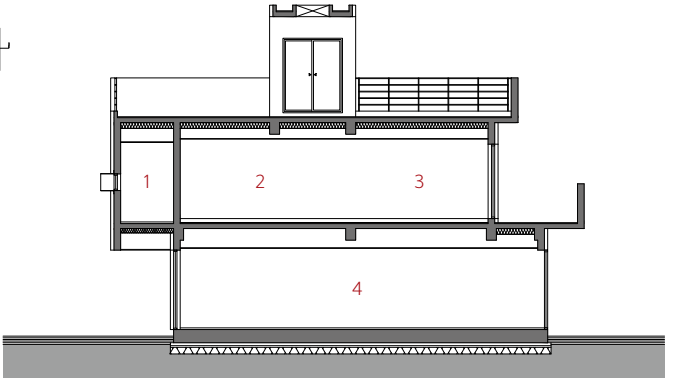


배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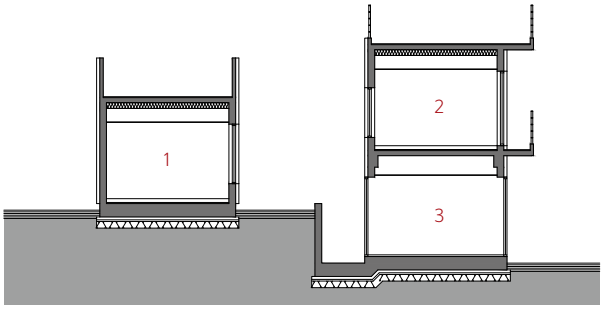


1. 다용도실
2. 주방
3. 거실
4. 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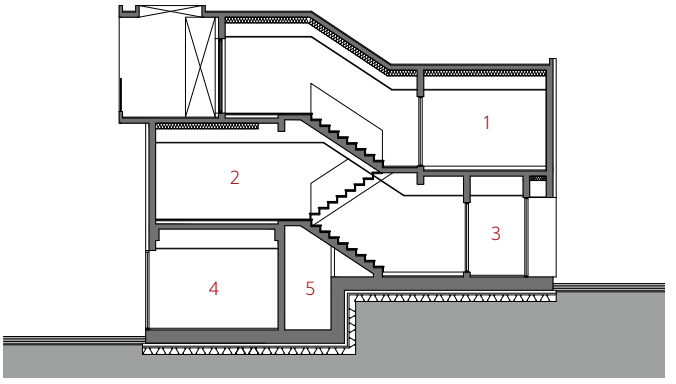
종단면도

1. 침실
2. 거실
3. 작업실



횡단면도1

1. 안방
2. 주방, 거실
3. 현관
4. 작업실
5. 보일러실



횡단면도2

설계소묘

율리 보금자리 주택단지에 있는 주택과 작업공간이 있는 주택이다. 이곳에는 과거의 건축적인 좋은 요소인 마을길이 존재하고 있었다.

보금자리 주택단지 경계 즉 City가 도시적인 것 즉 -The urban-(과거의 길)을 집어 삼키고 말았다. 과거의 길은 없어지고 택지개발로 인한 격자의 도로가 그어졌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건축적인 고민을 하였다. 하천변의 보행자 도로에 건물주의 작업공간을 배치하고 보행자도로와 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작업공간과 주거공간 사이에 완충공간인 중정을 만들었다. 그 중정이 주거기능과 작업 기능 사이에서 단아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정은 삶과 깊이 관련하여 내부 동선에서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하게 만들었다. 스킵플로어의 계단이 중정 한쪽 면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반 층을 사이에 두고서 작업공간, 아이들방, 거실·주방, 안방이 배치되어 있다. 공간 이동에서 항상 중정을 경험하게 된다. 양쪽부지에 경계에 공간을 마련하여 이웃집과 소통하게 만들고 하천면에 면한 보행자도로의 긴축과 그 블록을 더 풍부하게 할 것이다. 옆집과 소통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이러한 공간 배치는 전통건축의 수법인 선형과 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도시(City)에서 도시적인 것(The Urban)을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고 싶었다. 이제는 살 수 있는 공간에 삶의 이유와 이웃 간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보편적인 멋 짓기, 그 두 번째 이야기

Universal Design, the second story

글. 김성환_ Kim, Sunghwan
Benz und Ziegler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소한의 기능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능이 제공하는 수준과 비교하여,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물어보는 것이 초기 작업의 시작이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다시 말하면,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이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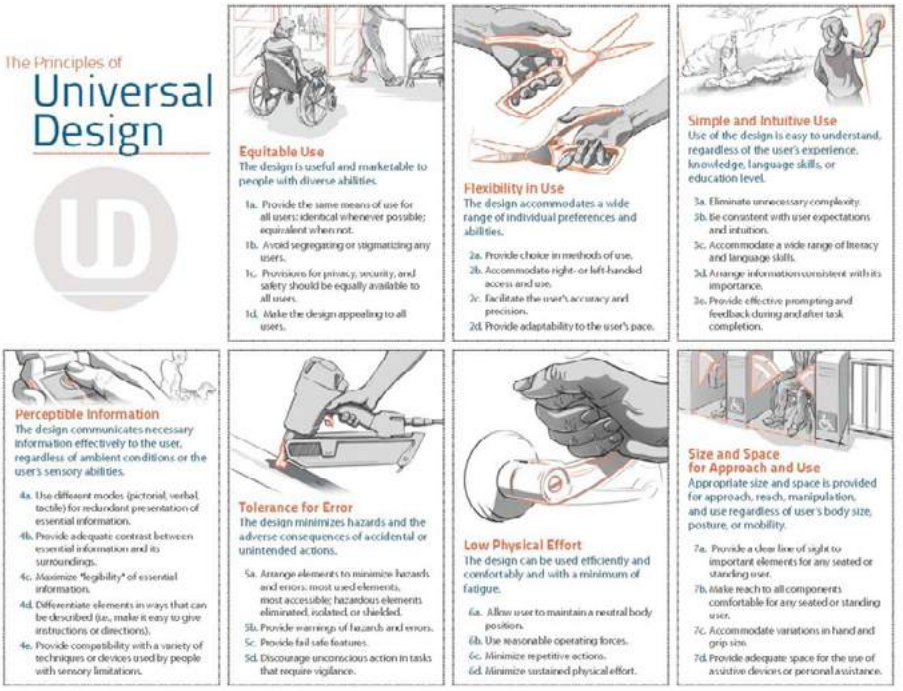


그림 1) Universal Design의 7원칙

그림 2) 2013년 IF Universal Design Award(Panasonic Lamp Design)
– 조도의 밝기를 이용목적과 환경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램프디자인.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중화되고 일률적인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규칙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다.

"누가 사용할 것인가?"

보통 사용자에 의해 정의되는 '보편적인 멋 짓기(Universal Design)'의 초점은 사실 사회의 소수 계층이나 소외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다. 이 생각은 모두가 각기 가지고 있는 일상 생활의 불편함에 집중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허벅지가 두꺼워' 혹은 '나는 너무 키가 커' 라는 자기표현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요즘 사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이 스키니 진을 입으려면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키가 큰 사람이 공간절약형 원룸에서 삶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문제 제기의 시작이다. 하지만 이 질문의 시작은 대중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가지는 삶이 과연 누군가에게 부정적으로 보여야 하는가에서 시작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림 3) 장애인을 위한 공간절약형 문(Raumspartuer, Kueffner) – 입구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실제 문 규격의 1/3 지점에 경첩을 추가적으로 달아 접이식으로 공간을 절약하고 장애우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사용의 편리를 제공한다.

는 외부의 충격에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풍습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기에 더욱이 만연한 모습이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왜 수요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공간이나 제품을 요구하지 못하고, 사회 트렌드에 맞춰 자신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가, 대량 생산체제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수요자 개개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으며, 또한 생산성과 연결된 이익이 보장되는 가에 대한 탐구이다. 개인의 수요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또한 다양한 시간과 공간의 조건 안에서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처음 이 생각이 화제로 떠오른 것은 일찍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대였다. 전쟁이 끝난 직후, 사람들은 각자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 전후 흔적이 남은 곳곳을 재건시켜야 했다. 그 이전, 대가족 형태의 가족농장이나 길드규모의 조직이 남아있는 곳이 사실상 많지 않았기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각 대학의 연구기관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과정에서 수요의 대상은 결국,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부상자들이었다. 이들이 일반 건물이나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제기된 것이 연구 과정의 큰 핵심이었다. 이후, 모든 공간과 제품이 분류가 되고 주제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연구 과정에서 더욱이 확장된 것은, 연구의 대상이었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살아온 노인, 갓 태어난 아기, 활동력이 강한 유아, 개개인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등 가족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양해진 개인성에 가치를 두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연구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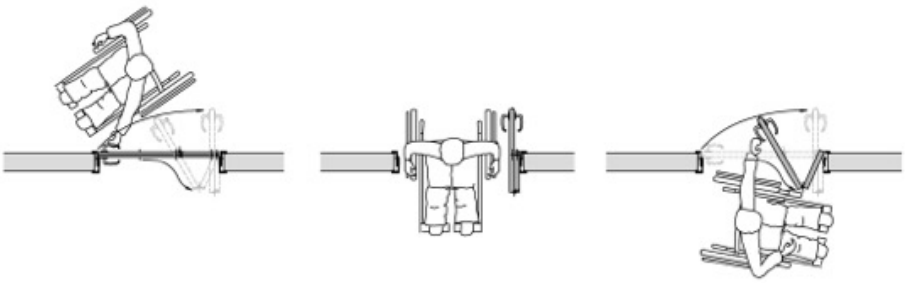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오랜 기간 다양한 물건을 사용해온 경험상, 보는 안목이 굉장히 높다. 또한, 그만큼 까다롭기에 안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나 제품에 대한 향

상은 필수적이다. 건강상의 문제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기에 집중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통계상 2020년 이후 독일 전체인구의 50%이상이 60세 이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가지는 전체 시장의 구매력은 약 3조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그들의 요구와 수요가 더욱이 연구대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985년, 연구의 깊이가 무르익어 갈 때 즈음, 그 동안의 기록들이 모든 이의 삶을 다채롭게 하고,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공통된 하나의 국제 기준 수치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이 수치들은 1997년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Ronald Mace교수에 의해 다음 7가지 원칙으로 분류되었다.

1. 합리적인 사용(Equitable Use)
2. 사용간의 유동성(Flexibility in Use)
3.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and Intuitive Use)
4. 지각할 수 있는 정보(Perceptible Information)
5. 오류에 대한 허용오차(Tolerance for Error)
6. 최저의 신체 활동(Low Physical Effort)
7.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이 7가지 조건은 다양한 규제, 디자인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아우르는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조건이 아닌, 모든 디자인의 방향과 계획이 가야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 리노베이션을 통한 마을재생의 실현

_ 돗토시 북카페 혼바코

Downtown Regeneration based on Building Renovation

_ Book Cafe Honbako, Tottori City

글. 송준환_ Song, Jun-hwan
야마구치국립대학 대학원이공계연구과 건축디자인공학분야 조교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일본의 지방 도시들은 2010년대에 들어 지역활성화 그리고 마을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현존하는 건축물 등의 지역 스톡(stock)을 재활용하되 적은 비용을 들여, 높은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인데, 키타규슈(北九州)시 코쿠라(小倉)에서 2011년경부터 처음으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란, 유휴(遊休)부동산을 활용(리노베이션)하고,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 등의 도시맞춤형 비즈니스를 통한 질 높은 고용창출과 산업진흥, 커뮤니티 재생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위한 툴로서, 「리노베이션 스쿨」이 전국의 지방 도시들을 옮겨 다니면서, 실시되고 있다. 본 활동에는 도쿄대학 마쓰무리 우이치(松村　秀一)교수와 애프터눈 소사이어티(アフタヌーンソサエティ) 대표 시미즈 요시츠구(清水義次)씨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 부동산의 융합의 시대적 상황에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 대학 교육이 신축 건축물의 계획에 필요한 교육에 편중되어 있는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존의 스톡을 어떻게 재활용(리노베이션)하고 관리/운영(매니지먼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교육수법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2010년 코쿠라에서의 활동을 계기로 하여, 전국적인 리노베이션 스쿨을 도입하게 되었다. 실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빈

그림 1) 혼바코 외부전경(좌) 및 1층 내부모습(우)

건물 및 점포를 리노베이션 스쿨의 대상 소재로 제공받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강생(20대~50대)이 3박4일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논하고 검토하여 이를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돗토리(鳥取)시에서도 2014년 11월 22일부터 3일에 걸쳐 제1회 리노베이션 스쿨을 개최하였고, 이번에 소개하는 북카페 혼바코 또한 본 스쿨에서의 제안을 바탕으로 사업화된 제1호 건물로서, 2015년 5월23일 오픈하였다.

■장소의 기억을 재생하다.

혼바코(ホンバコ)란, 일본어로 "책이 들어있는 상자"라는 의미로서, 「놓여있는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카페」라는 의미를 지니며, 「카페×서점」 또는 「카페×도서관」과 같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내에 책을 장식해두고, 각각의 상자에는 지역 주민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어, 그 이름이 상자 내의 책 주인으로서, 누구든 카페를 찾는 사람들은 상자 내의 책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각각의 상자의 주인의 가치관 또는 인생관, 그리고 흥미 등을 함께 공유하는 "마음의 상자"로서 지역 커뮤니티의 장이 되고 있다.

현재, 혼바코의 점장으로 있는 25세의 젊은 청년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자그마한 북카페가 실현되었는데, 본 장소는 돗토리 역에서 이어지는 와카사가도(若桜街道)라 불리는 메

인 스트리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다. 본 건물의 주인은 약 8년 전까지, 원두판매와 커피숍을 함께 운영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1층에는 특색 있는 형태의 플레임 칸막이가 남겨져 있다. 게다가, 건물 뒤편에는 약 3년 전까지 운영하던 서점이 존재했던 부지와 접해 있는데, 본 아이디어를 제안한 점장은 어린 시절 이 주변을 도서관과 같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2가지 장소의 기억을 살려, 「책과 카페」가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책"을 매개로 마을을 잇다.

혼바코를 제안한 점장은 "책"을 매개로 한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기 위해 크게 3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다양한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책들을 하나의 상자단위로 쌓아 둠으로써, 돗토리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다양한 생각을 함께 공유할

그림 2) 혼바코 2층 내부 모습

뿐만 아니라, 새로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둘째, 상자 주변에 각종 쪽지 등을 붙여, 서로의 감상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미리 읽은 사람들과 다음에 읽을 사람들이 서로 이어지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역 사람들의 생각들이 담겨있는 상자들을, 때로는 지역 내의 매력적인 레스토랑과 상점들로 옮기고, 이를 혼바코에서 "출장"이란 개념으로 공지하여, 그 책을 보기 위해 다른 가게에 찾아가게 되는 등, 책을 통해 지역 다양한 시설들과 연계하고, 전체적으로는 지역 활성화와 마을 재생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운영시간을 밤 11시(월/화/목) 또는 12시(금/토) 등, 늦은 시간까지 오픈함으로써, 늦은 시간에 갈 곳이 없는 일본 지방도시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건물주인과 연계하여 400엔의 커피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되, 이외에도 주류를 포함한 각종 음료를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혼바코가 향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유지되어 갈 것인가 또한 주요 이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운영일수가 평균 27일로, 매달 약60만 엔(하루 약3만5천 엔)의 매상을 올리고 있는 반면, 재고구입비 15만 엔/월, 임대료(약10평의 2층 건물) 10만 엔/월, 6명의 인건비(급여 및 교통비) 약25만 엔/월, 전기/가스/상하수도 약3만 엔/월, 소모품/통신료/잡비 약9만 엔/월의 지출비용이 평균적으로 들어, 실제로 오픈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합계 약40만 엔의 적자였으나, 전체 재고규모와 인건비를 줄여, 올해 2월부터는 약4만 엔/월 정도의 흑자로 돌아선 상태이다.
일본에서는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를 통해 조그마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리스크 부담을 줄이되,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건물을 재활용함으로써, 마을 전체의 재생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등의 일자리 창출에 까지 기여하고 있다.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게 운영 등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조그마한 움직임들이 모여 지역 커뮤니티증진, 지역애착심 향상, 지역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만한 사례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북카페 혼바코 HP, http://honbako-tottori.com/
2. 혼바코 점장 HP, http://ryokan1123.com/
3. 혼바코 점장 블로그, https://note.mu/ryokan1123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Architectural Odyssey : The Abys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글. 김홍기_ Kim, Hongki ·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재 목차

1. 마크 로스코와 로스코채플 /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2. 앙리 마티스와 로사리오성당 / 성미술 운동의 본질
3. 필립 존슨과 뉴욕현대미술관 /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배후
4. 롤프 펠바움과 비트라가구단지 / 현대건축의 실험실
5. 루이스 칸과 킴벨미술관 / 건축의 본질을 찾아서
6. 렌조 피아노와 메닐컬렉션 / 테크롤로지 미학의 배후
7.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펠릭스 누스바움 / 디아스포라의 유산
8. 샤우라거와 헤르조그 앤 드 뫼롱 / 물성과 표층의 미학
9. 마리오 보타와 장 팅겔리 미술관 /호모 루덴스의 미학
10. 호세 루이 세르트와 매그 파운데이션/ 낭만적 건축의 배후
11. 안도 다다오와 랑엔 파운데이션/ 페허 속에 피어난 예술공동체
12. 에빈 헤리히와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 / 자연과 건축의 공생
13. 렌조 피아노와 파울클레센터/ 공감각 예술과 건축
14. 요제프 호프만과 스토클레저택/ 총체예술의 원류

13

공감각 예술과 건축의 오마주

렌조 피아노와 파울 클레 센터

Renzo Piano and Zentrum Paul Klee

그림 1) 파울 클레 센터 전경

맑은 날이면 융프라우 정상이 아스라이 보이는 스위스 베른 시 동부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파울 클레 센터(Zentrum Paul Klee). 파울 클레의 묘지와도 그리 멀리 않은 곳에 위치한 이 미술관은 화가에 대한 건축적 '오마주(hommage)'로서, 작가의 정신을 표방하고 지형에 대한 탐구를 중시하는 렌조 피아노가 설계했다. 녹색의 풀밭 위로 솟아 오른 파도 형상의 매스는 하나의 '풍경 조각(Landscape Sculpture)'이 되어 대지 깊숙이 몸체를 숨기고 있다. 이곳이 미술관이 아닌 파울 클레 센터로 불리는 이유는 미술관에 덧붙여 콘서트홀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음악과 미술을 오고갔던 파울 클레를 기념하기 위한 설립자 모리스 뮐러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다. 모리스 뮐러가 건립 기금을 대고 렌조 피아노가 밑그림을 그린 파울 클레 센터, 그 위대한 탄생의 배후에는 파울 클레의 예술 세계를 후대에 전하려는 위대한 후원자의 지적 혜안이 담겨 있다 .

이탈리아가 배출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Maurizio Pollini)와 퐁피두 미술관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사 렌조 피아노(Renzo Piano)는 오랜 친구 사이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축구를 즐기면서 성장했다. 밀라노를 배경으로 성장한 두 사람은 모두 건축적 환경에서 자랐다. 한 사람은 건축사의 아들, 다른 한 사람은 건설업자의 아들로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예술적인 자질을 키워 나갔다. 그들이 서른을 넘길 무렵에는 한 사람은 음악 분야에서, 다른 한사람은 건축 분야에서 스타가 되었고,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콘서트홀에서 폴리니가 연주를 하는 등 그들의 친분은 연륜을 더할수록 깊어 갔다. 어느 날 폴리니에게 고관절 이상이 찾아오면서 연주 생활에 위기를 맞이하지만 스위스가 배출한 인공관절의 세계적 권위자 모리스 뮐러 박사(Maurice E. Müller)의 도움으로 정상을 되찾는다. 평소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던 모리스 뮐러와 폴리니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고, 폴리니의 소개로 렌조 피아노와 모리스 뮐러 사이에도 교분이 싹튼다. 정형외과 의사와 건축사, 음악가 사이에 형성된 우정은 2005년 6월 완공된 파울 클레 센터에서 하모니가 되어 장엄하게 울려 퍼진다.

그림 2) 베른 외곽에 위치한 파울 클레 센터

그림 3) 파울 클레 센터의 후면, 미술관 몸체가 지중에 묻혀 있다.

파울 클레 연대기, 음악과 미술의 질곡에서

평생 독일 국적으로 살다 간 파울 클레는 음악 교사로 활동하던 독일 태생의 한스 클레와 성악을 공부한 스위스 국적의 이다 프리크 사이에서 1879년 12월 18일 태어났다. 베른에서 북서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마을 뮌헨브흐제에서 출생하지만 한 살 무렵 가족을 따라 베른으로 옮겨 간다. 일곱 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 열한 살 무렵 베른 관현악단의 특별 연주자로 선발될 정도로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갖고 있었던 그가 정작 고등학교 졸업 후 택한 전공은 미술이었다. 음악의 한복판에서 자랐던 그가 화가의 길을 택한 이유는 음악보다는 미술에서 창조의 열망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신했기 때문으로, 그의 눈에 비친 음악은 이미 정점을 넘어 퇴보의 터널로 들어선 것처럼 보였다.
평생의 과업으로 택한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는 파리로 갈 것인지 독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감성적 기질로 보아 독일이 더 피부에 와 닿은 그는 1900년 10월 뮌헨 대학의 프란츠 폰 슈톡(Franz von Stuck)이 가르치는 회화반에 입학했다. 1900년 무렵 예술의 도시 뮌헨의 명성은 파리 다음이었다. 최신 예술 경향이 이곳에서 전성을 이루었다. 아카데미의 틀에 박힌 형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분리파 운동이 점화된 이후, 칸딘스키를 중심으로 새로운 진로를 표방하던 예술가들이 모여들던 아방가르드의 도시였다.

뮌헨 예술계가 극심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클레의 미술 행보는 더뎠다. 슈바빙에서 조용히 생활하던 시절 칸딘스키가 이웃에 살았음에도 그를 알지 못했고, 드로잉 화가이자 삽화가인 자크 에른스트 존트로게(Jacques Ernst Sonderegger)를 1905년 무렵 만나고 나서야 에드바르 뭉크와 툴루즈 로트렉 같은 화가를 알게 되었을 정도로 회화의 흐름에 대해 어두웠다. 음악에 심취했던 긴 시간과 음악을 중요하게 여긴 집안 분위기가 화가로서의 성

그림 4) 파울 클레의 가족(1906), 음악교사였던 아버지 한스 클레와 성악을 전공한 릴리 클레, 오른쪽이 파울 클레

그림 5) 파울 클레가 1915년 완성한 <떠오르는 달>. 1914년 떠난 튀니지 여행에서 색과 빛을 재발견한다.

장을 더디게 했던 동인이지만 예술가가 확고한 세계관을 구축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활동 반경이 커진 시기는 아우구스트 마케(August Macke)와 바실리 칸딘스키, 프란츠 마르크를 만나는 1911년 하반기로, 이때 이들은 연감 『청기사(Blue Rider)』를 준비하고 있었다. 칸딘스키가 좋아했던 청색과 마르크가 좋아한 모티프 '말 탄 기사'를 합친 이름이 시사하듯이 청기사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적 미술가들의 모임으로, 그 해 12월에 뮌헨 탄호이저 갤러리에서 청기사파 첫 전시회가 열렸고, 이들과 소통한 클레는 1912년에 개최된 제2회 청기사파 전시회에 17점의 작품을 출품한다. 청기사파는 다른 나라 화가들과도 교류를 장려했다. 이 전시회를 통해 큐비즘을 개척한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 러시아 절대주의를 리드하게 될 카지미르 말레비치와도 상면한다. 프랑스 화가로는 로베르 들로네는 적극적으로 청기사파 활동에 참여했고, 1912년에는 칸딘스키와 클레를 비롯한 청기사파 화가들은 들로네를 찾아 파리를 방문한다. 누구보다도 앞선 추상 작업을 하고 있었던 오르피즘의 화가 들로네의 작업실을 찾은 클레는 율동적인 리듬이 강조된 들로네의 대담한 색채와 형태의 사용에 커다란 자극을 받는다.

들로네를 만나면서 그의 작품 세계는 결정적으로 변했다. 색채와 형태의 결합 방법을 터득했고 색의 율동과 대조를 이용할 줄 알았다. 1914년의 튀니지 여행은 그의 화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북아프리카의 이국적인 자연이 발산하는 빛나는 색채에 매혹된 그는 "색채가 나를 소유했다. 색채와 나는 하나가 됐다"고 선언했을 정도로 독자적인 세계로 그를 안내한다. 그는 이때부터 색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자연현

상에 대한 묘사로부터 보이지 않는 이면을 바라보는 추상의 세계로 침잠할 수 있었다. 바이올린을 집어던지고 색채 속에 음악적 하모니를 재현하고자 했다. 네모꼴의 색채 블록을 병치해 구축한 시각적 이미지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음표가 됐다. 그는 1920년대 대부분을 바우하우스에서 보낸다. 바우하우스는 1919년 4월에 건축사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의 주도 아래 바이마르에 세워진 조형예술학교로, 그로피우스는 교수진을 구축하기 위해 뮌헨에서 활동 중인 클레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낸다.

"예산이 확보되어 교수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업실과 1만6천5백 마르크의 봉급이 제공됩니다. 오실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발터 그로피우스, 바이마르 바우하우스, 1920년 10월 29일)"

바우하우스의 교수가 된 클레는 1921년부터 10년 동안 후진 양성에 힘쓴다. 파울 클레와 바실리 칸딘스키, 요셉 앨버스, 오스카 슐렘머, 요하네스 이텐과 같은 순수 미술가들이 조형 마이스터로 불리며 색채와 재료 표현을 비롯한 조형교육을 담당했다. 처음으로 넓은 스튜디오를 갖게 된 클레는 칸딘스키와 함께 어울리며 그의 일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간을 보내게 된다.
바우하우스 시절 클레가 관심은 음악의 대위법 같은 다성적 회화였다. 대위법은 바흐나 모차르트 같은 작곡가들의 음악에서 흔히 발견되는 기법으로 여러 개의 선율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적으로 결합되는 구성을 의미하는데, 클레가 1920년대 후반부터 시도한 투명한 색채의 면들을 여러 겹 겹쳐 회화적 깊이와 색채의 상호 작용을 조정한 작품들은 음악적 대위법을 적용한 것이었다. 기호와 상징, 달과 같은 둥근 얼굴의 인간 형상들은 이 시기에 나타난다.

그림 6) 파울 클레와 칸딘스키,
바우하우스 마이스터하우스, 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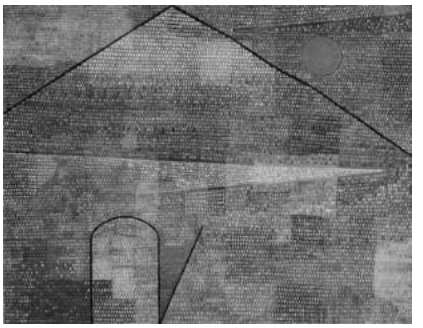


그림 7) 파울 클레, 파르나소스 산에서, 1932

1928년 한네스 마이어가 교장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바우하우스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클레는 1931년 바우하우스를 떠나 뒤셀도르프 미술 아카데미로 자리를 옮기지만 나치 정권에 의해 1933년 무기한 해고당한다. 히틀러가 독일제국의 총통으로 임명되자 독일의 정치적 변화를 불안스럽게 지켜봐야만 했던 그는 유대인으로 몰리는 운명을 맛봐야 했다. 국가사회주의 기관지인 『붉은 땅』에는 뒤셀도르프 아카데미가 유대인 예술가들의 영토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바우하우스 교수로 이름을 떨치던 파울 클레도 그중 한 명이며, 자신이 순수한 아리안 혈통인 것처럼 강조하지만 실은 갈리시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치는 추상미술을 퇴폐예술로 치부하고 탄압의 손길을 뻗어 왔다. 독일에서 열린 퇴폐 미술전에서 클레의 작품은 정신병 환자들의 작품에 비유되었다.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낙인찍힌 그는 더 이상 독일에 머물 수 없었다. 클레는 54번째 생일을 앞둔 1933년 12월, 아내 릴리와 함께 고향 베른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스위스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가 좋을 리 없었다. 독일에서 그의 이름이 퇴폐 예술가 명단에 올라있듯이 스위스에도 그의 작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보수적인 스위스에서도 모더니즘의 추상미술은 좌파적 정치의 맥락으로 해석되었고, 파울 클레와 장 아르프(Jean Arp) 같은 전위적 미술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거셌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더니즘 미술을 지지했던 시절이었다. 그런 탓에 1934년에 귀화 신청을 하지만 거절되었고 5년을 더 기다려야만 한다는 대답을 듣는다. 클레가 스위스에 머문 지 5년째 접어들던 1939년 마침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만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여전히 그의 작품에 대한 예술적 해석이 큰 장애물이었다. 1940년 7월에야 클레의 시민권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나왔다. 7월 5일 최종 투표를 거쳐 베른의 시의회에서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비켜갔다. 1936년부터 이유도 모른 채 피부가 딱딱해지고 세포막이 건조해지는 피부경화증(scleroderma)이 나타났고, 증세가 심해지자 1940년 5월 티치노로 치료를 위해 요양을 떠났다. 병세가 악화되자 6월 8일 로카르노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곳에서 6월 29일 사망했다. 시민권 취득 서류를 제출하면서 끝 문장에 써넣었던 “이 도시의 시민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클레의 시신은 루가노에서 화장된 후 7월 4일에 장례식이 치러졌고, 베른과 뉴욕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대규모 전시회가 열렸다. 그의 유골은 아내 릴리가 죽은 1946년이 돼서야 베른의 쇼스할덴 묘지로 옮겨졌다.

파울 클레 센터의 건립 배후

클레가 평생 그린 작품은 무려 1만여 점에 이른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안 것일까? 병에 걸린 후에 오히려 작품 활동은 왕성해진다. 1937년에는 264점을, 1938년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489점을, 죽기 1년 전인 1939년에는 무려 1,254점을 그린다. 한 해 동안 그린 작품 수로 따지면 클레의 작품 수를 넘는 작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가 사망하자 그가 남긴 작품들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의 관리 아래에 있게 되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분산의 위기에 처한다. 파울 클레의 국적이 독일이었기에 워싱턴 조약에 의거해 독일이 재산 처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클레의 미망인 릴리가 죽기 이틀 전인 1946년 9월 20월 파울 클레의 전체 작품과 출판 권한, 그리고 소장 도서를 망라한 클레의 재산 전체가 처분될 위기에 놓인다. 이 때 클레협회 회장인 베른의 사업가 헤르만 루프와 출판업자 메이어를 중심으로 파울 클레 재단이 결성되었고, 파울 클레의 작품은 베른의 현대미술관에 보관되다가 1948년 소련 감옥에 투옥됐던 클레의 아들 펠릭스가 귀국하면서 클레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유족에게 돌아간다. 파울 클레의 작품이 팔려나가 전 세계에 흩어지기 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림 8) 1938년 베른 키스틀러백에 위치한 클레의 화실 모습 (베른으로 돌아 온 후기 작품은 상형문자를 연상시킨다)

1907년에 태어난 펠릭스 클레(Felix Klee)는 아버지 파울 클레가 바우하우스 교수로 임명되자 열네 살의 나이에 최연소 학생으로 바우하우스에 입학한다. 바우하우스에서 오스카 슐레머(Oskar Schlemmer)의 영향을 받아 무대미술을 배운 그는 무대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성악가와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었다. 1970년 발터 그로피우스에 이어 바우하우스 교장을 역임한 한네스 마이어(Hannes Meyer)의 딸 리비아 마이어(Livia Meyer)와 재혼한 펠릭스는 1990년에 사망하는데, 이때 미망인 리비아에게는 650작품이, 아들 알렉산더 클레(Alexander Klee)에게는 800작품이 각각 상속된다. 유산을 물려받은 리비아와 알렉산더는 1997년 클레 미술관 설립을 제안했고, 10년 후인 2006년 말까지 파울 클레의 미술관을 현실화시킨다는 조건으로 상속 작품 모두를 베른 시에 기증한다.

베른 시는 미술관 건립 부지 물색에 나섰다. 1차로 거론된 장소는 베른 시립미술관 건너편 초등학교 부지. 클레가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인데다 기존 미술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정형외과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모리스 뮐러 박사와 그의 부인 마사 밀러(Martha Müller)가 미술관 건립비용과 부지를 내놓겠다고 제안하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그들은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미술관을 바젤 외곽 쇤그륀에 건립할 것, 둘째는 전통적인 미술관보다는 미술과 음악을 아우르는 문화센터로 건립할 것, 렌조 피아노에게 설계를 맡길 것, 콘서트홀 개관 기념 연주자를 마우리치오 폴리니로 할 것 등 부수적인 조건을 덧붙였다. 건축사로 렌조 피아노를 지명한 것에 대해 베른 시의 반발은 거의 없었다. 렌조 피아노는 이미 미술관 건축 분야에서는 검증된 장인이었다. 바젤 인근 리엔에 위치한 바이엘러 미술관(Beyeler Foundation Museum)을 통해 렌조 피아노의 미술관 건축의 우수성을 뮐러와 베른의 시민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리스 뮐러는 4천7백만 프랑을, 또 다른 기부자가 2천5백만 프랑을 건립 기금으로 내놨고, 국가 복권기금에서 1천4백만 프랑이 조달되면서 파울 클레 센터의 실체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위대한 후원자 모리스 뮐러

2008년 5월 10일, 91살의 나이로 모리스 뮐러가 사망했을 때, 그를 애도하는 기사 속에 등장하는 직함은 매우 다양했다. 의과대학 교수, 기업가, 파울 클레 센터의 설립자, 미술 후원자 등으로 불렸지만 그의 본업은 정형외과 의사였다. 인공 고관절 수술의 혁신을 일으킨 의학자로, 국제 정형외과 및 외상학회인 SICOT가 '세기의 정형외과 의사(Orthopaedic

Surgeon of the Century)'라는 타이틀을 수여했을 정도로 그가 정형외과 분야에 남긴 업적은 지대한 것이었다.

힙 조인트(hip joint)로 불리는 고관절은 상체의 골반과 하체를 연결하여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관절로 이 부분의 연골이 마모되거나 외상으로 골절될 경우 심각한 통증과 장애에 빠져 정상 생활이 힘들게 된다. 1950년대 후반까지 효율적인 시술 방법이 없어 애를 먹던 분야였으나 1960년대 초반 인공관절을 몸에 삽입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영국의 존 챈리(John Charnley)와 스위스의 모리스 뮐러에 의해 개발되면서 정형외과 분야의 일대 혁신을 일으킨다. 존 챈리가 고안한 방법은 챈리 스탬(Charnley Stem), 뮐러가 고안한 방법은 스트레이트 스탬(Straight Stem)으로 불리며 전 세계 고관절 환자들은 햇빛을 보게 됐다. 뮐러가 개발한 방식으로 치환 시술을 받은 사람만도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도 속해 있었다. 인공관절 기구를 생산하는 의료 회사들이 뮐러의 기법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로열티를 받게 됐고, 1967년에는 뮐러 자신이 프로텍 AG(Protek AG)사를 설립해 기업가로서 성장했다. 엄청난 이익금이 축적되자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했다. 1998년에는 파울 클레의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모리스 앤드 마사 뮐러 파운데이션(Maurice and Martha Müller Foundation)을 설립했다. 재단 명칭은 자신과 부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모리스 뮐러는 재단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아내 마사의 도움이 컸다고 말한다. 음악과 미술, 건축에 열정적인 관심을 지녔던 아내 마사는 재단의 기금을 문화예술사업 쪽으로 유도했

그림 9) 렌조 피아노와 파울 클레센터의 설립자 모리스 뮐러 부부, 2004년

고 파울 클레 센터로 결실을 맺기에 이른다. 정형외과 의사였지만 뮐러는 예술가들과 많은 교류를 나누었다. 이탈리아가 배출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고관절을 치료해 주면서 친구가 되었고 그를 통해 렌조 피아노를 소개받게 된다.

땅의 형상에서 건축이 나오다.

1998년 미술관이 들어설 베른 외곽 쇤그륀(Schöngrün)을 찾은 렌조 피아노는 설계의 단초를 찾기 위해 땅의 속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근처에 모리스 뮐러의 집이 위치해 있었고, 미술관 신축 부지에서 불과 90미터 떨어진 곳에는 클레의 묘가 있었다. 화가가 남긴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장소로서는 적격이었다. 부지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 있어 소음이 있지만,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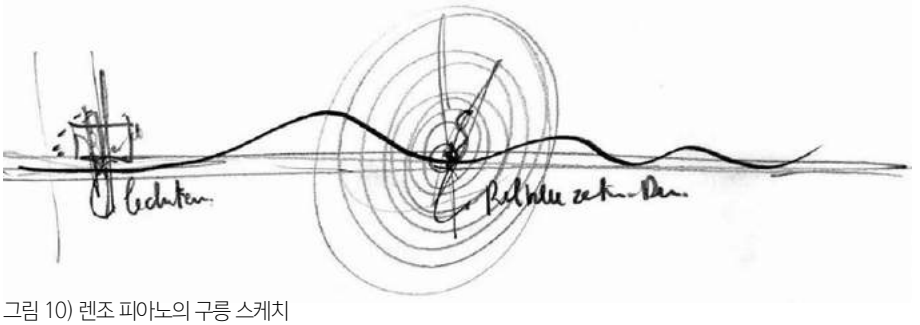


그림 10) 렌조 피아노의 구릉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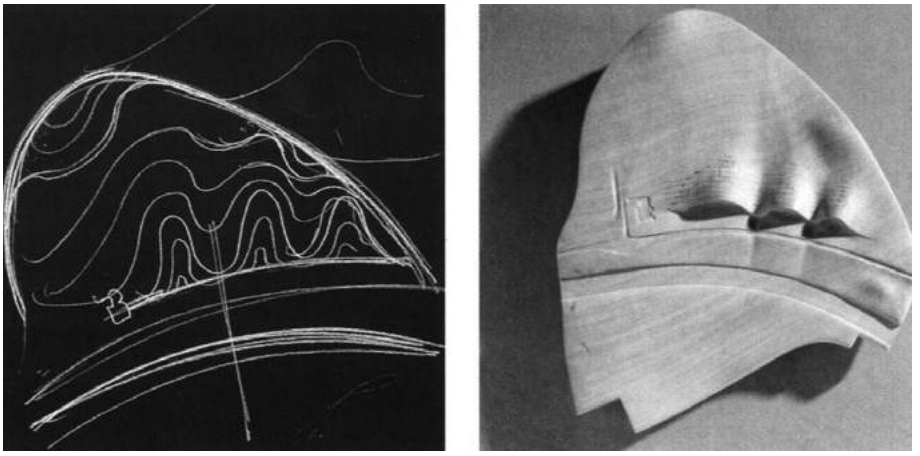


그림 11) 등고선을 이용해 지형학적 접근을 시도한 렌조 피아노의 스케치와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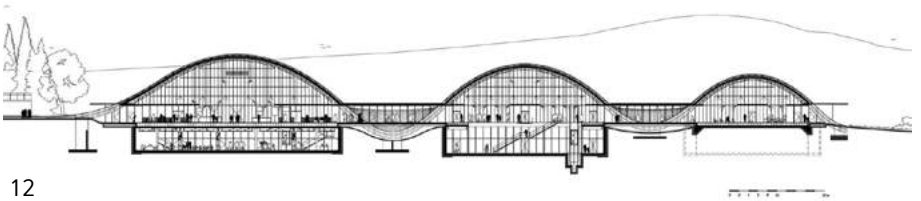
프스 산에서 뻗어 나온 낮은 구릉이 녹색의 섬처럼 머문 자연과 침묵이 공존하는 장소였다. 침묵은 자연을 중시한 클레의 작품과 부합하는 어휘였다. 대지를 처음 본 순간 건축사는 일상적인 건물로는 파울 클레라는 화가의 작품 세계를 담을 수 없다는 생각에 머문다. 파울 클레의 정신이 침잠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에 휩싸인 건축사는 순간 쇤그륀의 드넓은 미술관 부지에서 세 개의 완만한 구릉이 존재함을 발견한다. 클레의 그림에 나타나는 음악적 율동감과 닮았다는 생각에 스치자 세 개의 구릉을 건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한다. 지형학적 접근, 즉 건물과 지면 사이에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환경 조각인가 건축인가?

베른 근교의 들판 위에 물결 파동 모양의 건물이 솟아 오른 모습은 마치 어느 대지 미술 작가의 환경 조각 작품을 연상시킨다. 철골로 구성된 건축물의 지붕 굴곡은 마치 언덕의 구릉과 흡사하고 구릉 내부에는 드넓은 전시실과 콘서트홀, 이벤트실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존재한다. 높낮이가 다른 세 개의 구릉 중에서 가운데 구릉이 미술관으로 파울 클레가 남긴 수채화와 드로잉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4천여 점의 파울 클레 컬렉션 중에서 2백여 점만이 정기적으로 교체되며 전시되고, 지하에 위치한 기획전시장에서는 특별전이 연 4회 정도 개최된다. 왼쪽 구릉에는 붉은색으로 마감된 매혹적인 3백 석의 공연장과 어린이 미술관이 위치해 있어, 상주 단체인 '파울 클레 앙상블'의 연 4회 정기 공연이 이루어지고, 국내외 유명 연주자의 초청 공연도 개최된다. 이처럼 미술관을 콘서트홀과 결합시킨 것은 음악과 미술을 오고간 클레를 기념한 것으로, 공연장 맞은편에는 4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미술관 크리비바(Kindermuseum Creaviva)'가 있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구릉은 관리 기능으로 업무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세 개의 구릉 속에 복합적인 기능들이 세팅되어 있지만 각각의 기능들은 '뮤지엄 스트리트(Museum Street)'로 불리는 150미터 길이의 복도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세 개의 구릉을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뮤지엄 스트리트 주변에는 리셉션 공간과 인포메이션 센터, 아트 숍이 위치해 있어 휴식과 정보검색 공간으로 활용된다. 고속도로에 면한 서측 파사드는 개방적인 반면, 후면은 땅속에 묻혀 있어 폐쇄적이다. 채광은 전면 유리로 처리된 150미터 길이의 서쪽 파사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파울 클레센터의 미술관은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다른 미술관과는 달리 천창으로부터 빛이 전혀 유입되지 않는다. 바이엘러 파운데이

션처럼 유리 지붕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이고 싶었을 것이나, 보다 중요한 것은 작품의 보존 환경이었다. 파울 클레의 작품 상당수는 수채화이다. 수채화 전시에 적합한 빛의 허용량은 50~100럭스에 불과하다. 바이엘러 미술관이 240럭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어두운 분위기다. 지붕으로부터의 빛의 유입은 결국 포기된다.



12

13

14

15

그림 12) 파울 클레 센터의 횡단면도 (남북측)
그림 13) 파울 클레 센터 로비
그림 14) 파울 클레 센터의 미술관 진입로
그림 15) 파울 클레 센터 전시장 내부

미술과 음악, 건축의 내연

파울 클레 센터의 역동적인 건축 형태는 파울 클레의 작품세계와 그의 작품에서 표출되는 음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움직임은 클레의 작품 세계의 근간이었고 조형적 창작의 원천이었다. 클레가 '음악적 구조물을 조형적인 것으로 번안'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는 지인에게 파울 클레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써 보낸다.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도, 나는 그의 드로잉이 음악을 옮겨 적은 것이라고 추정했을 겁니다." 7세 때부터 바이올린 교습을 받은 파울 클레는 솔리스트로 활동할 정도로 프로급 연주자였다. 1906년에 결혼한 부인 릴리 슈툼프(Lily Stumpf)도 피아니스트였다. 이들 부부는 곧잘 바흐나 모차르트, 베토벤의 만년작인 소나타 등을 듣고 또 연주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음악이 클레의 그림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라든지 클레의 그림을 들여다보면 음악이 들리는 듯하다는 표현은 음악과 미술이 한 몸이었기 때문이다.

파울 클레가 1929년에 완성한 '고속도로와 샛길들(Highway and Byways)'이라는 작품은 '지형학적(topological)'인 속성을 시각적으로 번안한 걸작으로, 화면 한가운데는 평평하게 잘 닦인 대로가 곧게 나있다.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좁아지는 이 길은 잘 정비된 고속도로와 같은 인상을 준다. 이에 비해 대로 주변의 작은 샛길들은 비뚤비뚤하고 크기도 제각각이다. 넓다가도 좁아지고 규칙적인 듯하다가도 다른 길을 만나면서 또 다른 길로 빠져버리기도 한다. 가운데에 있는 대로가 인간의 손길이 닿아 잘 정돈된 반면 주변의 샛길들은 다

그림 16) 파울 클레가 1929년에 완성한 '고속도로와 샛길들' (Highway and Byways)

그림 17) 지형학적인 구릉과 순응하는 파울 클레 센터 측면

듬어지지 않은 구릉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 그림은 파울 클레 센터가 입지한 지형적 조건과 매우 닮았다는 생각이다. 미술관 앞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와 주변에 작은 구릉과 소로들을 그림 속에서도 엿볼 수 있기 때문으로 파울 클레 센터는 클레가 좋아했던 음악에 대한 변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필로그

1998년 베른 시 동쪽 자락 쇤그륀에 파울 클레 센터 건립을 결정한 후, 9년 만에 미술관이 개관된다. 렌조 피아노는 2005년 6월 20일 미술관이 대중들에게 공개되기에 앞서 이렇게 말한다. "이곳에는 파울 클레의 또 다른 내적 음성이 존재합니다. 시적인 삶을 살다간 파울 클레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연은 항상 그의 작품 속에 있습니다. 새소리, 나무, 달, 해, 색채, 북아프리카 등등……. 이 사이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길 바랍니다. 디자인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클레 미술관이 전원에 위치한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입니다."

개관하던 날, 갤러리에서는 파울 클레의 전시회가 열렸고, 콘서트홀에서는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개관 기념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생존하는 피아니스트 가운데 쇼팽의 피아노곡을 가장 완벽하게 연주하는 연주자로 평가되는 마우리치오 폴리니와 건축물을 설계한 렌조 피아노, 그리고 건립 기금을 댄 모리스 뮐러와 마사 뮐러 부부 모두가 이날의 주인공이었다. 땅에서 솟아오른 유려한 곡선의 스틸 프레임은 화려한 피아노의 선율이자 파울 클레의 그림에 내재된 음악적 율동처럼 느껴졌다. 미술과 음악이 공존하는 공간, 자연과 건축이 합주하는 침묵의 공간을 보기 위해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파울 클레 센터에서 구현된 대지와 건물 간의 하모니는 지붕에 구릉을 만들어 식물들을 식재한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2008년 완공)에서 다시 한 번 재현된다.

파울 클레 센터 가기

베른 중앙역에서 'Zentrum Paul Klee'로 향하는 12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리면 파울 클레 센터 북측 입구와 만난다.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 중앙역에서 10번 버스를 타고 쇼스할덴(Schosshalden) 묘역에서 내려 도보로 15분 정도 걸어도 북측 입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울 클레의 묘를 거쳐 미술관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관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 입장료는 24 스위스 프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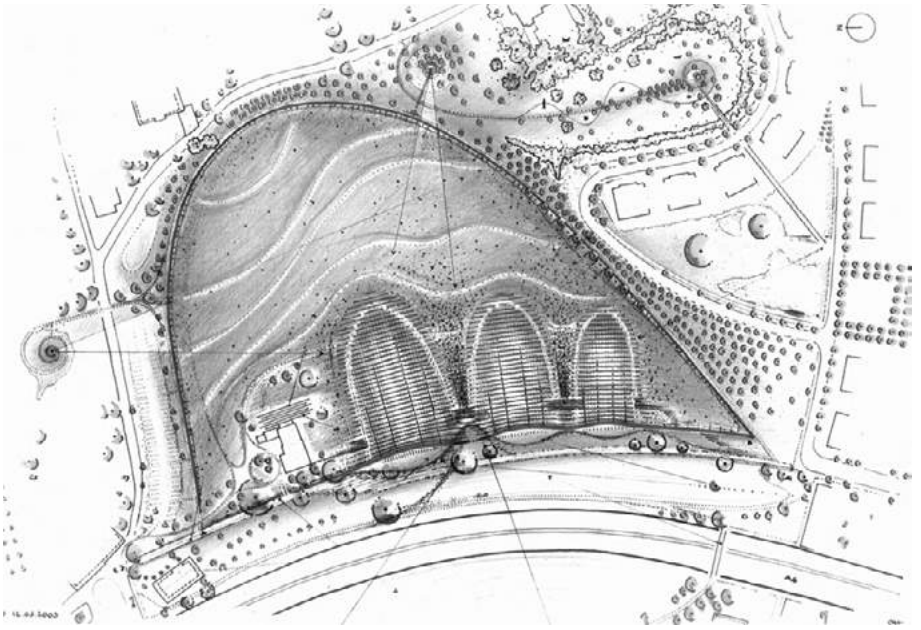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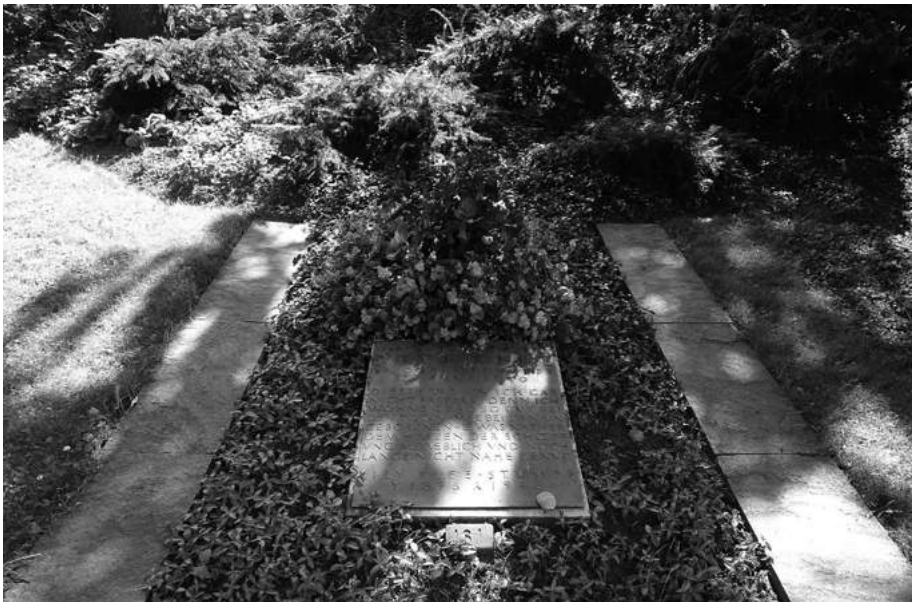


그림 18) 파울 클레 센터 배치도

그림 19) 미술관에서 90미터 떨어진 쇼스할덴 묘역에 위치한 파울 클레의 묘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About conflict over construction cost

글. 김주덕_ Kim, Choodeok ·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Ⅰ. 들어가는 글

작년 한 해 가계부채는 10% 증가하여 1,200조원을 돌파하였다.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축경기가 괜찮은 지역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동산경기가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사대금과 관련한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건축주가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시공사도 부도가 날 위험도 높아졌다. 하청업체는 연쇄부도가 난다.

건축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과 하자문제다. 건축주 입장에서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별히 아는 사람이 없으면 공사업자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좋은 공사업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건축에 관한 지식 없이 공사업자를 만나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제대로 공사를 할 것인지, 건축자재는 제대로 쓸 것인지 등에 관하여 모든 것이 불안하다. 공사업자가 견적서를 뽑아 와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공사업자의 재정 상태나 과거 공사 실적, 사회적 평판 등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건축주는 무조건 믿고 맡겼다가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된다. 나중에 알고 보면 엄청나게 바가지를 쓴 것인데, 그렇다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구제받기도 어렵다.

공사업자는 애써 공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렵다. 건축주가 채무로 인해 토지와 건축물을 압류당하면 공사대금을 떼어먹히게 된다. 공사업자는 자신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부도가 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었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대금 문제는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를 맡은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겨난다.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만 하면 끝이지만, 실제로는 건축주와 시공업자 사이에서 공사대금이 제대로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는 공사의 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Ⅱ.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문제가 생기면 항상 골치가 아프게 된다. 상호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도 마찬가지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에 관해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가 요구하는 수임료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때문에 나중에 사건이 끝나면 너무 많은 돈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공사대금은 특히 그렇다. 모든 것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도 평당 얼마다 하는 말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 설계감리비도 평당으로 정하는데, 그것 역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늘 적정성 시비가 생긴다.

공사대금은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에서 임의로 정하면 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와 공사업자는 구체적으로 공사의 규모와 범위, 재료 및 건축방법, 공사기간 등을 정한다. 이때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체로 다른 업자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여 공사를 따려고 한다. 일단 너무 비싸면 싼 값을 제시하는 업자에게 공사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공사비를 증액하려고 한다.

원자재를 약속과 달리 싼 것으로 사서 부실시공을 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대금 중 선금을 많이 받은 다음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기도 한다. 공사대금을 다 주었는데도 재하청업자에게 재하청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건축주를 귀찮게 만들기도 한다.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바가지 씌우는 공사업자도 있다. 건축을 전혀 모른다고 해서 건축주에게 많은 사항을 속여 거짓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업자도 있다. 이런 경우 건축주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104조의 규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하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축주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잘못 체결하였을 때, 이러한 민법 조항을 들어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래에 있어서, 그와 같은 불균형한 거래가 어느 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것이 증명되는 경우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직 급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쌍방 모두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효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속칭 알박기를 해놓고 사업을 방해하면서 시가보다 10배가량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를 법원에서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보아 무효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에 해당되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불법의 원인은 폭리행위자에게만 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인 피해자는 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해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행위를 한 사람은 민법 제7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해 자신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 유효한 것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민법 제109조가 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Ⅲ.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해당 공사한 부분만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재판실무상 공사대금의 지급은 완성된 건축물의 인도와 동시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사용검사가 끝나면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면 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한 논리다. 공사가 완공되면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정할 수도 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을 몇 회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도급계약은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낙성계약(諾成契約)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

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전형계약은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약이다. 매우 어려운 민법 지식이다. 참고로 설명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 낙성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계약체결시에 성립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공사업자에 대한 제3의 채권자는 해당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공사업자가 건축주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압류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가운데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특별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Ⅳ. 분양 후 공사대금을 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축은 하고 싶은데 막상 공사대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우선 공사를 하고 나서, 건물이 완공된 다음 건물을 매각하거나 세를 주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완공된 다음 공사대금을 못주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관한 중요한 사례가 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은 건물완공 즉시 건축주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사업자는 이와 같은 약속을 위반하고, 건물의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축주로 하여금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공사업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어왔다. 건축주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먼저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언제나 먼저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그 다음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을 하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 사건에서 공사도급계약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공사업자는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 325,49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또한 대법원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다60685 판결).

다시 말하면, 건축주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완성된 건물을 전세 놓아 공사대금을 주기로 도급계약서에 약정을 해놓아도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업자는 즉시 건축물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것은 만일 건축주가 약정은 해놓고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거나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공사대금을 주지 않게 되면, 공사업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Ⅴ. 일부 공사가 미완성일 때 분쟁 해결 방안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잔대금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주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건축주는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잔대금은 준공검사완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일부 도장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 짓지 아니한 경우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건축주는 잔여공사대금 전체를 이행하지 않고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문제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 공사업자는 건축공사 중 일부 도장 및 조경공사 등의 세부공사를 마무리 짓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 그러자 건축주는 잔여세부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판결은 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공사대금정산 등에 관한 분쟁 등으로 그 공사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 잔여세부공사의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부분이 있고 그로 인하여 준공검사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는 잔여미시공부분 공사비 등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이나 기타 소요될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에 그친다고 보았다.

그리고 나머지 대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건축주는 잔여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만 지급거절 할 수 있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가 덜 끝났다는 이유로 전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결이 잘못이라고 파기하였다. 건물공사도급계약시 준공검사를

받는 것을 수급인 책임으로 하면서 도급인이 준공검사완료와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면,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도급인이 위 특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을 신의칙상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는 위 특약에 기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잔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의 입장은 건축주인 도급인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특별약정에 따라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잔대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업자가 건축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건축주가 위와 같은 특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을 신의칙상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준공검사가 끝나야 공사잔대금 전체를 주겠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건축물에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도급인은 위와 같은 특약이 없더라도 민법 제667조 등에 의하여 미시공부분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이 있더라도 미시공부분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면,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는 도급인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특약을 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이다(대법원 1995.2.3. 선고 94다54276 판결).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되었다면 그 공사는 완성된 것이고,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

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VI.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가?

건축도급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이 실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22,42839 판결).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대법원에서 많은 판결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은 건축주의 채무불이행도 한 원인이 되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공사업자와 건축주 사이에 위 도급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도급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공사업자가 건축주에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권리만이 남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따라서 건축공사도급계약 전체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Ⅶ.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

건축공사에서 기성고라 함은, 공사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까지 완성된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성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일정한 공정 진행 정도에 따라 나누어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기성고가 문제된다. 또한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 또는 합의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성고는 공사대금을 정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

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31648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이 문제가 된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수급인이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그와 같은 부분을 시공하거나 보수하는 데 1억 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1/1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하자보수금액에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1/10이 아니라 1/11 상당액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

Ⅷ.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사회생활을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으로서 시효제도가 있다.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

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소멸시효라 함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제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민법에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공사대금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건축사, 대한민국 국회입성 '첫 발'
김철민 건축사,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사상 최초 건축사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안산시상록구을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김철민 건축사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다. 안산시상록구을에서 총 24,236표를 얻어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최종 개표결과, 김철민 건축사(더불어민주당) 24,236표, 홍장표(새누리당) 후보 23,145표, 김영환(국민의당) 후보 23,837표로 초접전이었다. 당초 야권분열로 고전이 예상됐지만, '약속을 지킨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안산시장 경험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역 건축사로는 사상 최초로 '건축사 국회의원 시대'를 열게 됐다. '건축사 국회의원'을 학수고대하던 건축사업계의 숙원이 마침내 풀렸다.
김철민 건축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안산시 시장을 역임한 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 건설 ▲반월·시화공단 활성화 ▲신안산선 개통 정상 추진 ▲국회의원 특권 축소 ▲보육·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보육·교육·보건의 국가책임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건축사업계에서 김철민 건축사의 정계입문에 대한 반응은 축하와 함께 기대일색이다. 건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축사의 시선으로 국회 내 입법권, 예산 심의 확정 등이 이뤄질 수 있고, 정치활동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이해의 균형을 세우는 일이니만큼 건축분야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함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건축계는 현재 경기침체, 양극화 심화 등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법·제도 개선을 통한 업계활로 개척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김 당선자는 안산시장 시절 도덕성, 추진력에서 검증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안산시 최초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민선시장으로 지방권력의 부패를 끊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1회사 1경로당 자매결연 정책을 추진했으며, 4년 연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이행평가 최우수등급(SA)를 받았다. 공약 97건 가운데 90%인 88건

을 안산시장 재임기간 완료한 결과다. 아울러, 공공무인자전거 '페달로'를 시행했으며, 임기 4년 내내 '기업SOS 이동시장실'을 도입운영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며 '일 잘하는 시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다가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야간에 학교주차장을 안산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서민중심 시정을 펼쳤다.

정치이력은 20년 전 안산시 육상경기연맹회장을 맡게 되면서 시작됐다. 평소 '정치불신 시대이지만, 그래도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는 오로지 정치뿐이다'라는 소신을 가져왔다.

공약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각종 특권을 축소하는데 앞장서 국회의원 세비를 감액하고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창구인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제한, 국회 윤리특위 강화로 부도덕한 국회의원 엄중 징계 등을 약속했다.

서민경제 살리기, 철저한 민생정치를 표방한 김철민 건축사는 "선거 승리에 담긴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언제 어디서고 한결같은 김철민이 되겠다고 다짐한다"며 "건축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국회의원 활동의 의지·포부를 밝혔다.

김종근 건축사, 김해시의원 당선

김종근 건축사

4·13 재보선에서 김해시의원 라 선거구(진영읍·진례면·한림면·주촌면)에 출마한 김종근 건축사(주.미성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됐다. 김종근 당선자는 주천강 수변공원, 진영전통시장 리모델링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58.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당선자는 김해지역건축사회 회장, 경상남도건축사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봉회 부회장 선임

김봉회 부회장

대한건축사협회가 4월 12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김봉회 건축사(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사진)의 부회장 선임을 의결했다.

김봉회 건축사는 2010년 대한건축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장과 2011년 경기도건축사회 24대 회장을 역임 후 2015년 대한건축사협회 본부 이사로 활동했다. 현재 2016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권병조 상근부회장 이임식

대한건축사협회 권병조 상근부회장(사진)이 2011년 4월 25일 취임해 5년간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직 수행을 마치고, 4월 25일 이임식을 가졌다.

권병조 상근부회장은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 기획단장과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단 기획국장 등을 역임한 정책통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 관장과 더불어 건축 법제도 개선에 힘썼다. 임기동안 감리제도개선 건축법 개정안 통과 등에 일조했다.

이날 이임식에선 재직기념패와 기념품 전달이외에도 직원들의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대한건축사협회-인천광역시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업무협약 체결

대한건축사협회가 인천광역시와 4월 21일 인천시청에서 2016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2016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사들과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건축문화 창달의 결의를 다지는 메가이벤트로 개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우리나라 건축문화 진흥 및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인천광역시는 이를 위해 행정 및 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회장인 조충기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건축사의 자존과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유정복 시장을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인천광역시와 국내 최고 건축전문가 그룹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손을 맞잡은 만큼, 국내 최고의 행사로 거듭날 수 있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조충기 회장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봉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장 및 윤희경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6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건축사, 건축문화 가치 재창조'를 주제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전국 1만여명의 건축사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건축사회와 한옥모델 개발

<경상북도건축사회가 개발한 '한옥 표준모델'>

ㄱ자형 28평형 평면도

ㅡ자형 26평형 평면도

ㄷ자형 63평형 평면도

ㅁ자형 41평형 평면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건축사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경북형 한옥'모델 32점이 공개됐다.

4월 20일 경상북도청 동락관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이재효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한옥모델 선포식을 개최한 것.

이날 선포식에서 표준모델 32점을 전시하고 경북형 한옥 활성화 포럼 등이 열렸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등으로 한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경상북도청 신청사가 한옥양식으로 지어져 공공업무시설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지역의 관광명소화가 됐다. 개청 6개월 간 관광객만 16만여 명에 이른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한옥의 관심을 바탕으로 한옥의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건축사회와 손을 잡고 한옥모델 표준화에 나섰다. 그간 한옥 시공현장은 현대적 생산체계가 갖춰지지 못해 3.3㎡ 당 1천만원이 넘는 건축비로 대중화에 애를 먹었다.

이에 경상북도는 한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북형 한옥'모델을 개발하고자 지난해 5월 45명의 한옥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만들었다. 이 포럼에는 이재효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이 홍보분과 위원으로, 최혁준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과 김기홍 건축사(청림 건축사사무소)가 기술분과 위원으로 참여했고, 경상북도건축사회는 협회 내 한옥기술지

원위원회를 만들어 기술자문을 맡았다. 한옥기술지원위원회는 정상수 건축사(청어람 건축사사무소), 김남준 건축사(한림 건축사사무소), 정용진 건축사(태오름 건축사사무소), 김동수 건축사(신영 건축사사무소), 이성태 건축사(터전 건축사사무소)로 구성됐다.

'ㄱ자' 'ㄷ자' 'ㅁ자' 'ㅡ자' 형태의 기본 4가지 전통평면을 바탕으로 12~63평형으로 전통형과 보급형 등 32점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했다. 경상북도에서 6개 모델은 용역발주로 자체 개발했고, 경상북도건축사회에서 26개 모델은 그간 사용된 한옥 설계를 바탕으로 개량화해 완성했다. 표준모델 건축비는 3.3㎡당 600만원이다. 경상북도는 올해 10월 표준설계도서 등록을 완료하고 11월 보급 및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건축디자인과(054-880-4020)으로 하면 된다.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조직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워크숍 개최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2016년도 제1회 워크숍이 4월 27일 서초동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위원회 간 정보공유를 통해 대회의 일정과 주제, 주요 학술프로그램, 부대행사들의 전체적인 틀이 점검됐다.

이날 조직위 워크숍에서는 강성익 이사장과 한종률 조직위원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이외에도 서울시 주택건축국의 한병용 건축기획과장과 UIA팀 담당자들이 참가했다. 서울시는 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건축기획과 내 UIA팀을 신설해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의 UIA팀은 장학진 팀장과 정연길 주무관, 설정임 주무관으로 조직됐고, UIA추진 TF팀 총괄과 기본계획 수립, 세계건축대회 개최 관련 중앙부처 협조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월 3일 사전등록을 위해 큰 틀에서 프로그램 구성은 마쳤지만, 대규모 행사를 위해 '건축계'를 넘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충과 세부 준비사항(디테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세계건축대회는 '도시의 혼(SOUL of CITY)'이라는 대주제 아래, '지속가능도시(Nature)', '역사문화도시(Culture)', '하이테크도시(Future)'라는 소주제로 진행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임직원 문화체육행사

대한건축사협회가 4월 22일 청계산 일원에서 상반기 임직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청계산 등반, 단합행사 등으로 임직원 상호 의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12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성료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부산기장월드컵빌리지에서 전국 건축사축구동호회 23개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개최됐다. 대회 우승은 '경기 청'팀이 차지했다. 준우승은 '대구 팔공'팀, 3위는 '대전 양반'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에는 '경기 청'팀의 신수영 건축사(신영 건축사사무소)가 차지했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경인일보와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4월 14일 경인일보와 인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2016 인천건축문화제' 공동 주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 인천건축문화제는 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건축백일장, 건축사진공모전, 건축학생공모전 등 다양한 공모·전시 행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남부경찰청과 업무협약

경기도건축사회가 경기남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관내 10억 원 미만의 경찰관서 건축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외부전문가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기도건축사회와 자체 조직한 시설감리 태스크포스를 활용해 설계서 검토 및 준공 전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충청남도건축사회, 2016년도 임원 워크숍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가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담양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에서 박정준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충청남도건축사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분임토의 등을 통해 협회 주요 발전 사항을 논의했다.

강원도건축사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업무협약

강원도건축사회가 4월 26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건축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보교류, 연구, 교육 등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력내용으로는 공동연구 수행, 공동 출판, 건축 정책 및 기준개발, 관련 교육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이다.

전라남도건축사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건축인 포럼

전라남도건축사회는 4월 8일 전남 영암군 군서면 한옥건축박람회장 세미나실에서 건축사 회원 포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건축인 포럼을 개최했다. '지역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건축인 포럼'이라는 주제로 지역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제도 및 도시재생 사례 등을 공유했다.

안산지역건축사회,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재능기부

안산지역건축사회가 안산시와 공사감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 무상 감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재능기부 협약식을 가졌다. 사업방식은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시 건축주에게 안내한 후 착공 시 감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축주에 한하여 건축사가 감리를 도와주는 형식이다.

서천지역건축사회, 건축행정 청렴실현 협약

서천지역건축사회가 지역의 관련단체와 서천군과 '개발행위 및 건축행정 청렴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주요 개정사항 및 2016년 신규사업 추진현황 설명과 함께 인허가 등 행정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협의했다.

하남지역건축사회, 장애인부모회 봄나들이

하남지역건축사회가 4월 23일 하남시 장애인부모회와 함께 농장체험과 공원 등 봄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하남지역건축사회는 발달장애인들의 미래방향과 부모회 회원들의 고충해결 등에 노력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으며, 이웃사랑 사랑나눔 음악회 및 대학생장학금 지급 등의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완산경찰서와 셉테드 협약

전주지역건축사회가 완산경찰서와 셉테드 적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셉테드(CPTED)란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설계방법으로 전주시내의 건축 및 도시계획 시설 설계 시 셉테드를 적용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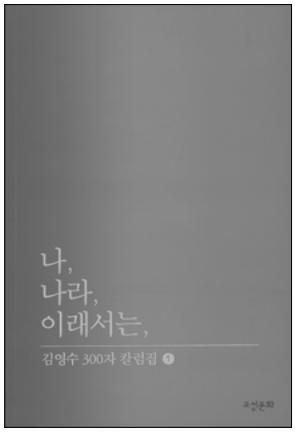
서귀포지역건축사회, 도심 색채개선 재능기부

서귀포지역건축사회가 서귀포시와 도심 색채개선을 위한 민관협약을 체결했다.
아름다운 서귀포, 쾌적한 도심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귀포지역건축사회는 서귀포 도심에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색채개선 사업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신간 소식

나, 나라, 이래서는,

김영수 300자 칼럼집 ①, ②



김영수 지음 / 오성문화

우리협회 김영수 고문의 신간을 소개한다.

300자 칼럼집으로 현재 2권까지 출간되었다. 각 권마다 크게 3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제1장 도시와 건축, 제2장 자연과 환경, 제3장 사회와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책머리에서 아름다운 건축과 살기 좋은 도시를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점점 오염되어가고 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지구의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나는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는 바로 나의 보금자리'라는 평범한 진리에 따라 내가 먼저 바로 잡을 때 우리이웃, 우리나라, 더 나아가 우리 지구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바뀐다며 책을 펴내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도서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이다.

부록 1

결로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저작권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으며, 자료는 www.molit.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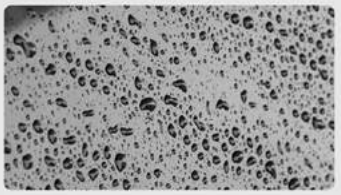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결로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결로란 무엇인가?

결로는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연현상 입니다.

겨울철 유리창에 발생하는 물방울, 여름철 차가운 물 컵 표면에 생기는 물방울 등 결로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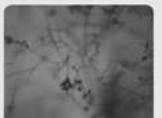
결로는 발생시 즉시 제거해 주세요!

결로를 방치하면 곰팡이 발생 확률이 높아지며,
곰팡이는 알레르기 및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내 발생가능 곰팡이들

아스페르길루스

클라도스포륨


트리코테르마

결로발생시 제거요령

결로현상에 의한 물방울은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즉시 닦아내고 선풍기 등으로 잘 말린 후 제습기 또는 주기적인 환기를 통하여 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곰팡이발생시 제거요령

곰팡이 제거시에는 환기가 되는 상태에서 염소계소독제(락스 등 제품별 사용법 준수) 또는 구연산(물과 1:10비율로 희석)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결로발생 환경

햇빛이 잘 들지않는 공간
(북측발코니, 대피공간)

겨울철 높은 실내온도

벽에 붙인 가구
(욕실에 면한 수납가구)

높은 실내 습도
(가습기, 빨래건조, 실내화분)

꼭 닫힌 실내
(자연환기, 기계환기 미작동)

발코니에 과도한 물건적치
(원형환기구 미작동)

신규 입주단지의 결로환경

입주 초기 단지는 콘크리트, 방바닥 미장 등으로부터 습기가 방출되어 실내 습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습기 사용요령

*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플러스 게시자료

❶ 가습기는 세제보다 식초, 베이킹소다, 소금물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❷ 세균번식을 막기 위하여 정수기 물보다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❸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은 피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가 갇혀있고 분무된 수증기가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여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❹ 가습기 사용 전/후 하루 2번(10분 이상) 실내환기를 실시하면, 곰팡이 등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결로 줄이기 TIP!

TIP 1 (현관문) 적정 온도관리
- 북도식아파트는 포켓형 환기구 개방
- 북도 외부창호 잠금

TIP2 (주방) 후드휀 가동
- 조리시 후드휀 가동
- 조리 후 창문개방을 통한 환기

TIP3 (북측발코니) 환기구 개방
- 원형환기구 열어두기
- 과도한 물건적재 지양
- 수시로 환기 실시

TIP4 (수납가구) 이격설치
- 의류 등 밀착보관 지양
- 가구문짝 개방을 통한 수시 환기
- 제습제 등 비치
- 가구 배치시 벽과 이격하여 설치

TIP7 (세대내부) 환기Unit 가동
- 주기적 환기Unit 가동
- 장기부재시 가동 예약 실시

TIP6 (발코니창호) 자연환기
- 1일 2~3차례 주기적환기
- 창호부착 자연환기구 개방

TIP5 (세대내부) 온도·습도 관리
- 온도 25℃ / 습도 50% 이하
- 가습기 사용 후 충분한 환기

▶ 욕실 공간의 특성

욕실은 사워, 목욕 등 생활여건상 많은 수증기가 발생되는 공간입니다. 수증기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거나, 현관 또는 드레스룸 등 인접한 공간으로 확산될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욕실에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환기 – 욕실 사용시 환풍기 가동
– 사워(목욕) 후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환풍기를 가동하여 수증기 제거

▶ TIP

인접공간으로의 수증기 확산방지를 위하여 20분이상 가동 권장

▶ 발코니공간의 특성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장마철과 겨울철 약간의 습기에 의해서도 쉽게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원형환기구 상시 개방
– 겨울철 하루 2회 이상, 충분한 시간동안 환기
– 벽에 밀착하여 짐을 놓거나, 창고(선반)문 등 추가시설물 설치시 결로발생 확률이 높아짐
(특히 대피공간 내 대피에 장애가 되는 물건적재는 지양)
– 세탁공간일 경우, 세탁기 가동시 환기 실시(미가동시에도 주기적 환기)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5호)
* 적용범위 등은 고시내용 참조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제정」
*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LH 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동주택 결로저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Step 1 온도·습도관리

Step 2 환기는 수시로

Step 3 결로발생시 제거

※하루 2~3차례 환기를 해주면 오염된 실내공기의 정화와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록 2

대한건축사협회 50년 역사

역대회장 활동사항(1)

_ 김득수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50년 역사

_ 역대회장 활동사항(1)

50 Years History of Korea Institute Registered Architects

대한건축사협회 50년 역사에 부치면서

1962년에 건축법 제정, 도시계획법 제정, 문화재보호법 제정, 건축법 시행규칙 제정, 1963년 건축사법 제정으로 1965년 5월 15일 제1호 건축사가 탄생되면서 1965년 7월 6일 발기인 11인이 발기인 총회를 갖고 1965년 10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총회와 건설부의 인가를 받아 1965년 10월 23일 발기인 김순하 건축사와 회원 127명이 참석하여 창립하게 되었다.

창립초기에는 전국에 11개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변화 속에서 50년을 이어오고 있다.

약관 20대 후반 젊음을 몸담아 온지 50년, 회원의 일원으로서 협회의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가다듬어 50년을 회고하면서 이러한 뜻 깊은 자료조사로 50년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은 큰 보람이라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오늘날의 우리협회는 50년의 역사를 증명하듯 변천 속에서 고난과 좌절이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의 역사와 협회의 역사를 정리하다 보면 초대 회장인 김순하 회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타계한 후 13년간 11명의 회장이 재임하면서 평균 1년 남짓 임기를 채우는 수난시대였다.
오늘에 이르기 까지는 화재사건, 붕괴사고로 이어진 국가적인 건축물 재난에 이어 건축법 개정은 물론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등 건설업계의 설계겸업이 끈질기게 건축사협회를 괴롭히는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는 기쁨도 있었다.
또한 건축사교육원, 등록원, 건축연구원, 공제조합 등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협회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기록을 찾아 발자취를 조사, 기록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지난 날을 기리며 나아가서 후배 건축사의 밑거름이 되어 줄 참고자료로 연혁이 귀중하기에 기록을 찾게 되었다.
50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경을 이겨 지내신 원로 선배님, 사무처 직원이 간직한 회고담을 경험하고 느낀 점을 진솔하게 기록하여 우리 협회의 자긍심을 갖게 되리라 생각함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한국건축계의 흐름 속에서 관련기관들과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이 어떠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록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세월에 50년을 추가하면서 100년 뒤의 대한건축사협회 얼굴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미래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은 세계 건축계의 흐름과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삽입하는 것과 각종 기술력이 반영된 자재와 연관하여 국내의 실제 사례들을 수집하여 건축설계와 접목하여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기술보완하는 것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도 그동안 건축계의 대표적인 건축 잡지로 「건축사」지와 더불어 「서울건축사신문, 건축문화신문」과 오랜 역사로 건축계에 대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정보, 소개 활동으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 건축계의 일익을 담당해 왔다.

초창기에 선배 건축사님들은 일제 강점하의 식민지 교육을 받아야 했고, 해방 직후에 이어지는 세대들은 6.25의 폐허 속에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1965년 초창기 초대회장에서부터 매월 3회 내지 5회 이사회를 회장님 거실과 사무실을 오가며 매주 열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건축사법 개정을 위시하여 과세표준소득율 인하 세율 대책과 면허대여 규제방안 강력 추진, 담당이사 출장 진상조사는 물론 비리회원 윤리위원회 결정까지 열심히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열심히 한 선배건축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의연한 모습으로 그 동안의 성과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힘을 모아 새로운 계획을 세워 새로운 50년에는 큰 도약을 이루어 희망찬 100년이 다져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득수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초대 회장 김순하(1965.10.23~1966.12.26)

■ 주요활동 사항

◦ 「조선건축」 발행

- 해방이후 조선건축기술협회 기관지로 1947년 3월 창간호 발행(등록문화재 제575호, 김종영 소유)

	발행연도	발행기관	편집위원		
			위원명	성격	
1권1집	1947.03.20	조선건축기술단	김윤기 유상하 김재철 김종민 이흥구 전창옥 송민구		비매품
1권2집	1947.06.20	조선건축기술협회			120원
1권3집	1947.08.30	조선건축기술협회			120원
2권1집	1947.12.20	조선건축기술협회			150원
2권2집	1948.03.20	조선건축기술협회			180원
2권3집	1948.06.20	조선건축기술협회	유상하 이균상 김재철 전창옥 이흥구 김종민	상임위원 전원으로 구성	비매품
2권4집	1948.09.20	조선건축기술협회			비매품
3권1집	1949.01.15	조선건축기술협회			비매품
3권2집	1949.05.10	조선건축기술협회	논설&논문 : 김희춘 장기인 유덕호 뉴스 : 송민구 이희태 편집 : 이흥구	책임분담체	비매품

- 해방이후 한국 건축가들의 활동과 저술활동들이 간략하게 소개돼 있음

◦ 1948년 11월 4일

- 대통령령 제18호에 의거 내무부에 건설국 건축과 설치

◦ 1962년 6월 18일

- 법률 제1092호에 의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

◦ 1962년

– 건축법·도시계획법제정·문화재보호법·건축법 시행규칙·건축사법 제정

◦ 1965년 5월 15일

– 제1호 건축사 탄생

◦ 1965년 10월 23일

– 대한건축사협회 창립총회와 건설부의 인가를 받아 발기인 김순하 창립총회장 및 건축사 127명 참석 하에 창립(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p88)[1)]

◦ 지부별 서울특별시 267명, 부산직할시 53명, 경기도 28명, 강원도 14명, 충청북도 12명, 충청남도 26명, 전라북도 21명, 전라남도 37명, 경상북도 69명, 경상남도 18명, 제주도 5명의 회원이 있었음

◦ 서울특별시지부 중요시책으로 무면허업자 단속, 덤핑방지 대책 수립, 기술적인 상향검토, 건축사의 해외진출 방책 모색 등

◦ 1966년 9월 24일

– 제1회 정기총회 개최(건설회관에서 102명의 회원 참석)

◦ 1966년 9월 24일

– 대한건축사협회 배지제정(20년사 p182)[2)]

◦ 건축사지 창간호에 3.15의거 기념탑, 국립과학관, 다락방(종교건축물) 3개 작품 게재

◦ 1966년 11월

–김수근 발간, 「공간」창간

1) 협회 설립 "건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지방장관에게 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김순하외 10인을 지명하여 1965년 7월 6일 발기인 총회를 갖고 창립총회의 준비를 완료하였다.
(발기인 김순하, 김재철, 장기인, 차경순, 강봉진, 송민구, 한창진, 박춘명, 안인모, 김종식, 배기영)

2) 본협회의 상징마크인 협회 배지는 1966년 9월 24일부터 신분증과 함께 전회원에게 발급되었던바 배지 뒤에는 신분증번호와 동일한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배지 크기는 11㎜ 정사각형 순은으로 조각하여 검정색 바탕으로 부식시켜 만들었다. 그러나 이 배지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배지 주위에 무궁화 및 휘장을 두르게 되어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1945년

- 조선건축기술단 설립(현, 대한건축학회)
- 조선건축사회 설립(현, 대한건축사협회)

◦ 1947년 3월 조선건축 발행

등록문화재 제575호, 김종영 소유

◦ 1957년

- 한국건축가협회 설립

◦ 1963년 12월 10일

- 건축사법 제정 : 1, 3급 구분 면허제

◦ 제1회 건축사시험

- 1965년 3월 10일자 서울신문에 게재 "시험실시 재공고"

建築士資格
試驗實施再公告
建設部長官 全禮鎔
一、追加接受期間
二、試驗日字
三、試驗場所
四、試驗科目및區分
五、選擇科目申請
六、其他

◦ 시험거부 사건

- 건축동인회 결성하여 성명서(1965년 4월 15일, 20년사 p98)
- 가칭 전국건축동인회, 건축사법령 개정 추진위원회

◦ 1965년 10월 23일 창립총회

◦ 1966년 7월 제1호 건축사지 발간

◦ 건축사자격시험제 도입

◦ 건축사 개업시 사무소를 지방장관에게 등록(건축사 529호)

◦ 1965년 10월 23일 정관개정

- 대의원은 정회원 5명당 1명(20년사 p148)

◦ 1965년 이사회 11회

◦ 1966년 이사회 36회(20년사 p579)

2대 회장 장기인(1967.1.29~1967.9.29)

■ 주요활동 사항

◦ 1967년 4월

- 제1회 전국우수건설자재 전시회, 시민회관 옆 광장에서 개최 (건축사, 1967년 4월)

◦ 김수근건축사(김수근건축연구소)가 설계한 부여박물관[3)]

- 건축사 3호에 게재(1967년 9월 발행)

1967년 8월 19일 동아일보 기사

1967년 8월 19일 동아일보 기사

- "김수근 부여박물관의 전통논쟁과정 소고 신문기사와 공간지에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부여학 5호(2015): 210~265(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리복원과)

3) 거의 완공단계에서 왜식시비 논란으로 휩싸이게 되었다.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여론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부여박물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전문단체로써 건축사를 비롯하여 건축과 교수, 사찰 스님 등을 초빙하여 건의하는데 공감했다.

<왜색논쟁에 대한 여론의 추이>

날짜	여론의 추이	좌담회(학계) 및 정부의 의견
1966.05.07	동아일보, "國寶 등 固有의線美 본떠" (국립종합박물관에 대한 비판)	공간, 1967년 1월호, "좌담회 건축 전통계승하는 길은?" 공간, 1967년 2월호, "한국현대건축을 위한 심포지움 I – 국립종합박물관의 경과"
1967.03.22	동아일보, "鄕土文化의 開発"	
1967.08.19	동아일보, "夫餘博物館建築樣式에 말썽 – 日本『神社』와 같다" ; 홍사준, 최순우의 의견	공간 1967년 10월호, 재수록
1967.08.21	동아일보, "扶餘博物館의 樣式是非"	공간 1967년 10월호, 재수록
1967.08.23	동아일보, 횡성수설	공간 1967년 10월호, 재수록
1967.08.24	동아일보, "新築扶餘博物館의 樣式", 金哲埈	
1967.08.26	동아일보, "扶餘의 博物館과 日帝時代「神社」問題," 洪以燮	
1967.08.31	동아일보, "神社樣式은 恥辱의 象徵", 김용련(부여군 규암면 성찬교회목사)	
1967.09.02	동아일보, "妄擧·扶餘 博物館設計圖를 보고", 金重業	
1967.09.02	중앙일보, "건축양식으로 시비된 부여박물관"	중앙일보 뿐만 아니라, 주간한국,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의 시비양론 및 기사
1967.09.04	동아일보, 횡설수설	
1967.09.04	매일경제, "撤去해야한다" 日神社樣式扶餘博物館	
1967.09.05	동아일보 "「神社」模倣아닌「내것」", 扶餘博物館設計者 金壽根氏의 辯	新築扶餘 박물관 日本式이면 撤去 文鴻柱 문교부장관은 신축중인 국립扶餘박물관의 건축양식이 일본식이면 철거
1967.09.07	동아일보, "建築意匠의 普遍性 金壽根씨에의 忠告", 이천승	동아일보, "扶餘博物館의 建築樣式 各界意見" 이인기(서울문리대교수), 김원룡(서울부속박물관장), 김동리(작가), 김소운(수필가), 김영태(시인), 최상수(민속학자), 김동규(한국건축가협회부회장)
1967.09.07	동아일보, "扶餘博物館設計者 金壽根氏의 辯"에 대한 취재경위 고수균	
1967.09.07	조선일보, "부여박물관 건축 시비 그 후의 소식" 현지조사를 끝낸 대한건축사협회 임원들의 의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독자적인 현지조사, 13일에 세미나 개최 공보
1967.09.11	주간기관인 국립박물관은 부여박물관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지조사를 함.	오후 扶餘博物館 건축양식 심의위원회 개최 – 참석위원명단: 김두종 이내찬 임응식 김원용 김용덕 김세중 김영주 이경성 주홍섭 김경승 윤일주 윤장섭 김정수 이정덕 정인국 – 공사현장을 답사한 16명의 심의위원은 박물관 옆뜰에서 "신사가 아니라"는 기자회견 및 의견
1967.09.12	동아일보 "부여박물관의 造形問題", 김중업	扶餘博物館 建築양식 심사
1967.09.12	매일경제 "말썽난 부여박물관" 建築士協서 좌담회	한국건축가협회 세미나 (12일 오후 예총회관 화랑) "부여박물관건축양식의 문제점" 패널토론 원정수, 송기덕, 이승우, 김중업 참여
1967.09.12	조선일보 부여박물관건물 조사단서 결론 "「도리아」와 다르다" 기고자 : 이흥우	

날짜	여론의 추이	좌담회(학계) 및 정부의 의견
1967.09.13		대한건축사협회 좌담회 (13일 오후 2-5시 신문회관 강당)
1967.09.14	동아일보, "結論단계에 들어선 扶餘博物館建築양식"	9월14일에 부여박물관건축심사위원회의 최종적인 회합과 결론 - 부여박물관은 일본적인 감각을 풍기는 인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형적인 일본의 신사양식은 아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본 건물이 앞으로 보다 나은 건축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작가로 하여금 그 창의에 맡겨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1967.09.14	매일경제, "韓國을 찾자 (14) 韓國의歌謠"	
1967.09.14	조선일보, "말썽난 부여박물관 건축양식. 「심의위」의 견해"	
1967.09.16	조선일보, "부여박물관 건축심의위 결론" 개선권고 하기로	
1967.09.16	중앙일보, "신사양식 아니다"	
1967.09.18	경향신문, "再考하여 야 할「扶餘博物館건축」發言"	
1967.09.18	동아일보, "特殊普遍性", 金雲學	
1967.10.21	동아일보, "김수근씨設計 캐나다 世界博覽會『韓國館』에도 日本냄새 '井字型'"	공간 1967년 10월호, "한국현대건축을 위한 SYMPOSIUM, SERIES II 전통계승과 비평의 당위"
	경향신문, "爐辺에서 送年対談 (5) 建築"	
1967.12.16	동아일보, "문화계 67년 결산과제 (4) 建築"	
1967.12.26	중앙일보, "한국풍 박물관"	
1970.08.03	조선일보, "부여박물관, 개관 앞서 예비 공개"	
1971.08.15	중앙일보, "진통 6년 부여박물관 준공"	
1971.08.30	동아일보, "부여박물관 문 열어"	
1971.09.01	동아일보, "부여박물관 문 열어"	

◦ 1967년 4월

- 협회지 제호를 건축계(建築界)로 변경 발간

◦ 1967년 6월 21일

-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대학 본관 도괴 사건 원인 감정의뢰(20년사 p589)[4)]

4) 청구대학 본관 도괴 사건에 관련된 최성덕 회원은 무면허자인 김인호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허가서를 작성함으로써 경북지사로부터 등록취소가 되었으므로 제명키로 함(6.27 29회 이사회 20년사 p589). 최성덕 회원은 건설부에서 면허취소됨(8.24일 34회 이사회 20년사 p590)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1967년 이사회 34회(20년사 586p)

3대 회장 김재철(1967.9.29~1969.8.30)

■ 주요활동 사항

◦ 1968년 1월

- 협회지 제호를 건축사로 변경 발행

◦ 국내 건축계를 경시한 정부종합청사 설계 논란[5)]

◦ 제2회 전국우수 건설자재전(건축사, 1968년 5월)[6)]

- 육영수 여사도 참관한 제2회 전국우수건설자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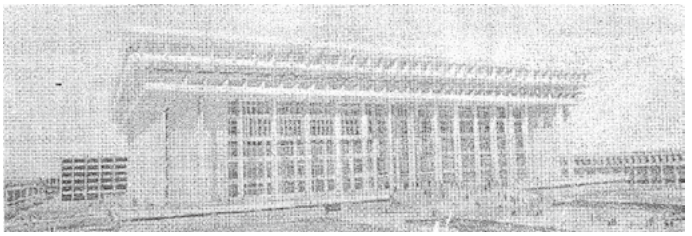
5) 1968.2.21. 신문회관 회의실에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계 인사와 관련공무원 등 250여명이 모여 정부종합청사 설계와 관련 토론회가 있었다.('정부종합청사 설계' 국내건축사의 손으로!)

6) 육영수 여사도 관람한 제2회 전국우수건설자재전시회가 시민회관 옆 광장에서 9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 세운상가 아파트 가동 설계자 김수근 건축사 회원작품

◦ 국회의사당

- 중복 현상공모를 통해 탄생한 국회의사당 계획안



- 현재의 국회의사당

◦ 대한건축사협회 제3대 김재철 회장은 44년 전에 건의된 건축청 신설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함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1968년 3월호 건축사지

◦ 1968년 5월호 건축사지

◦ 1969년 5월호 건축사지

◦ 1968년 이사회 50회

◦ 1969년 이사회 12회(20년사 p602)

4대 회장 강명구(1969.8.30~1970. 10.23)

■ 주요활동 사항

◦ 1970년

- 1966년 7월 창간호 시작으로 격월간으로 발행해 오다 건축사 지를 1970년 제17호를 기점으로 월간 체제로 전환[7)]

◦ 1970년 4월 8일

- 와우아파트 붕괴(사망 33명, 부상19명)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1970년 월간 건축사 체제로 전환(건축사 537호)

◦ 1970년 이사회 29회(20년사 p606)

7) 월간 건축사는 1966년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격월간으로 발행해 오다 1970년 제17호를 기점으로 월간체제로 선언한다. 한창진 고문(7대회장 역임)이 1970년 1월부터 10월가지 편찬위원장을 역임하다 후임으로 11월부터 서정달 편찬위원장이 역할하게 됐다.

5대 회장 강봉진(1970.10.23~1971.10.2) (❖ 4대 강명구 회장 잔여임기)

■ 주요활동 사항

◦ 1971년 1월 20일(제2회 이사회)

보고사항

- 건축사 업무의 보수기준 개정인가('71.1.16 건설부 장관)
- 회지발행 입찰(연간 계약으로 '71년도 갱신계약)

결의사항

-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리 규정('71.1.20)
- 건축학회서 제정한 표준 시방서 책자 상하권을 각시도 지부 및 분소까지 비치토록 권장키로 하고 공사감리 규정을 보완키로 함
- 문화재 공사 노임단가 조회(문화재관리국)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1971년 3월 1일

- 부부건축사 원정수, 지순 합동건축전 서울신문회관에서 개최[8)]

◦ 서울대 종합 캠퍼스 4월초에 기공

◦ 1971년 6월 12일

- 제1회 건축제전 10월에 개최[9)]

8) 본협회 서울지부 회원이신 여류건축사 지순 씨(一洋建築工房)와 부군 원정수 교수와의 합동건축전이 3월 11일~7일까지 서울신문회관 화랑에서 개최했다.

9) 본협회 목적은 회원의 자질 향상과 전국회원 상호간의 친화단결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중요행사는 학술강연회, 연예대회, 건축행정에 관한 세미나, 건축대상 시상식, 산업시찰, 대회 참가자 파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 중이다.

◦ 1971년 7월 14일

- 1971년 농촌주거 설계 현상응모 입상자 발표[10)]
- 김수근 작품전 개최[11)]

◦ 1971년 10월 18일

- 대한건축사협회, 시민회관(세종문화회관)에서 건축대제전 제1회 건축사협회 전국대회 개최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1971년 7월

농촌주거설계 현상응모 심사결과(건축사지 588호)

1등 한영제(연세대 건축과 4학년)

2등 원영태(서울공대 건축과 4학년)

3등 송수용(홍익대 건축과 4학념)

3등 공동수상 노삼규, 강상용(홍익대 건축과 2학년)

◦ 1971년 10월 27일

건설부장관 본협회 정관개정 승인

- 총회 1/3이상 출석으로 성원

◦ 1971년 이사회 36회(20년사 p611)

10) 본협회에서는 정부의 농촌근대화 작업에 호응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실용성 있는 농촌주택과 단지계획을 공모하여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입상자가 선정되었다. 1등 한영재(연세대 건축과 4학년) 2등 원영태(서울공대 건축과 4학년) 3등 송수용(홍익대 건축과 4학년), 노상규, 강상용(홍익대 건축과 2학년)

11) 본협회 서울지부회원 김수근 씨(김수근설계사무소)는 지난 6월 1971년도 범태평양건축상 기념 작품전을 신세계 화랑에서 개최했다.

6대 회장 강대웅(1971.10.20~1973.10.27)

■ 주요활동 사항

◦ **1971년 10월 27일**

건설부 장관 본협회 정관 개정 승인[12)]

– 총회 1/3이상 출석으로 성원

◦ **건축가협회 회장에 최창규 씨 선출[13)]**

◦ **1972년 3월 25일**

회관의 이전(20년사)

– 중구 태평로 1가 60–7 해성빌딩으로 네 번째 이전함

12) 태완선 건설부 장관은 건축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본협회의 정관 개정안을 10월 26일 자로 승인했다. 본 개정의 골자는 3백 명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의 1/3이상 출석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13) 한국건축가협회는 1972년도 정기총회에서 최창규 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 김수근씨와 한장섭 씨를 각각 선출, 이사 17명중 8명이 유임되고 9명은 새로 선출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중략>

◦ 1972년 4월 29일

– 건축학회 신임회장에 김정수 인준[14)]

◦ 1972년 9월 11일

– 한국건축가협회 최창규 회장 UIA 제12차 대회 참석차 출국[15)]

◦ 1973년 6월

– 제1회 건축인 제전

◦ 대연각호텔 화재로 고층건물에 대한 방재설계 강화[16)]

14) 대한건축학회에서는 1972년 4월 29일 건설협회 대강당에서 7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김정수(연대 이공대 교수) 부회장에 김희춘(서울공대 교수) 함성권(한양대 공대 교수)를 인준했다.

15)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최창규씨는 바루나에서 개최하는 제12차 UIA(세계건축사연맹) 대회에 참석차 1972년 9월 11일 CPA기편으로 출국했다.

16) 1971.12.25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대연각호텔에 대형화재가 발생 166명이 사망, 63명이 부상으로 1층 커피숍 주방에 있던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가연성 내장재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옥상까지 번졌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됐던 고가사다리는 최고 높이 건물 7층 규모 밖에 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대통령 전용 헬기까지 동원되었으나 옥상에 헬기 패드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10시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진화됐다. 사고 이후 고층 빌딩 옥상 헬기패드와 건물내부의 비상구 및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 됐다.

◦ 1972 건축파동 위법 부정의 건축물 적발 관련자 엄중처벌
◦ 서울시민회관 화재(1972년)
◦ 1972년 12월 2일
 - 정관 개정 허가[17)]
◦ 서울 20평 이상 건평에 수세식 변소 의무화[18)]
◦ 제1회 건축인체전(건축사 54호)
 - 3단체 주최
 -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6.10 축구, 배구, 배드민턴, 오락 경기 등)
 - 한국여성프로축구 대표팀과 친선경기(1:0으로 체면유지)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건축사지 1972년 2월호에 대연각 호텔 화재사건을 중요하게 다룸
◦ 1972년 12월 30일
 - 건축법 4차 개정
 - 특수건축물에 대한 방화 대책 강화
◦ 1973년 10월 27일 정관개정
 - 대의원은 정회원 7명당 1명으로 개정
◦ 1972년 이사회 27회
◦ 1973년 이사회 18회(20년사 p636)

17) 본 협회에서 건설부에 제출한 정관 개정안이(1972.12.2) 하가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제21조 대의원 정회원 5명당 1인에서 정회원 7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선출로 변경, 대의원임기는 1년으로 한다.
18) 서울시는 앞으로 상하수 시설이 갖춰진 지역의 20평 이상 신축되는 건물에는 수세식 변소를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것은 시민의 보건위생과 청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를 위한 건축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대 회장 한창진(1973.10.27~1975.10.31)

■ 주요할동 사항

◦ 1974년 7월

본부 및 서울지부 서린동 이전 4층 건물 구입(1974.7)

- 본부와 서울지부 공동투자 투자비율 본부 37% 지부 63%(20년사 p347, 1983년 3월 매각)

會舘現況(前) 종로구 서린동89－1 會舘

買入年月日	不動産規模		買入額	買入方法	投資比率		備考
	垈地	建物			本部	支部	
1974. 4. 12	61坪	200.97坪	42, 431, 248	本部와 서울支部 共同投資	37%	63%	'83. 3賣却
	名儀：大韓建築士協會						

◦ 1974년 7월 30일

– 충남지부 건축사회관 준공[19)]

◦ 1974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지부 강남분소(분소장 김진성)[20)]

– 새마을사업 기금 헌납

◦ 1975년 5월 12일

– 건축사 멸공 궐기대회 국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개최[21)]

19) 충남지부는 지난 7.30일 대전시 대흥2동 487-1 소재에 신축 중이던 새 회관의 준공식을 거행했다. 동 회관은 지난 73년11월에 착공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783㎡ 규모로서 설계는 현 중남지부장 김종민(김종민건축설계사무소 대표) 회원과 조정환(현대건축연구소 대표) 회원이 담당하였다.

20) 서울특별시지부 강남분소(분소장 김진성)에서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영등포관내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도구보내기 운동에 보태어 달라고 영등포구청장(구청장 김진원)에게 일금 60,000원을 기탁(74.8.26) 했다.

21) 1975.5.12 오후 3시30분 국민은행 본점 15층 강당에서 본협회 및 서울특별시지부 공동주최 건축사 멸공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중략>- 또한 서울시지부 김만성 지부장의 결의문 채택과 성일영 이사의 내 조국 내 민족은 우리가 사수하자는 구호 제창과 만세 삼창으로 건축사 멸공 궐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1975년 6월 5일

– 전남지부 건축사회관 개관[22)]

◦ 1975년 7월

– UIA에 한국이 이사국으로 피선[23)]

◦ 1975년 7월 31일

– 서울시지부 동서북부 분소장 취임 승인(20년사 p649)

◦ 1975년 10월

– 창립총회 10주년 기념 회원작품 침 학술논문 발표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건축법 6차 개정

– 주차장법 제정, 1975

◦ 1974년 이사회 29회

◦ 1975년 이사회 24회(20년사 p647)

---

22) 전남 지부건축사 회관이 지난 6.5일 본협회 임원과 전국 각시도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동 회관은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8개월 만에 준공된 것으로 위치는 전남 광주시 대인동 323의11에 공사비 6천만 원을 투입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40평 규모의 동회관은 동 지부 임성규(신도시건축연구소) 회원이 설계를 담당하였다.

23) 세계건축사연맹(UIA) 제13차 총회가 이태리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총회에서 한국건축가협회가 처음으로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8대
9대 회장 이규복(1975.10.31~1977.10.31)/(1977.11.1~1978.3.30)

■ 주요활동 사항

◦ 1977년 4월 7일

– 연암 김순하 선생묘비 제막[24)]

◦ 1977년 6월 14일

새마을운동 범국민 불우아동 돕기 운동 전개

– 본회 각시도 지부 추진 실적[25)]

24) 본협회 초대 회장이시던 연암 김순하 선생 묘비 제막식이 '77.4.7 서울근교 마석에서 자리한 모란묘지 유택에서 본협 역대회장 임원 및 직원과 유가족 참석리에 먼저 안인모 회원의 비문 통곡에 이어 참석인사들의 분향으로 선생의 영혼을 추모 엄수하였다.

25) 본회-교육비 및 양육비 해당 아동 결연 신청 중 / 부산-조달이, 장순이 두 불우아동과 결연 양육비 월5,000원 지원 / 경기-'77.5.28 김성은 회원 정수복 불우아동과 결연 양육비 매월 5,000원 지원 / 전남-'77.1.20 전남지부장은 정순자 불우아동과 결연 양육비 매월 5,000원 지원 / 충북-농촌일손돕비 모내기 봉사 새마을 자매 결연 / 제주-한라산 청소 활동에 나선 제주지부 회원 및 직원 / 강원-새마을 자매 결연 / 경북-새마을 자매 결연

◦ 1977년 9월 13일
- 건설부 주택국장 전경우 씨 본협 예방[26)]
◦ 1978년 2월 19일
- 서울시지부 회원 건축사 제1기 새마을 교육[27)]
◦ 서울시지부-수재의연금 기탁-건축행정사무실 운영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1976년 이사회 6회(20년사 p651)
◦ 1977년 12월 31일
건축사법 1차 개정
- 건축보조사 신설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요건 마련
- 건축사등급제 폐지
- 합동건축사사무소 등 근거 명문화
◦ 1977년 이사회 22회(20년사 p655)

26) 1977.9.13 주택국장 전경우씨는 김영철 건축과장을 대동하고 본협회를 예방하였다. 본협을 찾아온 전국장은 본협회장 입석 하에 기획부장의 협회 현황 설명을 통해 본협 업무 전반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돌아갔다.
27) 본 지부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직능별 도시 새마을 합숙훈련 제1기생으로 이봉로 회원을 비롯한 58명이 1978.2.19.~25일(1주간)까지 안양소재 민간단체 새마을연수원에서 새마을 교육을 필하였음.

10대 회장 강봉진(1978.3.30~1978.10.30)

(❖ 9대 잔여임기)

■ 주요활동 사항

◦ 건설부장관 본 협회 정관 개정 승인
- 총회 1/3이상 출석으로 성원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건축가협회 회장 최창규씨 선출
◦ 5대 회장 역임(4대 잔여임기)
◦ 1978년 이사회 25회(20년사 p658)

11대 회장 김만성(1978.10.31~1978.12.21)

■ 주요활동 사항

◦ 1978년 10월 31일

– 서정쇄신 촉진대회 및 제13회 정기총회 개최[28)]

◦ 건설부 인가 유보로 퇴진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2급 임원 포함

28) 1978.10.31 시내 엠버서더호텔 대회의실에서 내외귀빈 및 전국 시도지부 전 대의원, 건설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978년도 서정쇄신 촉진대회 및 제13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서정쇄신 촉진대회는 김두섭 본협 총무이사의 국민교육헌장 낭독으로 그 막이 올라 대통령 각하 말씀 경청, 회장 훈시 제3땅굴 5.16광정궐기 선언 성토문 결의문 채택 낭독 등 북한 괴뢰 만행을 성토 규탄하였다.
제적 대의원 69명 중 64명 출석으로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성원을 선포 부의안건 제4호 의안 기타사항 토의 중 김두섭 이사의 사의 표명과 박우하 이사의 사표가 전임원(이사전원)의 사의 일괄 수리여부를 놓고 토의 끝에 회장도 사의가 표명됐음을 상기 동시 일괄 처리하자는 동의를 받아들여 가부를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재석 49명중 가(수리) 42, 부(반려) 7표로 임원사의는 일단 받아들여졌다.
대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임원개선에 들어가 결국은 무기명 투표로서 종다수 순으로 두 사람을 추천하되 재석의원 과반수이상 득표자는 당선된 것으로 하자는 원칙으로 투표에 들어가 개표결과 종다수 김만성, 김두섭 두 회원이 피선 회장선출에 들어갔다.(20:50분) 개표결과 재석 50, 투표 50, 25대 24표 기권 1표로 김만성 서울시지부장이 당선되었다.
뒤이어 임원개선에 선출방법을 놓고 토론 끝에 배수 공천을 하고 종다수로 임원을 선출하기로 결의 10인 공천 중 김춘배, 안기태, 김충득, 세 회원은 공천을 사퇴하고 투표, 개표결과(재석 48) 김규태, 송관식, 조구현, 김춘배, 김형배 5명이 이사로 선출되고 감사선출은 박성규(서울) 18표, 이종수(부산) 24표. 이상 임원 선출을 끝내고 신임 김만성 회장이 만세 삼창을 끝으로 제13회 정기총회의 막을 내렸다.

12대 회장 김두섭(1978.12.21~1980.10.30)

■ 주요활동 사항

◦ 1978년 12월 21일
- 제3회 임시총회 개최[29)]

◦ 1979년 4월 30일
- 건축허가 일부제한에 대한 건의[30)]

◦ 1979년 6월
- 건설부 주택국 산하 건축관리관 신설

◦ 1979년 9월 1일
- 고재일 건설부장관 본협 내방[31)]

29) 1978.12.21 프레지던트호텔 회의실에서 내외귀빈 및 전국시도지부 전 대의원, 건설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임시총회를 가졌다. 부의안건으로 제2호 의안 임원개선으로 들어가 김만성, 김두섭 두 후보를 무기명 투표로 회장선거를 실시하였던 바 김만성 27표, 김두섭 40표로 제12대 회장이 선출되었다. 12대 회장으로 피선된 김두섭 회원은 전임 본협 총무이사를 역임했던 분이다.
회장으로 선출된 신임 김두섭 회장은 즉시 이사 선임의 전권을 수임 받아 회의에 입석한 전임회장 4분(장기인, 강봉진, 한창진, 이규복) 숙의 끝에 서울의 박래운, 박우하, 한영수, 김정철, 부산의 김규태, 5인을 이사로 지명 총회에 승인을 요청 만장일치로 의결 임명하였다.

30) 건축법 제4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 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78.5.22부터 전국에 걸쳐 건축허가를 일부제한하고 있는데 대하여 건축허가 일부제한을 완전 해제 시까지 별첨 내용과 같이 조정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하오니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건축제한 조정(안)-<중략>-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두섭

31) 고재일 건설부장관은 '79.9.11 오후 2시 한규봉 주택관리관 남일 건축과장을 대동 본협회를 내방하였다. 이 자리에 본협 김두섭 회장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본협회 현황을 들은 뒤 본협회 회관1층에 전시되고 있는 우수건축자재를 둘러본고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바쁜 일정 때문에 다시 기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회장에게 남기고 본협회를 떠났다.

◦ 1980년 6월 5일

일선장병위문(20년사)

- 안기태 서울지부장 박래운 이사 등과 00부대 방문위로하고 위문품 전달

◦ 1980년 7월 7일

건축계 3단체 회장단 조찬회('80.7.7)

- 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3단체 회장단이 롯데호텔 피콕크룸에서 조찬을 가짐

◦ 1980년 7월 20일 ~ 7월 28일

- 사우디 공대생 기술연수 훈련[32)]

32)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경제기술협력 강화 및 해외건설 시장의 장기적 기반 구축을 위한 일환책으로 실시한 사우디 공대생 기술연수훈련에 본협회가 설계 실습훈련의 담당기관으로 선정 되어 '80.7.24~7.28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들은 정림건축(대표 김정철), 정일건축(송기덕), 공간건축(대표 김수근)에서 실시된 설계 실습 및 감리현장 관디 등을 통하여 높은 향학열을 나타내었다. 특히 한국전통 건축양식의 정밀하고 우아한 건축미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본협회 우수건축자재 전시장에 전시된 국내 우수 건축자재의 우수성을 재확인 하고 각 업체별 상품가다로그 모집에 열을 올렸다.

◦ 1980년 8월 4일 ~ 8월 23일

- 건축사 특별연수 교육 실시[33)]

◦ 1980년 8월 21일

- 범건설인 자율정화 결의대회[34)]

◦1980년 8월 14일 ~ 8월 28일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에서 제2회 '건축자재 전시회' 개최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1970년 1월 4일

- 주차장법 2차 개정

◦ 1980년 1월 4일

건축법 8차 개정

- 상주감리제도 도입

◦ 1980년 1월 4일

건축사법 2차 개정

- 종합건축사사무소 제도 신설

◦ 1979년 5월 2일 정관개정

- 대의원 정회원수 30명당 1인(20년사 p149)

◦ 1979년 이사회 23회

◦ 1980년 이사회 24회(20년사 p669)

33) 본 협회에서는 '80.8.4~8.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시내 건설협회 대강당에서 80년도 건축사 특별전형 시험에 대비한 2급건축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34) 세종문화회관에서 본협회를 비롯한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측량협회, 한국주택사업협회,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중략>- 결의문(5개항) 낭독.

13대 회장 구윤회(1980.10.30~1982.10.29)

■ 주요활동 사항

◦ 1981년 3월 9일

- 특별연수교육위원회 개최[35)]

◦ 1981년 4월 1일

- 건축사 특별훈련교육실시[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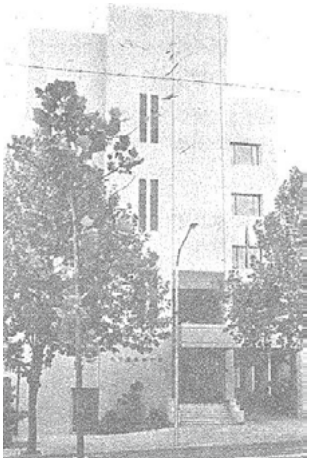
◦ 1982년 5월 26일

- 김기수 상근부회장 취임[37)]

35) 본협회는 '81.3.9 본협회 회의실에서 특별연수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81년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였다. 본협회 이사인 안기태 위원장을 비롯하여 17명의 위원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2.25 공포된 건설부 공고 제14호에 의하여 '81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본협회 회원인 2급 건축사들이 시험응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금번 특별교육은 종근당(주) 회관(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68-2) 강당에서 4.1~4.5(1차), 4.6~4.10(2차)까지 구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수강신청은 각 시도 지부별 신청 마감토록 하였다.

36) 본협회는 2급 건축사 특별연수교육을 예년과 달리 '81.4.1~4.10에 걸쳐 2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수강 건축사의 대부분이 수년에 걸친 수험경력과 피나는 노력을 바탕으로 오는 4.18부터 2일간 실시되는 특별전형을 받게 되는데 담당강사진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미루어 무난하리라는 앞날의 행운을 기대하면서 전국 400여명의 수강자들은 열의 있는 수강에 임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본협회 2급 건축사들의 특별보완교육으로서 이의 산파역으로 동위원회 안기태 위원장이 동분서주하여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동 교육의 성과가 기대하였으며, 10여 일 동안 수고하신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강사진 생략>

37) 신임 김기수 상근부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82.5.26 본회 회의실에서 본부 및 시도지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1982년 8월 8일
- 대구건축사 회관 준공(20년사 p676)

◦ 1982년 10월 29일
- 건축사 헌장 제정(20년사 p182)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1981년 11월 14일
정관개정
- 건축사윤리조항 추가
- 상근부회장 도입

◦ 1981년 10월 29일
정관개정
- 대의원은 정회원 수 20인마다 1인(20년사 p149)

◦ 1982년
건축법 9차 개정
- 건폐율과 건축물 면적 제한

◦ 1981년 이사회 19회

◦ 1982년 이사회 11회(20년사 p675)

14대 회장 김지태(1982.10.29~1984.10.22)

■ 주요활동 사항

◦ 1983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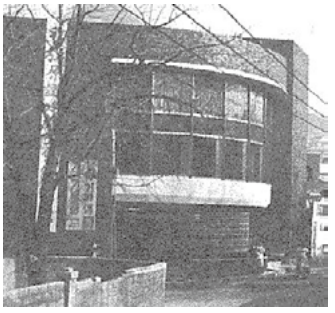
김종호 건설부장관 협회 내방[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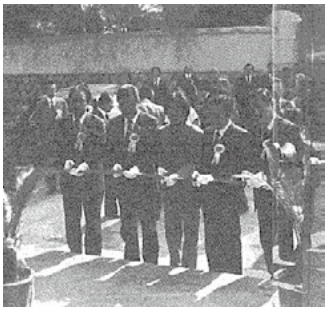
- 업무보고 및 현안 문제 논의

◦ 1983년 3월 5일

강원도건축사회관 준공[39)]

- 1983.3.5 현판식 가져





◦ 1983년 3월 22일

회관 신축부지 매입 결정

- 강남구 서초동에 약 1천9백㎡ 전회원대상 현상공모

38) 김종호 건설부장관은 '83.2.17 연두 순시차 본회를 내방하고 업무현황 및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지태 회장의 영접을 받으며 이날 오후 3시 건설부 관계관을 대동하고 본회를 찾은 김장관은 회장실에서 본회 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김기수 부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39) 강원지부(지부장 이국남) 새 회관을 마련하고 '83.3.5 상오11시 현판식을 가졌다. 연면적 583㎡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한 새 회관은 이국남 지부장이 직접 설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착공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 1983년 4월 25일

- 건설기술교육원에서 1983년도 건축사보수교육이 실시됨

◦ 1983년 7월 8일

신축회관 현상설계 당선작 발표

- 당선작 송광섭 회원, 우수작 이영희회원, 김기웅 회원, 김부영+최성일 회원(공동작품)

◦ 1983년 9월

소련의 만행을 규탄

- 본협회 일간지에 성명서 발표
- KAL기 격추 희생자 협회 유관인사 3명 포함

◦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참변 규탄성명

- 대동단결로 난관극복 다져

이번 慘變으로 殉國하신
英靈의 冥福을 빕니다。

九日 낮 全斗煥 大統領閣下의 公式訪問國인 「버마」에서 突發한 暗殺 爆發事件에 대해 우리 建築士協會 會員一同은 온 國民과 더불어 憤慨와 憤怒를 禁치 못하며 殉國하신 英靈들의 冥福을 빌고 遺家族에게 深甚한 哀悼의 뜻을 表하며 負傷者의 早速한 快癒를 빕니다。

國家元首를 危害하려는 北傀의
天人共怒할 蠻行에 대하여 은 國民
과 全 世界平和 愛好民의 이름으로
糾彈한다。

은 國民은 大統領閣下를 中心으로 大同團結하여 國力培養에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 建築士協會 會員一同은 殉國하신 분들의 高貴한 犧牲이 헛되지 않게 建築界의 主役으로서 國家經濟發展에 이바지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一九八三年十月九日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金 枝 泰

ソウル特別市 支部長 吳 雄 錫
釜山直轄市 支部長 黃 在 洋
大邱直轄市 支部長 金 在 佑
仁川直轄市 支部長 金 晶 洙
京畿道 支部長 林 龍 洙
江原道 支部長 李 國 男
忠清北道 支部長 吳 世 煥
忠清南道 支部長 柳 根 洌
全羅北道 支部長 全 煥 直
全羅南道 支部長 林 在 植
慶尙北道 支部長 孫 在 守
慶尙南道 支部長 李 鍾 泰
濟州道 支部長 高 英 重

◦ 1983년 12월 22일

건축사협회 신축회관 기공식

- ㈜삼호서 공사 맡아

◦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건축사회 창립총회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1983년 이사회 14회

◦ 1984년 이사회 13회(20년사 p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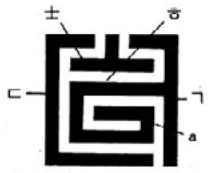
15대 회장 오웅석(1984.10.22~1986.10.30)

■ 주요활동 사항

◦ 1985년 1월

대한건축사협회 배지 제정(20년사 p182~183)

- 1985년 1월 본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협회 상징 마크 및 로고체 현상 모집 당선작 없는 입선작을 냄



〈이한구씨 작품〉

〈조제철씨 작품〉

大韓建築士協會

◦ ㄷ, ㅎ, ㄱ, 士는 대한건사로서 대한건축사협회의 약칭이며 영 a는 architect의 첫 자임. 전체의 image가 고유한 한국의 벽화 장식의 완자무늬를 상징하여 건축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음. 이 마크는 서울대 미술대학 민철홍 교수의 저작임. 한편 이때 공모에서 한상훈 씨의 로고체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어 사용되기 시작함(20년사 p183)

◦ 1985년 3월 29일

– 건축사회관 준공 기념식[40)]

◦ 1985년 5월 6일

– 2급 건축사교육실시[41)]

◦ 1985년 10월

– 오웅석 회장 제1회 아카시아(AIA) 총회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42)]

◦ 1985년 10월 23일

정관 제20조 개정[43)]

– 대의원수 회원 10인 마다 1인

◦ 1985년 10월

– 창립20주년 건축사지 200호 발행

---

40)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산61-3에 신중 중이던 본회회관이 착공한지 1년 3개월여 만인 '85.3.29 오전10시 신축회관 대회의실에서 준공기념식을 갖게 되었다. 1천8백85㎡의 대지에 건축연면적 4,418.43㎡ 세워진 신축회관은 지하2층, 지상4층인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서 본부, 서울지부와 건축사복지회가 입주했다.

41) 본 협회는 '85.6.16 시험예정으로 있는 건축사특별전형시험에 대비 2급 건축사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키로 계획하고 있다.<중략>

42) 오웅석 본협 회장은 6.9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85년도 AIA(미국건축학회) 총회에 참석키 위해 6.5에 KAL편으로 출국하였다. 오웅석 회장은 '85년도 국제위원회(위원장 송기덕) 사업계획에 따라 AIA,총회에 참석하게 됨을 계기로 AIA와 본협회 간의 기술교류, 정보자료교환 양국건축사 상호간의 이해와 우의 증진의 길을 아울러 모색할 것인데 오웅석 회장의 미국에서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중략>

43) 정관 제20조3항의 대의원 정족수를 현행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20인마다 1인의 비율로 되어 있는 대의원수를 정회원 10인 마다 1인으로 대의원수를 증원키로 개정하고 '86년도 대의원 총회부터 실시키로 하였으며, 역대 회장과 현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였다.

◦ 1986년 1월 10일

– 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발행(1965~1985)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1984년 12월 31일

건축사법 4차 개정

– 단독건축사사무소/종합건축사사무소로 건축사사무소의 종류를 이원화

◦ 1985년 10월 23일 정관 제20조 개정

– 대의원수 회원 10인 마다 1인

◦ 1985년 이사회 7회(20년사 p679)